

贈呈

沙

逸

金鑑墓志重刻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創刊號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發行

祝 創刊号

國民議院 議事局速記課

課長 金震熙
外藏員 一同

祝 創刊号

大韓速記 孝術協会

創會長 金震熙
會員 金基漢
天基漢泰

逸漫創刊号目次

濟源 刊行會

創刊號에 謹啓

李生 告白

速記 李智昌失敗한 原因

理想의 目標 外 現實的 目標

孝園 由社會의 解剖

特編 逸漫記念誌

創刊號에 謹啓

道德 由法 起源及發達

人生 由來 記述

人性 由發達 由現代位置

文學 由來 記述

後悔 由來 記述

士志 由來 記述

社會 由來 記述

文學 由來 記述

思想 由來 記述

人生 由來 記述

人性 由來 記述

文學 由來 記述

後悔 由來 記述

思想 由來 記述

人生 由來 記述

人性 由來 記述

文學 由來 記述

後悔 由來 記述

思想 由來 記述

人生 由來 記述

人性 由來 記述

文學 由來 記述

後悔 由來 記述

思想 由來 記述

人生 由來 記述

人性 由來 記述

文學 由來 記述

後悔 由來 記述

思想 由來 記述

校長
重慶府議事局長 徐肅侯(二)
主任先生
金鑑基(五)
金鑑基(七)
李漢誠(二)
論說委員
李漢誠(二)

右石右
崔在明(三三)
徐平吉(四)
李東一(五)

金鑑基(一)
劉允会(三)

徐平吉(三)
全金成(三三)
李金仁(三三)
李良澤(三三)
裴炳雨(六九)

卷頭言

우주를 舍空아래 五穀은 무로하고 五方의 힘을 끌어당기고 心靈을 유통하는
結実의 강호 :

結實은 非單 穀物과 果實等의 植物에 限한것이 아니고 우리人同의理
念도 이가을에 結實되는것으로 生熟한다

그리기에 大自然은 그처럼이나 仁慈로워 王道이 맑고 善惡은
자호파의봄에 仁慈이 밝은 雨露을 베풀고 自身이 豪奢로운 布施
을 하지않는가 ?

우리人類가 글을쓰는 才操은 白雲以白로 오늘까지 가장 여울고 異常하
운 文章도亦是 이가을에 創作되어왔다

우리가 싹튼는 希望의 봄에 이 濟我의 門을 두드렸을때 結实의 이가을을
마자 무엇인가 하사 열매를갖고서 허니 希望이였다 여기에 微薄하나
마자 축복의 열매로서 이 逢設副舟목을 가지게 된은 祖으로 慈惠 같은
성품에 感慨無量하다

우주 過去의 現在을 緊하여 有価值하고 現在은 未來을 緊하여 그意義
가 있진않아 本志의 發展을 緊하나 또 本志의 第二동을 緊해 優前의 努力
을 바랄뿐이다

序文

校長 崔延宇

民族向上의 文化發展에 左右된다면 文化進步에 가장 핵要한 手段이
思想을 依違하지 言論의 特點일은 誓言을 不要하지 바이다

李朝世宗大王께서 制承하신 章疏이 民族文化發展의 非量한 基礎條件이란 以來
五百萬中안은 痛苦困難과 不適한 痛楚下에 爲우려 進步發達과 改良은 始終하고 간
신히 金載는 論持해오다가 以近비 이르니 名義共의 우리나라 한글로써 成就
하게 되었지 文化發達과 社會의 向上進步之 思想을 依置한 特點의 聚集과 言論對
正統하고 事論의 題由發展은 速記述의 執筆及登壇에 至天註閻羅가 있음을 알게되자
而論호 소통의 進化가 明瞭으로 促進된 現代에서 速記述의 理下 民族社會의
文化向上이 載體皆其事之本가 亟天註는 再言述 七事非기나
而用호 利用도 俗用俗道의 時代需求의 一註到로 生靈 著述有之
내내 대여 운생得라고 한때 노획 해보았으나 諸君情의 基因하여 訓義도 그 유래동본 있으나
이제 諸君이 不惑 謙諱니 畢先錄述를 為之 文化向上의 徒筆으로서 言論特進者反에
猶豫한 소통인 以希避之 想解其意 卒著서 度寫하여 막자 뜻은 바이다
아무것도 諸君의 芳雅를 莫敢하여 이을 完全 習得하여 가지고 望社會發展에 초 貢獻이 莫
을 바라보 바이다

學生에 告 託

(副校長) 徐商俊

우리 案第 종교 창립 착하고 아름답고 옥을 가른 生活을 運求하고 있고 指向이
묘사之지이다.

學卷生活에 있어서 學問을 研修하고 慶性을 遷善하고 身體를 練鍛하여 운동
精誠과 精力을 習注하고 있겠소 亦是 우리의 私生活이하 公共生活을勿論하고 보
나더 善生活 生活을 遣求하고 指向하기 為한 基礎를 打는 努力이자고 生覺한다
諸君은 三全德의 藝術을 通해가 아니라 文化生活의 向上를 이룩하기 為하여 그基
礎를 놓고 있는 것으로 生覺한다

諸君은 이리 그眞面目 使命과 貢務가 우리을 것을 느끼고 이 基礎를 짜는 根
幹이 되는 和 緒 体를 向하여 와고 있어서서 소부신努力을 延續하고 있겠소이다
이에 날은 走馬川 加鞭하는 畏으로 一言하고 전한다
遠記技術을 習得하는데 있어서는 非常한 覺悟와 忍耐와 努力이 需要되는 것은 以
示諸君이 為前의 修業을 通하여 体得하겠을 것이라 그れ에 將次 이遠記技
術을 完成시켜 國家 祉令에 높은 수준의段階에 까지 到達할려면는 加一層의
蓄發이 需要된다

遠記技术 本身은 談論之 本旨하고 正確하게 記錄할수 있는 技術的 標準
이 되어야 한다 努力은 力端마련으로 諸君의 訓跡水準을 높일대로 努力할

4. 諸君은 많은 時間을 使用하여 막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漢詩나 講義하는 사람의 美로

各界 습관에 노려 있고, 출신의 知的水準도, 俗氣이기 때문에 遠記技術看之, 由로 博識을 要

하고 無不能道 이라야 만족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諸君도 懶惰 書籍을 까다리고, 見聞을 넓여서 優秀한 技術을發揮하는데 舊習을 풀어야 할 것이다.

본단 아니라 身體의 健全과 人格의修養을 畏해서 精進하겠으나 詞賦을 조루로 하거나

것이다.

만일 修學期間을 통하여 有終의 품질을 거둘수 있으면 基礎를 닦는데 諸君의

生活이 健全하고 舒暢한 길을 걷기를 希冀에 맞지 않는다.

以上

우리의 盟誓

- 一. 우리는 大韓民國의 아들딸 죽임으로서 나라을 지키자
- 二. 우리는 鋼鐵같이 固結하여 共產侵略者를 처부느라
- 三. 우리는 白頭山鎗筆에 太極旗를 펼고 南北統一를 究遂하자

遠記修習에失敗한原因

(但任雀任) 金 鎮 基

四期生이 八朔하여 满之日이 되니 去於月十五日 現在 甲戌挑棄한 축坐의 수는 두고名에
達하지 아니며 遠記의例를 보아 앞을 추棄할까 차리를 함께 하진 못할 축坐이 도몇명이 있겠지
모른다. 이것은 初禱 四期生에만 威한 뜻이 아니라

해마다 되풀이될 안타까운 琢磨인 것이다.

그전에 大体로 그失敗한 사유는 말을 들어보면 翹隱의 本體의 無能함은 本體
자연교단만 「遠記述은 어려운 것인가」 또는 「遠記는 簡易한 것인가」…… 같은等速記가
되거나는 다른 것인 生道하느라 헛되니 있는데 이처럼 遠記는 眞實로 斯道普泛을 試하여
寰宇 습관을 일으키며 성취하니 되었다

(二)

勿論 二월은 가지 가지 一月에는 멀한 진보를 드니 二月의 異同과 雜念을 指摘함으로서 그들의

大諦는 及其을 告解하는 바이다

첫째로 『글을 잘 써야 한다』 成功을 밝진 않았는가?

우주每事가 之順序가 되어 있다. 充分한 意와 雜念은 根柢를 갖출지 않고 大變
物을 세우는 데 차질이 있다. 이는 遠記修習에서 成功한 既成遠記도 最初에는 가능하
지 않았을 뿐더러 遠記에 遠記에 誤解을 벗어나기 어렵다. 艱苦努力한結果遠記가 된 것이다. 但任

6

留學에 있었던 楊柳姐何에 대화선은 趙班하고 墓遇가 있고 또 遺記과는 것은 국어에 대한 것은
자 빨리 쓰기 약간 헌신之 簡便한 초述으로 適切히 하면 좋겠지만 玄虛 生覺을 가졌다
온 아시겠는가?

둘째로 그들은 玆解가 不足하기로 봤겠는가? 청중이 入庫해서 藝文을 배울 때
마는 一覽의 珍奇한 맛을 느낄 뿐 아니라 軍純하게 生真卷을 이정도라면 못 할 티가 있다
는 듯이 제曲 楊柳호드려 云云하니가 基本文후을 마친고 長短法이나 各種略記法
讀書에 들어가면 良好複雜功吸해서 云云 疾氣가나기 始作한는데다가 痘瘍이 有法이니
또한 云云한 樣法로 여기에서 云云의 痘瘍이 痘瘍을 느끼거나 速攻 向上이 단숨에
대로 잘 치지 않고 速攻한 것을 權取해보려고 한나 答호그럽게도 제대로 읽어지지 않는데
에서 云云에 云云는 云云를 疾氣이 有法이지 알겠는가?

선생은 練習이 不足하지 않았는가? 「術」이라든 일들이 물은 藝은 무엇이 理論이나
學說에 깊고 풍자하는 것이라

더욱이 速攻과 같이 손글을 일컬어는 주설이야 말로 그 術則이야 速攻文부記事의 雜解이
둘째 것은 첫째 아니라 速攻 이후 하나하나를 云云의 云云것이 절대까지 云기 있으니 練
習을 하지 않는 到底히 云云하지 못하는 것이다

即 速攻 課功 成功의 次決을 速解에 있다는 듯한 事實을 云云의 認識하지 못한
것이었는가?

(三)

坐의 大板共通의 으로 遠記習作에 失敗한 一般적인 習因이라는 것은 故煙에서 屢々
이 力說하였음으로 以未周知의 事真니겠으나 現在習作을 謹疏中에 있음 由리분各舊
의 稽之 이蹊치의 心的朝向은 果然如何하가? 一下 한번 조용히 熟考하 바란 諸味
의 이호운 산전남을 眼罩之 바라

以上

理想的目標 斗現實的目標

(經林先生註)

金 昇 鎖

사람은 人生 理想을 갖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理想이라는 것은 俗의 말속에 있는 것
지지요 이것을 適確히 指擇하는데는 어려운 것이다. 人生의 목표가 달라야 그에는理想
想의 休도 碱固不動할 것이다 아니라 修養의 따라 道한 道途의 奉化의 道 自由로 몸을 살피
安號하다 가고 있음을 깨닫고자 한다면 몇 차 많을가?

여러 가지 理想中 人生目的에 대한 理想 即以解剖하면 理想은 人生 何種인은 人
生을 보는 두 가지가 있다. 人生觀兩端 一은 未來를 前後와 靑赤의
가장 중요하고도 深刻하게 生寛泛의 問題의 하남로서 落落하게 겪어 이때가 舊謂「落葉年
年」時期로서 知的인 面은 素朴의 生活을 살는 삶의 대로 人生 한番 주고 았던 青赤의

아와 같고 경로을 跟而 自己의 素質이나 그학의 되는 가지環境을 考慮하여 自己의 나마
같 方向—— 政治家같은지 實業家 甚麼家 選舉家 選舉權을 考慮하기 因에 —— 不能是 真다
各首選政站 方向은 단계를 차라도 그들이 自己의 選舉權 方面의 最行進着目標——
即 理想은 大略 그는 주를 알리하지 아니 할까 한다

— 人種이나 人類社會는 즉하여 많은 功獻을 하드로서 自己의生涯를 值化하고
永久化하겠자之目標로 —

· 亂가 이려한 理想과 自己의 人生을 決定하기까지 相對화 쓰 苦惱을 겪게됨이
普通이

첫 번째 自己의 素質이나 方面에 適合하나니는 判斷이 容易이 치 않고 따라서 비
정도하고 爲로 選舉 드리고 選站을 살펴 놓을 수 있는 것 이요

둘째 理想의 真理임 무엇인가에 先自 己의 生을 趙持하기 위하여 答을 찾고
못 찾았을 때 自己의 人生 가려는 方向은 그것이 容易 치는 環境에 있다면 그는
모르겠지만 그는 찾았을 것이다

그 담으로 之問題이 어려운 方向이고 同에 之問題이라도 人類社會에 何解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 단계에 이른다. 그에 가장 크게 가장 어렵게 人種社會의 功獻을 찾는다
는 것은 아닙니다. 即 未來의 計划가 亂가 적으로를 判斷하는 것입니다

理想을 実現시키는 手段이 容易하게 発見할 수 있는 極難이거나

困難하고

手段이 難이

容易하게 発見하는

困難하거나

容易하게 発見하는

困難하거나

困难하거나

⑨ 困難과는 等호로 같은 苦惱이다

진짜가 問題가 흔히 才外努力하면 問題를 解决할 문제일 것이다

진짜가 問題가 眞理와 現実의 問題를 解决할 것이다

생계의 問題 어려운 데가 가장 크게 理想과 問題를 実現하는 方便 手段이 낫다면 問題는

複雜한 問題로서 소홀히 하루가 困難과 問題가 아닐까

生顧하라

예聖은 四不惑의 하지 만 凡俗의 自身 例로 보면 五十이 많아 되고 일주
오른쪽까지 두려워 善斷을 세우지 못하고 行徑하고 焦躁하고 般形 한다

理想은 褒 現실은 이에 떨르지 않고 아 일을 나누어 하라고 恨欵하여 불엇

자 解決된 問題는 가며 내면의 끝나는 거울에 過誤가 있는 結果가 벗어난
自業自身인 것이다

10. 이에 내 자신의 차지로 過誤를 負荷함으로서 或이나 命生痛苦의 痛苦가 될까
하여理想의 目標가 現實의目標라는 問題를 내세우는 바다

理想이라니 純淨無是 無禪非有 純淨은 純淨한 두 가지는 말하고 남도 말
거나 理想과 現실과 手段와 方法는 把握치 드리고 머물거나 그려보는 理想 現실
교안하

하며 理想과 現실 現실은 現실을 가지고 일상의 것과 같고 학제적 내용에 맞을

10 어진것은 아 니다

이와 같은

理想을 理想이 接近시키고자 할은

하고

一朝이 기를 주었느니

이요 駢次의 인 目標을 세우고 광범위한 舟船으로 乃로 運하야 애한 자

지 봉에 흘러 가려면 삼리에 환증 천증 쇠를 차례로 떠나 올라가야지 한증 두증을

전너뛰어서 올라갈 수는 없느 것이다

나는 이에 진웅이 올라가는 것을 理想目標라고

세

다리 친구가 충을 失추없이 올라가는 平淡 方承호 意慮함이 있으니 性惠한 善覺

에 친웅 말을 차 다른 데자 底氣한 것이 되었다 그려므로 理想目標은 故局目標을

大目標라 하면 理想의 目標는 계단의 목표는 小目標라 할수 있다

이러한 理想目標는 遷延하자면 발듯이 먼저 理想의 小目標을 遷延한 다음

에 대 理想의 목표를 놓는 것을 각색해 놓아 있다

그러나 理想目標가 놓으면 川目標을 놓는 方向 즉 대각을 놓는 方向이 있어야 한다

이로 理想目標가 빛이 있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 理想目標가 놓으면 놓을 후록 之에 대비하는 由因과 함께 일치되어

理想의 표는 뒤에 놓은 걸로 놓아서 대비할 것이다 이와 같은 理想의 표가 依한 理想의 川目標가

세워지면 理想의 표는 첫 보자면 그대로 理想의 표 하수하나를 設定하는 것이다 그리

가 理想의 표를 建立하기 좋은 方法을 세워졌으나 아니에 않았다

11. 진통을 떠나는데
색회를 좋아하는데
발은 빨리 달을
자사석과 나석
싸워 올라가는데
더 쉬운 것이라
하는 듯 類의 성질 수 있다
그러나 어정한
干穀을 抓한는지에
그 환증을 헉썩을
싹은 火연포가
새워 저녁에
는 것이다

쏘파진은 말은 흐리깔한
집을 한 이 않기요

剎那 神督한 말을 드친다

그러나 그로 하니 말하니 哲理가 看透하기 쉬운 것이다

집을 올라가고자 하는 慾望만 가득하다
집을 만져다 보고 비는 들풀이니
발은 텁을 어떻게 놓아야 할지 인가을 若는 뜻이 많지
볼수 있는지 봄 내가 그려한 사람에 하나인 것이다
출생가 되면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獨秀한 風氣는 놀랄을 목표로 하라

政治家가 되려거든 干先 行政家로 나간 西等房試에 승格함을
하였다가 되어 설은 干先 그 基礎가 커는 教育부 데
별다임 하여 하나님 자에게 끊고 보면 나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진수에 올라 가면 方便은 三성은 없어서는 超越로 친칠 것이다 高等院試나 추대成
績이나 教育부 休는 나의 산생에 재하여 雖重要한 것은 아니 것이 충주가 학생들
가 되기 속하니 生을 한 것이다 生을 한 것이다 것이 충주가 학생들
그리하여 理想은 끊기 쉬우고 그理想을 향한 力은 가까운 데서 부터 甚초을 드리

學園과 사회의 解剖

(新國字先生作)
新國字先生著

李漢鎔

→

解剖。社會相對 混亂은 學園에로 막론之 混亂을 가져왔다

特이 敵徒를 봐 跋扈는 소송과 群衆間에倫理를 끌어내렸 舊同안 師道는 當에
열려진 느낌을 주었다 그로도 激者들은 어령기하면 故風을 바르고 率園은

淨化하여 國疾 株掲之材을 弗救 肇始가며 腐心하기를 늘 주목하고 學園은
그에 보통에 대처도 率風純之 如前의 치치치서 以을 繼續하고 率園은 肇始가며 애울
태로운 実情이다

그럼으로 學園과 敵手에 대한 표방한 沢識은 각기 유포하 父兄이나 閑游者로 學園을

의 背面을 促及하고 率아니다
學園을 年過한 溫黑대 此하다면 祖先이기 거칠뿐 没譯을 聯想까한다

학원外後輩을 混亂한 難道는 率원이면 學園은 舉職한 意況도 清純한 徒士로 生處처럼
그나 率한 生道은 非까지나 表象의 대 通途의인 生處는 非로 看나
때그려니하면 学園은 舉職한 例值을 살피 할았기 때문에 學園의 本體로 드는
後輩한자니 찾느라라 이 率원이다

그리나 **사회관** 學園에 있하여 復雜한 날씨는 雨가 치운다. 그 모-듯 楊家現家 하나하나
 가 끔찍하게 生覺하기 많음 多算의이며 多樣性을 띠우고 있음에 反하여 學園은 아니겠지
 가 **학원가** 舍는 **한便** 亟赴 **學院가** 그려나 **學園는** 校公의 **縮圓** 리고도 **上登** 한
술 있드러만 품 社會가 있자 **學園이** **班** 乙在在而值量 衆失外재된자 或者는 **學園을**
 가 드쳐 **社會의** **單純한** 純樸的從訓是 生覺產지 모른자 **赤連**한 바와 같이
學園은 **學園으로** **付니** 儘儘가 있진 것이다. **學園에** **付니** 充實其教養은 **江**今이서의 **飛躍**의
 来하는것이자 바꾸워 **立**하연 **하나의** **搖櫓期**하고 生수 있는 **學園**에 **付니** **其**시 **修養하고** 美
 例 精進하는 사람이다면 將次 誓會에 **延安** **가** **寡** **是** **吹** **拳** **打** **拔** **歸** **其** **競** **量** **을** **이** **고** 成
 功의 **門을** 穗사리 萬方列는 것은 力論이다.

(二)

그대하여 **學園亡** 老을 가져온다 노후에 삼파는 보지도 노끼며 明日을 쑤하여 希望에
外술을 **설명**이 **개찰**다.
 現在의 苦難을 克服하고 末日의 雄略를 立하여 実力精進한다. 社會는 **學園의** **縮圓**
 자고도 基本을 **立**하는 **根本의** **立** 分道 되어야 할 吳이 **寄** **印** **被** **金** **登** **學**
 薦과 같이 單純하자 **生** **기** **때문에** 謂以 **乎** **傷**이 忽行 **退** **자** **연** **自** **드** **가** **算** **가** **有** **社**
 수 **自己** **한** **이** **보** **기** **名** **譽** **을** **孤** **莫** **外** **가** **多** **하** **여** **으** **서** **는** **多** **及** **方** **法** **是** **矣**

남을 指忌하고 隨處에 빠뜨리는 수도 있다. 哲자연 真美과 靈이하여 虛無와 儀曲의
생각이 있다. 接觸하는 나머지 并運에 구청하여 빠지게 되는 張本人이 離却지
自己自身은 一定社 聚會를 研究하여 한다 바꿔 멀리 멀리 멀리 工夫를 热心히 하고 精
進하면 그 목을 決정할바 있겠는가.

(三)

二十一 伐의 青年期! 人生에 있어서 用花期라고 본수 있는 青年時節은 老健而面에 있
어서 가끔 進友가 빠르고 感覺性이 敏敏찰때이다 그러므로 거위 모-동 사람인
이들이 舊期을 最高範例으로 봐서 產德而面의 前途이 繩解지는것이 常通이다. 身體적으로자
精神의 능도자 緯雜性을 뛰고 있을뿐만 아니라 學園을 跳社會生路의 道로는 또한 모
丢掉感의 優秀가 叫之재좌(才坐)이다. 具殊的二로 順을 들어보면 學園에게는 先
疎遠에 처한 머리가 자위하고 사죄하고 飲食을 高聲하여 热中하는지 反하여 養食諸
운 超과 利害打算의 되고 암자 利害打算의 알수 있고 金錢을 購求가 되면 俗美
한 스친구인을 罗極히 單勢의이고 微微의인 人向이 되고 跳
말하자면 人向相反가 情懷을 謂述하는것 並非는 全錢을 对 跳이 떨
어 보겠자는 生覺이 앞을 가로막게된다. 學園에 선수 배우고 풀고 보는것 그모두

가 知 情 意의 開治를 촉진적이 되자 또한发生의 指導와 同僚의 貢奉
 이 障碍된다 그려나 社會는 指導나 貢奉이 아님 欠缺이다 不足한 貢奉을 거치며
 내가 存하여 血眼이 되여 売되고 있는 것이라 이 障碍 철학은 社會生路를 通功히
 래나 같은 것은 매우 어려운 옆으로서 純淨이 荷載의 있다 둔가 품이 른 하자
 노거 만으로서 살이나 가기가 非難한 것이다.

(四)

그리고 朝國에서 一 봉을 깨고 그 몸을 하였다 는 優等生이 社會生活에 있어서
 賦予者가 되는 데서 있음을 무역해볼까?

한편 荷國에서는 강태자교에서 또 1등 사람들이 現장에게 生覺자로者が 荷국
 이 勉在하는 것은 무역해보일까?

그것은 다음과이 領者는 朝國에서는 優等生였을지모른다 社會生活에서는
 優等生이 아니라 荷等生이 되여버린 탓이오 領者는 朝國에서는 강태자만
 社會生路에서는 優等生이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生覺하면 亦是 純淨한 荷국이고
 보겠다.

그러나 자기에는 亦是 주준한 이 荷頤이 있어서 차기 때문이다.
 努力做之 伐薪가 허락되었겠는가?

(五)

그때도 積善堂 朴欽子의
 女人이 護土 데를 들여보자 仁生 積善堂의
 그려하여 難聞의試驗을 遷道하여 노니將來는 実로 梦入二토부터 嘘望要마 而得자
 二列자 二가 寒社會도 三列放호에노 云과名譽와女子가 心要하게 되었다
 工夫라든가 修養은 집어치우고 五魁이 生楚카는 자여자 人面獸心 仁人公이
 헤여버렸다. 그려하여 金호마시고 제집에게 疾惑當하기始作자고 仁教社師우를 빙
 제되고 朴자서 거짓쟁이가 되여 베쳤다.
 盛工사람들은 그를 信用하지 않고 雖 맞나는것조차 끼리개되였다. 노니金기는 級苟 落
 의 구령이 밝혀온 痘계되었으니 거센 神氣의風波를 先服하기는 어려운 면천이 드리
 나게 된것이다. (次)

女子의 境遇를 生覺해보자 우라나타女子들은 封建의 道理으로 알야암아 姻婚과
 同时에 家庭을 정기제 朴槿이였자 家庭에 친부하여 家庭雖多蠱惑却能止冊에
 떨어져서 自然退步하고 암울하게된자 家庭生疏를 봉우 女人을 社會眞實을 女人의
 稀少한것이다
 女人들이 家庭에 처벌되며 아무것工夫를 하지않고 男便의 사랑을 独樂이라고 여
 려는동안 그 姑의 일 退步를 가져온것이 真实이라

너우기

寒領

이

普通

의

非

常

人

이

라

면

그

연

마나 悲傷하기라니 그물은
마나 悲傷하기라니 그물은

살을 누운다

그리므로 文子가 男女平等을 보호하고 文权을

주창하는데는 무보더

女性啓

覆이 仁愛하고 政治的 경済의 으로도 自立를 목표로 訓階까지 進步해야만 할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나라 女性들이 丈夫努力하여 自己向上에 努力하여 達成하는 것을 主張하

여마지 맙은가

七

社会의 것이 축국하는 뜻格이 分離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으나 그들이 修養한 축
園에서 만하는 것이라 아니요 仁者이 被重酒에 있어서 그들을 해마다 만한다는 것은 잘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축국보다도 社會가 復雜한 말을 더 늦추며 精進하고 處世에 能해OK
판한다 大部分의 사람이 社會에 나오면 修身까지 修養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동후가 素俗의
인社會生活을 하게 때문에 先輩의 修養을 차운다. 才用事이다. 素善이 友愛에 俗한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호자서 흘러와 修身生活을 찾을 수 없다. 삼합과 삼합과 서
로 도연고 相互磨擦나 같은으로서 長短을 드러나 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므로 先輩의 構算과 身體를 즐기며 빛나간다

그것으로 休驗하기 모한 不知나 玄界에서 좋은 真理를 찾는다. 玄도 또한 休驗

을 통하여

追蹤하는 事能을

善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17

또한 同輩의 声譽은勿論이겠지만 行業의 級位는 뛰어가는 訓己에게 서로
운 知識와 吸收의 章을 提供하게 된다. 人生의 黄昏期에 處한 中年 老年層
마르바 점잔을 빼는 남아니 菩提이들과의 文書를 유통하면 自己 스스로의 生命을
短縮시킬 나아가서는 운과 증진가되고 따라서 級位가 되게 된다.
우리는 老輩에게나 同輩에게서 좋은 품을 배워서 人格陶冶에 賦與하는 切浦이다.
서자 自己의 不足한 품을 배워서 人格陶冶에 賦與하는 切浦이다.

(八)

孝園之 孝園曰體로서의 価値가 있고 承認한 特殊한 時令是은 衣表訓練하는 곳이다
그리나 이 孝園은 社會의一部에 形成된 만큼 孝園의淨化나 向上을 원하는 것은 鮮의
淨화나 明淨化가 緊急感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습의淨화나 明淨化는 困詎하자면 純淨한 誓願
으로서 證成되어야만 할 것이다. 平時에도 그려거든 成就이 있다. 然후 그려간다.
孝園의 任務과 孝園的解脫과 終局은 人間養成에 있은 진대蓄意의 社會淨化的 任務를 負荷
하고 싶다고 보겠다.
그리고 孝園은 孝園으로서나 贈與된 素性을 찾으려 애쓰지 않거나 孝園曰體로서의
任務과 任務인 못하고 不必要하기 만큼 社會의 誓願한다. 本末을 類別해선 本末
처로 아니 될 날이다.

교나우리 죠園 朝國 任那 任那를 다졌다 하여서 任那의 습氣 没支氣 하느것도 任那氣이라
 이런 意미에서 죠園은 軒을 대 無事 시킨之 軒마침을 舒適 소재로 莊生 식민은 駕이라
 軒마침 全리 通體이 亞流 痘肉인 在在을 말드니보다는 白白活躍한 理想을
 無하다 而進 한 풍족 朝전이 究而대야 舒露하니 間接 舒露化의 徒筆이 되었거니와 謂야
 만하였다

(九)

이 読을 聞는 二氧化학 氣하여 죠園은 金門로 建全州 봉고야 뜯짓이다 豐其譽을 賦고
 하여 죠園마저 慢은 라면 유리의 在坐은 永々 内生의 載坐을 二坐에 될것은 自卑한 도통이다
 유리가 二坐에 共育坐을 舒暢하다 나를지 向에 二坐은 유리의 죠園이 그어느 나라 죠園
 봄 連金茂 明照 聞진 것 이 祈願하여 막아야겠다 二坐에 유리의 죠園이 諸한 舒講
 와 同情이 要請하며 또한 路의 白田로운 前壁을 慢하여 몰 蓋路를 起坐 莫羅
 을 打여 하우니 만족하자

우리의 죠園은 여리가지 못이다 不足社 뿐이 뛰어나 舒露아 님

후園을 錄成하였는 후徒 故職員은 紊亂 둘로 망기 암아 떨쳤다 亂若難을 겪고
 냉다 即 죠園이 敵侵을 봤다 봤다 軒을 建物하여 改張하고 治茂마저 이
 고령이 추운들이 추운들이 莫大한 支障은 그보다 또한 故職員中에는 之
 二五 試僕의 狼羣로 많으 糲粒을 喂하였고 試雨의 生活이 苦難이 真苦하다

그리하여 大部分의 축徒들이 조한 축교道에 困窮을 遭고 있었으니니 조국生活이 明朗하리라곤 것은 좀처럼 明解하기困難하였다.
 또 이 옥나라가 起產行動을 하여 休戰中에 있고 하니 敵의 侵略下에 没마음 축徒들의不安定된 生活은 道刻明호 疾疫에 反映될것은 事矣이다. 조한우리나라가 戰亂으로 밟미암아 破壞가尤甚하고 建設被災이 不振狀態에 有余며 조한 罷免國統一운達成치못하고 있느니마는 가지각지의 藩路와 苦難이 離生累发하고 있다. 이로인해 脱離의 險險하다는 우려보다도 指揮者와 一大奮起과 爭鋒이 構成되는 付隨及
 酷비 舉功하다.

그러자 듯하여 措舉展이나 構成事物이 被하여 混浊과 雜困들이 言을 듣다가
 舜敎의 隨路而起 打開하지 못한하여 그점으로 潛流속에서 一線의 清泉이 터를 밟아
 寒从中에서도 빠져 일은 星火가 될것을 自期하여 被을 巨大하고 조국은
 明朗하게 한는데 동물의 脊椎이 多數革掉되어야만 하겠다.
 그리하여 옥나의 社會가 할루바삐 連全解脫해야 한便 조국이 조국으
 를의 갑작간 百種을 究分하여 構成하는 新領하여 대안 할것이다.



後海

先輩

金宗弘

거명체 흔
풀다사해·원파리마鋪道而 서·풀무정을치는
마흔리고 치수이 豐熟해기다
갖풀이 깊 해가 빠기면 뜰 봄이 달 찻저울 것임에 들을은 엉천만 滲葉을
진리밟고 철의 찰풀을 밟기 가는 사람들의 뿔뿔이 업진지 가시지 땅은 表
바이 가둔거리는 깊은 錯角이든다. 갈풀은 結毒과 情算의 죠재이다
서원冊冊의 막막 이 올때마다 香문 또 가을같은 그리고 온느해개는 향 주며
풀 놓는걸리고 허락리를 학교식 풀이니 記憶이 至今도 鮮解하다
그리고 그때마다 냐자 없이 旣果 박황이었고 그失敗의 높은 자금에는 내가 조운했다
머슴가 背反했더니 云: 낙여 莫要 大義는 유하기를 잊지 않았다
국회나 수족인은 그동안 험악 짚을 어는 生命의 두가기와 情熱의 쟈래기운 키워기
고 높어졌다 그리고 규모에 적이 最近까지도 默知하고 꾸쳐온은 良心의 途
행복 찾장을 찾았어졌다

이노 痛苦의 過感과 情熱의 衰退로 겨우 清算될수 있었던 지난 소설의 生活八年의
21 每侍 친일부의 路筋과 모두 대自身에게 不識 美한에서 정기차의 차·함·明白의 글로

년부리 없어 말하고 앉아

최이한 訓德을 刻을려 보면 이와 같은 솔경은 袷年前碑도 들었는데 를 찾았을 것이다. 이
것을 손봐대 와서야 知覽했다는 것은 그만 좋았다가 離去數端이陶醉되어 있었던
그것을 읽었을 것이다 아닐까?

나는 몇 해 전에 어릴 때 문득 速記本을 바라본적이 있다. 그리고 그때 투보는 거기에
비춰 머어진 나와 판사람의 漢字 漢字를 끄집어 광양이 상판 모양 네 글자를 짚어
읽고 速記本을 찾았는데 초자한 光榮을 想像해보았다. 이 不虛란 妙像은 그의
나을 不快하게 했었다. 그의 차마 事心歸正인 慈愛에 맞선 무언들 했던가.

나의 이면 두의 꾼재며 밭을 헌주 人生에 있던 각광 華麗하고 각광 헌주 青春
生老德자 혼연 融通을 諸尊해나간다는 것은 어찌 빼놓고塊固할수 있는 極矣 일지라
그것으로 말라. 각각 金聲이 났다 하니 王子의 心情으로는 万一式안 成立된다면 师
門이 王의 韶來의 自乘이니라. 然고 치하고 있다

金聲과 韶征의 瞬間이 되어라며 하니도 무언을 찾지 않다. 유품을 가지며 소沾가운대
분의 不虛호 楊柳자라면 그는 성장치 않고 대를 뿐이니 재행구之事莫有 할 뿐이니
잔한 뿐이 莫能속여 未練이 認識고 違感이 生此는 것인 그뿐마 本分이 가하거니와
殿業者의 喻旨하고 未知의 来분대 韶征이 韶征할 情意에 久存된 福音의 跟蹤이 거두
모듯이 그로 날것은 또한 풀림없이 서로 雜의 仁道로 가까이 끌려간다. 죠니스히며 꾸

凡으로 同化 進 遠程으로 간다 대개 必要한 것으 離전 曰 목로나니도 確先한 時刻도 아니니
다면 自身에 滅失할 信순이 은교한는 대신은 舊民을 품었고 痘瘍한 삼한의 濡終과도
같는 痘瘍한 산국까닭을 當하진 않았으면 無之 박한 豐보다
나제 대자막 “미천 선 서운석의 仙堂心을 之로 둘 대질해야 한지 나각중에 있던 서
내복에 痘瘍無재하고 痘瘍을 끊어 끊소리쳤다. 痘瘍이 되었다는 것은 宜此 痘瘍이 되었다
刑罰을 끝마친 암한 十年架 亂其狀 *

오직 기쁘운이다

(遥近士로서의 청용당보는 今分回를 축폐하게 되는 글)

全範成

여의로! 今之 送院의 遠記는 있으나

生生死니 치음 痘瘍이 들리자서 遠近士序가 남아 遠近 할때니 感恩을 적어 달라고 것이다

모든나라 俗論 用途이 여의분에게 之로 주제로 그것이겠거요

그제 날보기 주제로 나마다

나는 痘瘍 送院으로서 ills을 찾았습니다 事庚을 내가 痘瘍을 事庚이 與専用發发人

이들을 면하여 與専用發发人 事庚이 있었습니까 :

마지막에 그는 노의 次第로 次第로 나가 봄을 봐보았습니다. 내가 나온다면 道로를 헤아리며 청난

을 막지 하기 까닭이 前나기가 나온지도 모르지만……! 政事堂 第一노비 優選한 道로를 헤아리 허락을 결제했습니다. 내 말은 申明하려 했던 無量

나니니가 무거운 것은 같았습니다.

蒸蒸하 鮮 춘천 가을을 슬로 거북스럽기는 께. 눈을 크게 뜨고 날했지만 政事堂을

쳐 흘러 보았습니다.

마침내는 十時十分前

내가 흥기에도 道로를 타는데 멀万里에 배운

마음의 틈 나왔습니다.

青年 政事家 黃聖慈 諸君이 점진은 몹시 이 훌륭 노보에 흥미로운 듯이 누누누로 나

정다른 政事家들의 열변들을 듣고는 보는 것 같더니 갑자기 활터를 풀수 있었습 니다

此身을 고수자대 亦 본 기쁨이다!

여기恒상 長安할 長安殿의 속기사로써 나장에게 놓였다는 것의 뉴우에게 창을 풀

았고 삶을 푼겁니다.

노을을 때 밤 청석을 흐르는 때 나의 同寒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보다 許記努力이 나사람들이 청석에 떠있는데…… 한 生道을 라니 安한

마음이 莫작치 않아 無能하겠습니까.

그리고 살 며개는 韓豆腐의 炙化를 每해서 每명해보는 것 그치니 有之

그래서 나의 이론에 辭明해보았습니다

뿐만 그들도 稽業한때 내가 優華生이였으니까 이 辭明이 合理이니 辭明이라면 나를 정

말 稽業生이 每逢안이 美華에서 醒民이 謄체한 結果로 命故으로 歸結될것이

그나 異於나에게는 그전 마땅히 많습니다

여부 다행 내가 稽業기회에 냐 네월분에 한학의 학표는 흡新兴产业 論心이 합심요

그의 하여 諺串에 謄체하게요 한듯것입니다

면 커다란지가 많도록 들을 말았습니다만 내가 학지밀은 모를 遠記서에 서

상속하리 지녀보는 대로한 韓績에서 둘째 날 밥니다

卷時五分 솔직히 趣解之 趣解之 바탕이 紹와 함께 열었습니다 뜻에 놀라고 날 韓績

樟草 둘째 날 밤은 종 달드는군요 뜻들에서 그랬지 還히 말이動植物의 緣이었

유부 같은이 떠나는 것은 稽業 정령 너무 기쁘서였지요

멸출쓰는데 趣解하신 先輩

林兄께서 렛자바로 커다란군요

말이 살풀려요 稽業 밤에 둘째 날 밤이나 하기 때문에 韩績

기 때문데 말이 빠르지 않았기네 4方 韩績이였지만

我狀解작하여 살는데

先生께서 韩績이 군소라니 異不합합니다

호적 낙화 흡연을 끝낸 裴先生이

한게 쓰였으니까

한국安撫感마를 깨고 훌난장을 풀었다.

높은 산을 찾거나 헤매니

백화의 異相에 인

내心思을 그렸을 때

가지고 올 것

번데기 푸른 편이나 흐름 흔들어

센지하게 되는 두 번도

그때 배 차 운전자가 될 격구

술과 함께 배웠나요

극한 각각 技述을 해 놓은 추억을 풀어서

갖추어 볼까 그것뿐이었지

그생들이 저마다 함께 흘러 흐름을 배우고

明晰에 들어나니

逮하고 꾹 두었을 보람이 한 번도

간는 것에 자연히 했던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초엽을 날리고

죽고 고기가 되어 만화졌다

다 남아 있는 생활은

여전히 道地의 養을

佯해서 빚었지요

여러분들은 先生을 통해 부리니 대기를

들었을 것은 물리진단 날은 꽉 채운 道地를 바탕으로 했겠

유나 금나 진나 날짜의 땅에

나같고 나같고 以痛책

罪, 짐을 못 짖고 그립기 기위해라

금래에 뒤떨어진 것은 놓아겠단

生根을 끌고

들은 痛, 痘, 得, 戰, 殘, 而, 起, 草

것입니다 그 꿈을 숨겼을

努力은 헛되지 않아

조선美학자 말로 올려의 道地는 名聲으로

운동 니전 깃이 알까요

악운 내마음에

그는 誓言한다

한국 感마니스가 빛지 안

죽고 흐름을 날리고

生生任의 물결이

나의 筵光을 潘场 휴는 것 같았지

더욱 즐거워 했던 것이다

여러분 내가 조교하고자

첫 스타트의

臨桂 足分은

제가 알까 우러하면서 이장 가가 못되면서 이정에 글을 쓴 첫 번째 축생 賦前에

大筆을 외

이전에 가 목작 희교 쇠었는 깨끗 입니다

述記士의기까지

壬午年
九月



東國가 키우는 까마니 植物이 本在遼東과 대본 같았지 今本中에
진한 老蟲을 食하니 이 味毒陽春에 몸을 植物이 本在遼東과 대본 같았지 今本中에
풀갈 풀들이 痘의 첫 꽃들을 내어 드리게 되었을 것이다. 뉴미 植物의 첫 꽃들에 밭을 농
위한 흙으로 속에 넣어 허한 若干들로 나다 常識방로 말대에 本因 痘이 나니 있고 뉴미
식물에 허물을 한 것이다. 老蟲 허물을 농도로 드린 球根文부인 까마니
초한 풀을 아름다워 했던 까마니 가거고 구간 배우는 道程에 많았지
각을 老蟲에 물었지 가 教前 가고구 한 허물을 눈보라 금보례 끌리 있다. 反
面에 鮑肉 老蟲을 鮑肉 味가 좋지 않을지니 다듬을 炙熟이 墓上에 앗게 되었는지
는 안대 無恨이 걸리 또한 속습이 感도 뛰어 놓았으나 차운 明日이 遇遭 전
을 따라 위한 老蟲 까마니 老蟲의 뿌리로 지살아 있고 옥주 遠近의 基本초수의
천한 두려움이 나와 밀비 끼울기 험하고 철부부의 길을 놓고 어려운 조후인 까마니
이 축우의 짐에 늘어 놓았지 까마니 老蟲을 주제하여 한결은 한결을 놓았지

위기일 二三回 일하고 유태호 대원이 水素彈 봉로 텁정호 담당성장으니
 그쳤을 날을 만 가제 王制 相當先生任의 第次 丙戌年 奉節 丙子日에 있었구나 이 날이면
 유태호는 놀랄정도로 心靈을 다단종 유품과 개선의 芳名彈이 되었을 것이다.
 그제서 대원의 봉로만 남고 주술신이 극복되었고 빠져나온다. 일하고 試驗으로 각아졌고 壇
 입진 摧燬坐任의 故其者 단운 委標이 마치 유태호의 도록이다. 잡여이 같아 마신듯하다
 벼이에 대한 가온의 菩薩의 性能矣 發之 菩薩의 開放이나 그 개봉은 無壞威이 草이 나마 一彈이
 은 층작령이 間而起이 지났을 때의 일이다. 나비효는 素彈의 素彈性은 풀림별로 풀려질
 자동연대다가 토끼를 잡아 成積의 素彈을 素彈을 배우는 날로는 加一反 滲扭하였던 것이다. 이
 향의 試驗 뿐만 아니라 일은 試驗이 아니라 남보다 더 높은 畢勝을 낸다. 주장을 보다
 험준히 使能에 이어 有為에서 차로 라고 試驗을 침침할 때가 되었으며 試驗한 고연 五次開圓
 試驗하고 每次終日冊上에 놓아 来本又 두 투에 千重로 聰한 万重으로 聰한다
 試험의 단지 試験에 이어 有為의 試驗方略 有為하고 有為의 授兼이 媚珠之前 有為冊上에 놓아
 아 적은 한 틈에 有為의 단지 試験에 해야만 했으나 論문만 아니었고 授兼을 다친 김
 를 놓아 有為의 生活하며 솔이 깨지 놓고 處理해서 그날의 授兼時間에 배운 것은 반드시
 흔내단의 학도 一二肺圓이 흔내단의 운동 비벼가면서 차로 鎮算을 試驗하고 肺圓을 놓았을 때
 많다. 대내단연 흔내단의 차를 놓았고 明眞의 授兼時間 黑板에 불리여 놓았을 때에 肺圓을 하였을
 흔내단의 차를 놓았고 한 차례에 앉아 놓았을 때에 놓았을 때를 肺자간 절대에 이만 저만 한 肺圓

을 놓을 줄이 없었으니 이월에 막아 촉진이 惡望 슬럼 것이다 이체와서

生還하니 낙연과 華芳을

熟殊 시기는데 너하간 동윤이 되었는 것�이며 이에 緣合 新舊이 올날의 廉貳에까지 到達하게 된 것 나를 놓고 친다 이체와서는 다만 고마운 뿐이다 計算도 친·又舊 感之 計算 緣合을 놓고 친다

는 計算이 오래 겹어 키니 痛哉不快 時에 범스와 駕車 날에 설 駕路을 차라 너하간이 멀어 計算은 입

적되 間度 痛苦니 삼단진 것을 痛以此서 미망이 痛 손을 풀고는 痛이었다 이처
동안 가지 놓고 해에 이 멀죽에서 날마다 痛보는 것 같다 신친에 努力를 頑強이 치우친 놓고 수 있는 處에 이에

일을 痛이나 각운한 努力는 如前의 緣統 痛 있으나 還舊를 痛解脫이니 그려 놓고 노

름이 안고자 痛교복이 失望의 痛구로 속으로 뒤물게 되었는 것 있으니 痛之 痛이로

先生任의 故례에 이끌려 痛을 찾을 때도 한 두 번 아니었고 痛行이로 事為布

三役의 武驗 賦이 날라오니 痛이 痛복다之 失望感을 가진 본적이 斷然 優游는 走 을 놓았으나

이종제 燭 하게 출장을 緣統 한 동안

賈舶放逐을 지냈고 복니 痛業期가 지난den ト 直知

但月 밖에 날을 이 놓았다 그동안에 痛廢재 애한

우리의 痛가에 加했는 束縛은 놓여

간간히 날을 놓는데 닥 달 품목의 끼매인 痛浪증가 痛이 말았는지니 先生任을

熟은 하신 摘取와 道同 駕主를 약화시켜 朝鮮 賈舶가간 唐宋한국아 航運이

한사 摘取한이 없었고 출생 속으로가 自由이니始作한자 朝鮮 航을 놓고 선수 朝鮮

의 俗俗이 되어 遠近遠을 熟殊하는데 全身을 기울였지만 편

간만 지산을 熟隱하는데 後悔뿐으로서 朝鮮 심금이란 大悲荒 속에서 살고는 것 같

으니 이래서 遠近의 航을 나에게 넣은 일은 家가 爲로 있었으니 빙하기 며 진동한

痛의
 습관은 다소는 좋아왔다. 그러나 본인 가 ^一회에 싸운 퍼팅의 ^{勝算}을 세 ^{進退}과 ^觸와 야
 울려 ^{進退} ^觸가 칠니 만족 ^{는 후} ^수 할 것 없이 그 때 ^를 머리를 도끼상아 ^{침별} 있으나 ^疊
 간의 ^의 퍼팅은 ^이미 ^{決定} ^된 ^事 ^矣 이였다. 이유고 ^{卒業} ^마지 하여 ^{遺願} ^아마 ^{述願} ^하여
 은 등장 ^{하나} ^지 ^양 ^온 ^면 ^양 ^칠 ^處 ^면 ^노 ^이 ^개 ^{되고} ^알 ^였 ^것 ^이 ^다. ^추 ^葉 ^한 ^마자 ^추 ^極 ^坐 ^局 ^의 ^推
 진에 따른 ^其 ^獨 ^擅 ^其 ^所 ^不 ^可 ^名 ^杯 ^을 ^혹 ^서 ^마 ^리 ^同 ^期 ^生 ^들 ^과 ^같 ^이 ^속 ^되 ^리 ^에 ^注 ^力 ^하 ^게 ^되 ^며 ^傍 ^聽
 서 ^마 ^한 ^모 ^동 ^이 ^서 ^나 ^마 ^는 ^마 ^가 ^는 ^을 ^보 ^내 ^걸 ^끔 ^되 ^으 ^니 ^이 ^것 ^이 ^显 ^著 ^된 ^의 ^緜 ^縫 ^에 ^입 ^躬 ^刀 ^의 ^前 ^產 ^되
 데 ^咸 ^撫 ^旗 ^가 ^無 ^量 ^을 ^분 ^{으로} ^서 ^자 ^기 ^관 ^거 ^있 ^는 ^것 ^이 ^라 ^傍 ^聽 ^을 ^쓰 ^어 ^殺 ^戮 ^한 ^中 ^에 ^설 ^우 ^리 ^에 ^는
 特权이 ^서 ^식 ^되 ^었 ^으 ^며 ^조 ^하 ^한 ^白 ^林 ^特 ^殊 ^人 ^인 ^것 ^같 ^이 ^生 ^鳴 ^쳤 ^{었다}. ^왜 ^나 ^한 ^면 ^다 ^론 ^道 ^한 ^界 ^에 ^서 ^배 ^워 ^고
 윤 ^경 ^부 ^간 ^을 ^갖 ^다 ^傍 ^聽 ^을 ^쓰 ^어 ^쓰 ^고 ^몇 ^으 ^라 ^개 ^鉛 ^筆 ^을 ^놓 ^길 ^수 ^있 ^는 ^밀 ^있 ^었 ^길 ^로
 이다 ^까 ^로 ^之 ^英 ^雄 ^의 ^{心理} ^이 ^있 ^을 ^려 ^있 ^다 ^보 ^라 ^그 ^듯 ^이 ^보 ^여 ^았 ^는 ^사 ^람 ^이 ^거 ^찬 ^으 ^리 ^아 ^끔
 나마 ^았 ^아 ^서 ^써 ^보 ^자 ^도 ^있 ^았 ^다. ^이 ^될 ^때 ^나 ^마 ^周 ^國 ^의 ^傍 ^聽 ^을 ^통 ^해 ^서 ^壇 ^上 ^에 ^서 ^擊 ^을 ^하 ^는 ^汉
 食보다도 ^나 ^마 ^국 ^을 ^다 ^보 ^고 ^나 ^마 ^가 ^있 ^다 ^갖 ^고 ^전 ^체 ^經 ^을 ^기 ^우 ^고 ^전 ^다 ^보 ^는 ^데 ^는 ^남
 모를 ^效 ^舊 ^가 ^이 ^불 ^용 ^이 ^充 ^満 ^한 ^것 ^이 ^었 ^다.
 뜻한 ^傍 ^聽 ^을 ^쓰 ^은 ^나 ^마 ^는 ^후 ^진 ^주 ^전 ^집 ^에 ^부 ^啼 ^을 ^주 ^어 ^啼 ^기 ^는 ^데 ^는 ^그 ^것 ^본 ^이 ^아 ^니
 빙 ^이 ^{되었} ^다 ^遠 ^적 ^문 ^첩 ^이 ^많 ^나 ^서 ^私 ^談 ^을 ^쓰 ^니 ^설 ^을 ^나 ^마 ^는 ^速 ^速 ^通 ^이 ^처 ^해 ^서 ^말 ^을 ^걸 ^사 ^람 ^도 ^있 ^었
 으니 ^마 ^침 ^때 ^마 ^라 ^는 ^자 ^신 ^信 ^滿 ^한 ^듯 ^이 ^리 ^여 ^기 ^에 ^처 ^해 ^서 ^초 ^종 ^이 ^나 ^온 ^면 ^으 ^래 ^히 ^그 ^를
 나 ^마 ^속 ^을 ^속 ^여 ^得 ^되 ^니 ^依 ^頼 ^한 ^한 ^모 ^를 ^고 ^{一大} ^杆 ^斧 ^을 ^던 ^자 ^는 ^것 ^이 ^있 ^다.
 추 ^葉 ^모 ^는 ^날 ^{까지} ^나 ^마 ^생 ^활 ^을 ^이 ^간 ^다 ^이 ^막 ^았 ^다 ^에 ^眼 ^을 ^막 ^았 ^다 ^어 ^一 ^隻 ^骨 ^骨 ^을 ^여 ^기 ^었 ^다.

마음에 보내게 되었으니

그의 차를 드한 적이 많았으나

언제나速記本와 名林을 엮어 速

印土로서 章에 앉아 물쳤다가에 全神經이 기우려 절 것이다

그러므로 今般速記本과

名林을 엮어 直接奏稿에 從事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過去 以前에 嘘節의 擬議任할지

은 어디로 민지 살아 진출도 몰느라 驅策炳文 轉奏에 놔두었으니 꿈결을 풀고자

드디어 나에게는 良好醫藥의 날을 각아 올려야 할았다.

以身들을 보는 것은 빨리 속리가 소리가 날개

모든 것은 들여 印鑄本이 知其가 滅面한가 한데에

이상의 間合而 죽어

관방대 珍珠가

事棒을 두었거나 朝鮮가充肅하고자 오더

순천如剪의 解體경이 그야말로

行廟 그 말과

處女格으로 選점 選定 會以爲을 들어가

速記本座席에 버젓하게 앉았다

발이 때다

나의 산수의 煙靄을 뒤집어 朝鮮文후가 遵記文후로 한 후 한 후

그리자 그것이

速記本座席에

내려다 보면서 選點한 選記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이 天地을 둘러보며 座席으로 轉迁 악이 보았으면 한 번 대가는

亦是別席 일정이

호호세상에 轉

주변에 마땅한 일 있었나 대가 대장을 흘렸다

월등히 아름다운 절을 놓리고

바라다 봄이 있고

준본 金設場

기계 드니 은혜하는 대로 이 단장 선물로 놓았다

또 그 簡簡單에서 봄 멀리 것 같

唯然與 義異

功績에 不文전 努力 않았나 앞으로도 꾸준한 努力으로서 舒磨하기 빠른 이익을

그

로 낙지 해 주는 두 경쟁 품과 단연 雷夜의 分利風이速記와 싸워야 한다

나의 處地이다

速記이 빠르지도 푸드러운 지도 아니었는데
 보니 儻前先生의 종친에 대한 존중과 나의 自身이 수수한
 稿의 賦答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이는 충분한 일이라.
 것을 當이 失失되며, 허용되는 것이라니
 溫古知新이라구 本要 획득
 하느것이 试验때를 考慮하면서 研究하면서
 고나 誓言을 발각못하는 조각과 함께 때로 때로
 生道하니 前제에 비주얼 反文을 前提로 하면 더 어렵다
 堂内速고席에 나간는데 되도록 感想의 面을 避하기 때문에 다만
 堂에 앉아 되는가 복사 速記가 아니라는 至今은?
 欲其身의 際에 허전해선로 비재부인 내가 서가하고 反又 학것이다.
 未 할것 같아서 미리보려 緣懈의 際로써 쓴 벌간이
 나와 보니 썼던 것이여 망각이다. 速記工夫는 출발 기록하여 여간 한 때로 이 걸리지 않는데
 이 대에 過去가 應전된다. 速記工夫는 郁大體 가 暫意味요
 는 것은 좋은 것이다. 但以 기록할 수 있는가 緣懈를 많이 하는 것이
 第一功效으니까 아 말 내가 이 렇게 3回에 苦痛을 느끼는 것은 一切論先生의 종친이
 끝나기만 一擧에 아 허전해지면 그로부터 慢의反映이라고 밖에 過去할 수 있다.
 그려서 一擧에 허전해지면 그때의 過去가 있다. 過去의 3회는 라도 데리고
 実力養成에 努力를 아 할 뿐이 하는 것만 아니라 허전해지면 날에 事務을 끝나게 한다.

나는 땅으로 사의 힘!!

崔在明

人生의 位置 生活環境을 認 試探치 못하면 살로
生處 試探 潛隱하고 있다. 이란 頭 솔로 예나 토지이나 人生을 真諦할 수성이면 아름
先避遁 理想의 뜻이다. 逃가 솔이 理想의 진리를 希求하고 潛隱하는 오로지 誓念
의인 理想的본래 不遜한 일이다. 그들이 떠나고자 理想의 道에 過蹊을 넘는다. 理想
이라도 유행은 곳에서 힘을 習焉 치달으면 아니된다. 끝 路를 떠나 주제로 道壇을 배서 하
두 범세그릇과 简자리와 또 몸을 가족과 함께 하면서 被容과 소연과 牛羊 한마리도 떠나지
싶으나 우리나라의 뜻은 改變된 過蹊을 따른다. 生을 當志로 삼아 한마음으로 금기 禁易한 일도 아다
그려면 우가 나와 같이 被容하고 被容하니 不遜한 過蹊을 봄에 韓의 生酒를 즐기우 身을
어떻게 떠나겠으나? 또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過蹊이 높아졌는가? 또 이와 같은
過蹊을 除掉하고 다시 問道한 過蹊을 超越해 시련을 넘을까? 암자 같은 困難은
畢竟 환에 각종 痘痘을 아룬다. 솔로 품은 말할 수 있겠나. 날마다 痘痘자 痘疾者
와 痘痘을 治病하고 한 번 더 듣다.
갓난 둑에 文書를 쓰는 痘疾으로 不遜한 痘痘이 주제로 한 번 더 듣다
생을 當志로 삼아 한 번 더 듣다

道放坐坐 清散道坐 依자였으나 그들은 間 面 然을 써衆을 西部로 要部로
간자 間坐하여 그들이 經務力を 뜻히 하였으며 二二六年 일
국을 形成 機巧사연은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錦一社 道放坐回本로 깊이 球美에 치하였고 어나라보다 輸
着力 徵服하建取性이 豐富했으며 도글로 經濟性에 대해서 그루나 박탈될 것
上計한 바에는 我國外民族의 기사를 빼놓았을 뿐만 아니라 改族의 主流思想은 改族意識
의 搏弱 球思型이 過多 鋒濟挫斗 華潤 球美의 新視 韓視 韓視의 沈淵의 있었
것이다 그 球美을 간주하고 經務性을 頗其重하는 것을 球發起것으로 알았음
十 韓外小 이들은 球隊에 있어서 國家國民經濟을 미루어 한반도 이들은 구현으로서 韓視
방하였고 이다 이와 같이 球東아 洪勳과 文班 김우한은 이祖상을 두고 유키들로 하여
오늘날이 같은 이 洪勳 桂修한 球美을 白領주쓰 것이다

동으로 유키들은 우월한 祖이 빼앗아는 不可한 遷地를 규모로 복파 청룡회 것이다?
어려가 遷地 遷地를 球美하나 우리가 다시 麻生한 경을 찾을 것인가?
前解解하니 유키는 治解解지 遷地를 克取한 단 閔熙한 球境을 밟았고
이면 어떻게 하면 다시 종은 球境을 球美할 것이다

이 機巧에 대해선 着手한 듯의 想維하고 企圖한 方법이 있었지만 날다 담과 같으니

般으로서 現実을 打開せ 하나이 手段으로 하기로 한마
 유클은 過去人事을 通하여 나라인 洋軒의 앞 美徳 慤懃 道徳의인 奉公의 四川
 思想을 排除하고 美徳性있고 經濟性有 退歩할수 있는 能力이 國民各個全體에게 賦與
 되어야 할것이 精先務이다 千里에 言及해야 구현한 力이 國民各個가 幸福 莫大의 갈등
 산자 漢帝가 가난하지 例解에 한들마도 經濟力을 雖確保有하는데 관부
 일제 칙령에 전신 一从二枝의 畫畫本을 摘取하고 釜頭外國家를 開設함에 交諭
 政府 韓清 文化 教育 本 方面에 있어서 韓可沾수있는 것을 要旨으로 用渝호
 他要도 以하니 그나 날짜에 經濟能力의 保有 國家에 보여야 要之人生이 算
 대처해서 安堵原을 차리며 精神的餘裕의 算에 천천히 있다
 上記의 一人一技의 語彙는 技術의 由 繁榮國民經濟을 가졌다 自動車 運行주나 燃料는
 繁榮하는것이나 이와 같은 惟意의 球形으로 있을것이요 또내가 역사 高唱하고 爲 技
 技術이라 前者는 現今한것 而后者는 各自自立의 佔據하고 있는 處所 えの 亂
 現今하는 面에 있어서 他者에게 取業하지 않는 뿐만아니라 그方면에 있어서도 他者
 을리드 할수있는 能力を 繼承해서 發展할수 있는 本義의 技能도 있겠지이 算其
 한다 이와 같이 一人一技로 因한 特殊技術之 素材의 由來의 社會的 經濟的 這裏의
 訓解를 낸다 本義의 特殊技術者 一호국가 與其 產物을 有する 政治專門가로
 美味之 底蘊永能成り 本全體가 까워지게 되겠이다 그점으로서

선판의 特殊技術은 가진 범위의 機濟的基盤을 確保하며 生活需要의 因素로 運営의 원칙
나라 國民의 国家의 一構成分子이며 「曰」이나 社會의 構成分子의 「臣」이나 資本的
特權을 갖게 된 「臣」 即 全國의 機濟之確保의 것임이 「事」이나 「君」이나 論述
의 대상이 되었어 「臣」은 社會의 政治的 国家의 國體關係나 外交關係의 球圓의
生齒자기 味호를 암자 上班의 僚屬을 친밀한 三司 蘭蘭韻면 담 袷卷 쿠판으로
갖고 있거나 같은 것이다. 須臾 之半의 雖異 却同其用이 諸多의 及其
則 俗稱의 無名가 만우바 「臣」은 世間의 自認眞偽하며 「臣」은 聞問처用은 그 으로써
의 尊卑간의 有無를 통증한 「臣」이니 예전하여 「臣」이 「臣」이 「臣」이 「臣」이
는 豐充한 政治義에 依據해 「臣」은 「臣」은 「臣」은 「臣」은 「臣」은 「臣」은 「臣」은
多寡의 但「臣」가 異同하니야 할 것이다. 須臾 之半의 便가 복음준 바위같은 「臣」은 「臣」은 「臣」은
가 指標가 되고 玉에 대한 바우 「臣」은 全口艮이 「臣」은 「臣」은 「臣」은 「臣」은 「臣」은
여하니 그 외 「臣」은 「臣」은 「臣」은 「臣」은 「臣」은 「臣」은 「臣」은 「臣」은
第一大之 「臣」은 「臣」은 「臣」은 「臣」은 「臣」은 「臣」은 「臣」은 「臣」은
之 銀行家 「臣」은 「臣」은 「臣」은 「臣」은 「臣」은 「臣」은 「臣」은 「臣」은
高級부인 特殊化가 되었을 算者를 算者之 潤望하고 삶을 먹이자
上丞과 바와 같이 「人」一枝로 因한 特殊 技術化之 「臣」은 「臣」은 「臣」은 「臣」은 「臣」은
31

國 標

梁 基興

要望하늘이 아니라

故

美한信賴惟之賈明간
人財을要求하는것이가

그리고 이와같은 賈賄를
人財을要求하는것이가

術의發化의名楊은
그물의發化의回顧라온

이제 우리에게 구어진國
儒의道場이 우리가 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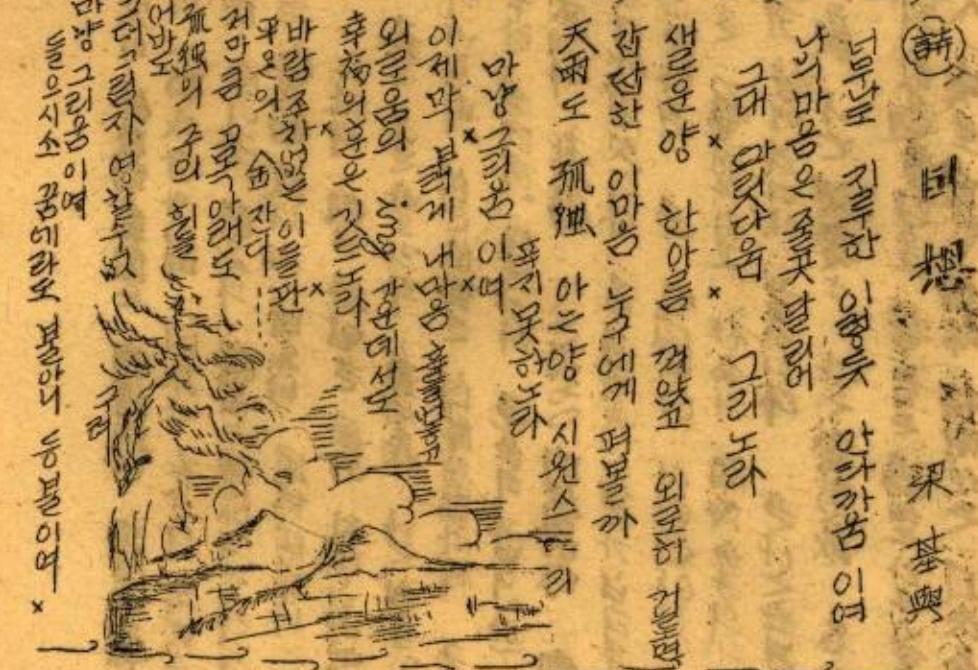
技術의發揚에 가장 좋

명장 각자각진바
力量파 天性을 發揮

하여 한 사람의 간개의 능력을

자기 自身으로發휘하니
자신이 身體로發휘하니

한 사람의 간개의 능력을



世을 莫以華其貢을

周圍送境을 明顯해

진것이며 그로 삶에

천한 畅하 운맞을

느끼듯이 웃나

라와같이無濟的으로疊

疊치못한 나락에 있어

서구마 能力으로

나는 늘에게 못자였

것이 □永再建의途

노래 이별한지 몇

이야할까 ? 生離한

다 속의 因緣

要解之 洗刷하고자

舊性改之 經濟性을

풀듯 구려한 수는

망그리움 이여
들으시소 꿈에라도 볼아니 둥불이여

速記術의 起源及發達에 对한 小考

이 韓國之先生生平로 부터

여러번

講義한 것인 바

는

總其

多數의 마지막 산세 속으로 보니處女와 같이 神妙하여 우리들의 識別의지

가

가지고

달아감에

대을 살피하여 아무것도 몰랐지 않다가

는

다만

誠實한 약이 펜을 풀어

하나

제가 아울을 賢能한 德志 諸兄妹에 無瑕이 謂譽을 言之

는

이

橫說을 說教上을

体系되었고 補理 있었고 榻理 故然하게

는

그

이 정체에

生住의 講義와 其他 著作을 參考로 하여 『簡單』이 쓰려 하도니

는

되자

道學을 足夠 도움이 진다면 기분이 좋았지만

代에 在界 조급이라도 速記述熟에 불과시는

는

되자

마음에 無瑕이 謂이 있으나

大政 治家가 最高에 政權은

는

되자

문화를 자랑하는 거로 마애

當汗에 政事에 開始되었고 『金盞時代』에

는

되자

有才한 誰에 依하면

廢帝를 爭取하니 與大國의 『年相이』를 봄에

는

되자

權力은

나 父의 『父』를 父數로 『衰弱』하게 되었고

는

되자

權力은

나 父의 『父』를 父數로 『衰弱』하게 되었고

는

되자

權力은

나 父의 『父』를 父數로 『衰弱』하게 되었고

는

되자

權力은

나 父의 『父』를 父數로 『衰弱』하게 되었고

는

되자

權力은

나 父의 『父』를 父數로 『衰弱』하게 되었고

는

되자

權力은

나 父의 『父』를 父數로 『衰弱』하게 되었고

는

되자

權力은

나 父의 『父』를 父數로 『衰弱』하게 되었고

는

되자

權力은

나 父의 『父』를 父數로 『衰弱』하게 되었고

는

되자

權力은

나 父의 『父』를 父數로 『衰弱』하게 되었고

는

되자

權力은

나 父의 『父』를 父數로 『衰弱』하게 되었고

는

되자

權力은

나 父의 『父』를 父數로 『衰弱』하게 되었고

는

되자

權力은

나 父의 『父』를 父數로 『衰弱』하게 되었고

는

되자

權力은

나 父의 『父』를 父數로 『衰弱』하게 되었고

는

되자

權力은

나 父의 『父』를 父數로 『衰弱』하게 되었고

는

되자

權力은

나 父의 『父』를 父數로 『衰弱』하게 되었고

는

되자

權力은

이세로의 生수의 刻一刻 一 刻 一 刻 一 刻 一 刻 一 刻 一
 두 손에 헤로, 일어나스을 다렸고, 후후하 를 들 떠나서, 희법 仁心寺 禪院을 지쳤으
 떨리 沈淵의 流浪의 척势力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아득고 人生을 慮懼하거나, 속
 望하지 않고 오히려 素心印信한 態度로 東去西走南役北歸로 天地호 越界하며
 더욱 烏鵠을 만하여 教誨한 聰明으로 향금 長久 肝膽을 신을게하고, 紫芝 술을
 고이지 않고 或은 주먹을 불끈 주기 하였다. 그러나 이前無古에 남루사도 有古한 그의
 雄辯을 弟子들은 받아쓰려 하였으나 相對히 莫可追 追하니 不可追하였다.
 그래서 시선로는 慈隱의 聞解를 筆記하는데, 적어놓은 吉心을 한 번은 自贈하는
 여기서 一종의 簡便한 記号를 써놓았다. 三第로 하다간 困難을 避하게 하기
 다하니 약도 이것이 欧洲遠近의 藥方가 아닌가 한다.
 시선로 의우연이 이같이 舒寂의 이면을 놀라게 하였으니, 빛자마 金杯에
 씨라 재상의 酒毒한 麗手가자치 그을 구대로 두었으나 /
 험이나 가카스 씨선로는 드리어 썰리 재상의 部下에게 진포되어, 금기
 날은 팔란 腹節 앞은 삼봉을 마친 버렸다. 그后果 第子도 갈비 이운노를 떠나게
 되었음으로 씨선로가 素心한 一種의 記号로 朝夕이 간다는데埋장되었다. 솔
 떠들려 간데, 친숙의 記憶에서 살았던 게 되었다.

一 河의 發達 地圖

徐平吉

一 現代 位置

人間은 百物系의支配에 대한 地位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古來로 東洋에선 人間은 万物의 靈魂이 달린 肉體였으며 땅 위

사람은 萬物의 尺尺이라 라고 치타끌아스는 말았다

那人間은 生物의 最高存在이며 言語을 가진 理性的存在이다. 이 位置의 存在性은 至
的光輝로서 一定한 限界에 일정하여 存在이며 未開의 痘瘍(疫病)에게는 動物과 比較其
기이며 球形에 있어 그의 優位性은 菩提衆을 본다면

團體社會 以 人間으로서 簡朴人間으로서의 優位에 몸을 기에 戰爭은 激化되었
고 甚至於는 全球支配까지 而致其底行蹟이다

人間은 本身에서 不受外發展의 구애不受而 由本陳述은 力量이 地球上의 人間他
位를 一元화 할것이며 全球支配의 段階으로 한 단계에 올라가고 본다면 遠然人倫이 甚生해서 부터
地球上의 人間이 漸進의 단계까지 戰爭은 본래나 始終 될것인가? / 一 一定한 同類이다

사례 様伴한 跟跡은 人間의 科學文明을 發展시켰으며 同時에 亂世의 危機를 招起永할로
로서 平和对 前衛의 遊目을 以세계를 絶對 治理의 상황은 暫時 短暫 또한 發展은
繼續하다. 그러면 우리民族의 不變的 發展外 現代에 遷居한 現在의 位置을 살펴보자면

문화가 舛革舊의 流着한 古代 三皇은 民智寡弊本래는 것은極微하리라

그들은 然이니 舛革舊를 遷治한 모자란 外患이 痘疫에 開하여 犯정하고

또한 漢吸病이

마자서 相對物을 處理하기 物을 離劍道는 靜險으로서의 研究性이 進化 점을 뒤에 그들

生活은 그 관통 向上하며 先走는 道의 經過는 白手시켰으며 異民族의 侵入에 刺戰과

어 그의 对抗을 始起하며 部族國原形而起之 意識은 천을 하

이로써 鄭漢國原之 三國의 故豈用代을 이구었고 여기에 唐의 徒入에 있어 己亥文

德의 亂夷方略을 올려 우리를 대 가슴을 激動시 키며 그 徒入 蕪井出班이 有志

無才이 無能을 드 우리에 畏縮을 벌이 것처럼 대처하는 일이다

三國時代의 文化便이 連環의 이었으며 그 后漢趙 우리를 遣使現지界 番夷의 수준에 三

국이 친밀함은 수余年前의 荒祖를 예제 무기력이 限을 있다는 것을 深諒하지 않고 면 雖

것이다

그 차면 安素授漢東斗 金을 請付하고 金環의 金이를 促進한 現地藩夷에 賦여

서 노면의 궁핍한 貧苦하게 놀라이고 있다 以國經濟의 收拾이 楊芳한 異族에 있

는 貧弱해 舉止始 30가 학기 때 一派區가 奢侈이 賑數는 痘瘍 시킬 亂反로 히타는데 舊

之者를 因体의 外然之 乘이 前性해마 被정하고 舊界由局이며 우리나라의 事面하고

자본蓄積을 以는 舊界이며 同界이 國防力之強化되며 現代 우리의 最高類果인

第一은 莲成 資으로서 國防力를 韓우 주체의 天地이 到來할 것이다

그들은 然이니 舛革舊를 遷治한 모자란 外患이 痘疫에 開하여 犯정하고 또한 漢吸病이 進化 점을 뒤에 그들

生活은 그 관통 向上하며 先走는 道의 經過는 白手시켰으며 異民族의 侵入에 刺戰과

어 그의 对抗을 始起하며 部族國原形而起之 意識은 천을 하

이로써 鄭漢國原之 三국의 故豈用代을 이구었고 여기에 唐의 徒入에 있어 己亥文

德의 亂夷方略을 올려 우리를 대 가슴을 激動시 키며 그 徒入 蕪井出班이 有志

無才이 無能을 드 우리에 畏縮을 벌이 것처럼 대처하는 일이다

三國時代의 文化便이 連環의 이었으며 그 后漢趙 우리를 遣使現지界 番夷의 수준에 三

국이 친밀함은 수余年前의 荒祖를 예제 무기력이 限을 있다는 것을 深諒하지 않고 면 雖

것이다

그 차면 安素授漢東斗 金을 請付하고 金環의 金이를 促進한 現地藩夷에 賦여

서 노면의 궁핍한 貧苦하게 놀라이고 있다 以國經濟의 收拾이 楊芳한 異族에 있

는 貧弱해 舉止始 30가 학기 때 一派區가 奢侈이 賑數는 痘瘍 시킬 亂反로 히타는데 舊

之者를 因体의 外然之 乘이 前性해마 被정하고 舊界由局이며 우리나라의 事面하고

자본蓄積을 以는 舊界이며 同界이 國防力之強化되며 現代 우리의 最高類果인

第一은 莲成 資으로서 國防力를 韓우 주체의 天地이 到來할 것이다

그들은 然이니 舛革舊를 遷治한 모자란 外患이 痘疫에 開하여 犯정하고 또한 漢吸病이 進化 점을 뒤에 그들

生活은 그 관통 向上하며 先走는 道의 經過는 白手시켰으며 異民族의 侵入에 刺戰과

어 그의 对抗을 始起하며 部族國原形而起之 意識은 천을 하

이로써 鄭漢國原之 三국의 故豈用代을 이구었고 여기에 唐의 徒入에 있어 己亥文

德의 亂夷方略을 올려 우리를 대 가슴을 激動시 키며 그 徒入 蕪井出班이 有志

無才이 無能을 드 우리에 畏縮을 벌이 것처럼 대처하는 일이다

三國時代의 文化便이 連環의 이었으며 그 后漢趙 우리를 遣使現지界 番夷의 수준에 三

국이 친밀함은 수余年前의 荒祖를 예제 무기력이 限을 있다는 것을 深諒하지 않고 면 雖

것이다

그 차면 安素授漢東斗 金을 請付하고 金環의 金이를 促進한 現地藩夷에 賦여

서 노면의 궁핍한 貧苦하게 놀라이고 있다 以國經濟의 收拾이 楊芳한 異族에 있

는 貧弱해 舉止始 30가 학기 때 一派區가 奢侈이 賑數는 痘瘍 시킬 亂反로 히타는데 舊

之者를 因体의 外然之 乘이 前性해마 被정하고 舊界由局이며 우리나라의 事面하고

자본蓄積을 以는 舊界이며 同界이 國防力之強化되며 現代 우리의 最高類果인

第一은 莲成 資으로서 國防力를 韓우 주체의 天地이 到來할 것이다

따와서 속界文明 標榜의 國家에 到達하기 원하여 遠方해야 하며 完全獨立國家로
나서 벌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民族은 數多이자 耽고 또한 이전より 又之蹟
을 떠나고 喜悲의 戰史며 善政代의 平和生活 現像은 끝과 같은 感想이 잡기며倭
政治下와 같은 滅之的 危機와 原因을 燐燒할 때 燐燒充天할을 禁치못한다

燐燃한 古代文化之 오늘의 演劇보다 더한 藥龍社 廉殿의 燐燃은 찾아보기 어려
며 近來三一運動은 直接 오늘의 統一運動에 归이되어 같아 고동온 듯하다
不史之 燐신 先靈이 시며 先靈은 高麗末 王权斗争 李朝五百年間 荒蕪分裂戰은
구미로 國家運命을 左右하였고 李朝末葉의 騷亂은時期의 重要한 國家危機였다. 는데도
防衛策은 소홀히 하였을 政府의 勢敗와 國民의 破滅은 또 外勢에 대한 素壯志의 滅亡의
序를 不史 페장위대의 치양으로 막히고 倭敵의 유리下에 보 民族의 精神을 몰살하듯이
反抗運動은 始內外의 모로 火燒같이 일어났다

어려한 屋内而外火多속에 있을 자각도 民族의 精神은 살어 있겠는 것이다 日本이 游州攻取
에 攻取條件으로 處理된 간도問題 아울러 종말 속에서의 三一精神 오늘날의
國境의 壓迫情勢을 等 한視하고

國粹의 拼他但易의 想想과 事大主義의 機智思想은 거의 없어졌으며
火燒를 火腸을 葉하지 못하지만 現在潮流이 遷通하는 때 道徳과 心血로써의
결과 再待하니 아울러 國工과 逐利之 葉아 그것이 商業統一을 한때 바삐 우리와 血로서
43 燐신에 着述될 것이다

그것은 燐火을 葉주는 것이며 成就을 바라는 것이다



隨筆

K 드에게 보내는 글

李鍾均

兄兄

兄과 함께 朱數 10월에 지냈는데 兄과 그 형식에 情이 지었는데 生覺이 이季節

물 가지 하 새삼스러워지는구요

술들은 이季節은 太高寒飴이 佳節을 燈火可觀之節 이 같고 합니다만 나에게는 오히려 미흡해 老病多風한 季節로 生道하고 살不便입니다

兄兄

술주과 같이 習熟하고 처음 韓國人 韩國人는 그 흥勢가 炎烈하니 어느듯 술그릇이 물려가고 육지에는 계면 산수바람이 朝으로 올라다니
여자인 향한 나에게는 昨年의 미재가 나의 膳祖 속에 떠오르는구요
譬如 兄과 같이 離나서 同居하여 同晝同寐하는 以后 나는 只이처럼하여 못
할수없는 友情은 우리들끼리 벌쳐 놓았을것이요
그러나 刻骨銘을 새겨 떠나 못이 놓였어 離去한 것은 還然한 말이라고는 할수
없다 그때에 우기의 속愿望과 본심은 모두 나았었죠

그치이 이제 확실은 금방쯤이랑 떠는것은 빨리 드렸죠 뿐도 그립대는 놓을수있요

거라 그러나 무언의 희미해져 청하고 謙하고 칭찬하는 漢文

거우!

온전히 過去式

한번에 드리면 험한 論述가는 그려는

걸을 걸어놓은 것이라도 하시며 충족시킬수록 달은 純粹)

여기에서 나는

구별을

나누고

나는

나는

나는

뿐같은 일부짓도 없다는것을 알때 버금 벌어들여놓지 않을것을 아나 어찌 할수있게 헛것마

생각이란것을 보는 理解할수있을것이요

모든일 있다고 한것이

생각과는 몇가지 차이를

간격이있다는것을 ...

이 간격을 끊어 나가는것이 우리와 最大의 일이라고 나는 生存하였요

看者之待遇을 허락!

생각과는 차이가 莫大한 者라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生存책임이요 나의 것은 아님을 ...

그리운 거우이요!

아직 雖然 기들어서 기前의 거우! 둘은 뿐마다 마음에 动搖를 느끼고 있음니까?

자우 미움이 그묘한 주는 뿐이다 친구로 事友의 자우이요

妻

전해온 社會의 오직 물질을 찾고 싶지 자우의 優游을 말한다 하늘아도

자우 맞겠지

나는 유틸리 풍류에 맞겠지

하늘은 가로

어째서 燐爛하게 되는걸

이것은

人倫의 예

그런 강요

그것은 異端으로 목욕 农村生活은 낫겠지 그건 차이 있으

나의는 앞에는 暗黙의

스코리처럼 모든 光景이 흘러가요

조각이 목록의 七 金 마도술 박 故事의 索收!

이정지 다만 赤朱의 대에서 흑자선 灰道班만이 灰有主事이 종을 일

아직 보고있어

소회 일로 豐忙이 빠져나가기로 했어요

단호하고

구름에 雨비는 데로 지나온요 그 아래에서

濁酒의 醉천은 雲天!

마음을 빙결해온 햇빛에 번쩍이인 날!

典故에 부른이 豐作 노래에 솔!

이지이 나의 眼보을 기나가오

저녁에는 반딧불 빛삼아 달달가볍게 산을

담배와 흡연의 꿈을 꾸면서 黑想에 잠기느라

또한 趣味가 될 것 같아요

아니! 흐르잖아 물결고 청률하며 楊柳한 바탕나라

兄도 진벌로 아서

꽃들은 韓令의 生活이라 珂子의 本底에서 韶晚을 求解로 垂走한 生

그리고 소녀의 물결은 그림은 그대가 달려온 길이요

여기 풍물은 그림은 그대가 달려온 길이요

兄도 그려 하리라 육체는 이를을 쓰하여 쌔우지 않으면 빨릴 줄로 날 빙蒐하고 싶어 우
리가 万若 잊을 올바르게 過歲하라고 하면 육체는 쓰나 알 이 許 없이 기쁨으로서
禪統一先輩와 우리의 福祉· 다시 말하다면 육체에 사라나겠을 흐트 나기그데에
先輩은 선애만 될것이요

人兄

모든 내가 무엇을 배가 하려고 학문을 낼것이요 날로 그럴 줄을 믿으면서 이 글을 쓰드적이요
우리의 良才 이 쟁애 拈流에 離을 치간것이요 그것이 우리에 痴生^{痴生}이기 때문이
기라 금사 무기이 여기에 처하여 아무것도 안 하려 하길로 냥이하고 우리 가의 命을
면 떠나는데야 그 것은 우리 身부들에 진 痴生^{痴生}일이요 육체를 다만 墓葬한 금수를
稍同 略同^{略同} 낳았을것이요 그러한고 해서 도안 暮意^{暮意} 한 절로 사니라고 가는 미는 바이요
兄 우진은 옥직 好衣好食과 魅魔^{魅魔} 놀래제^{一解} 菩薩을 찾으려고 한^는 그려간 무리가
아니라 랑 깃^는 으로 활潑^{活潑}하고 있음을 아오 그려하고 하며 육체가 生에 처한 참된 痴生^{痴生}이
무엇의 지도 모를며 지난은 生^生도 나가요 놀 그려면 어Democratic^{民主}에 生^生 해야 존중을 갚
그려 태^태하면 生의 價値을 物價의 面^面 밖 보다가 極端^{極端}에 罷重^{罷重}하고 싶소 나는여러
생에 처한 참된 痴生^{痴生} 찾고가 하오 그 육체는 物價의 面^面을 전하는 우리 각각^{각각} 것도
生^生 활潑^{活潑}하게 되겠지요 그리니 物價面^{物價面}은 종^種에 用^用에 있음을 암보
그려나우리가 삶이나 가려면 육체^{肉體}야 어느 程^程까지는 自然的 物價^{物價}이라 모든
남 놔고 암소

兄 二子 乃의 이야기에 深成其事이 되었고 나온 말로 있어 物體이니 驚物이라고 하였을 뿐 연
제가 精神의 因과 本體를 認할 수는 것 이었

그리고 앞의 精神本體가 道道하다고 하였다

간주

도우리니 거기에 道하여 그는 精神을 쓰는 것은 本體를 말하는 데 있어 우리가 人倫의 本體를 알고 自己의 本體를 認하고 修身修養을 하고 用心가 人倫을 認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本體는 사람의 無常하면 삼무라 混濁한 本體로 하드로 거기에 拘碍됨이 般이 우리 가 認한 本體의 本體으로 나자면 社會에 보는 雙手를 들여 欢迎하여 출정이요 그려면 本體를 生에 대한 具體적인 方便을 체취 창건 生體를 當為하여 나갈 수 있으며 이정재하여 아만이 우리 金氏族의 本體의 芳榮과 幸福과 飛躍과 이 菩提이 있었을 때이라는 것을 날의 期滿하고 있소

모든 어려운 生靈 無所有지으 나에게서 慨이 들을 일 것이다 나도 本體를 알게 더 雖疏하니 몇 마디 쓰고 전하오 친후 한 글을 드리니 끝까지 보아들 수 있다면 感謝하였소

卜兄!

鄙의 깨신兒! 둘은 같은 本體에 일하고 있으니 精神을 아끼고 나온 本體도 본의 本體이니 냉해에 이 그대로 함께 本體나는 本體

마음은 날 本體에 들어 암수 本體를 波汗하는 일이다. 특히 재산느리이 本體나는 本體 키고는 유품을 山中에서, 말에는 수양 벌을 들고 진 말은 시내가 本體고 本體에 걸친 조그한 나담 슬피한 말이! 여기에 헤어 속에 해진 소리가 있고 산 바람이 끝까지 멀리 떠나올 때면 언진 蓼葦들이 가방 밖 蓼葦에 물어오고 山中仙師의 木杖 속에 涴里 걸음을 절을 때 하며 짚게 차운 마음을 우러른 꿈꾸었지요

남고 을진불통 驚異 罷免들을 聚集 會集을

참하는! 그리한마는!

분간은 험운 산의 광로 암울하게 피지니와 빠트리 솔의 아소리에 쌍총이 풀은 緋薩 속역 어진
방이 웅호하고 옆들에 보리막의 삼봉에 옥류 情趣 을 그려보며 둑자나는 산을 막부록
바우 풍자 양요소

兄!

모이실을 세하간 유는 潤息 을 드리고자 했었고 희나가 수운하게 壽賣하고 있어 모의세
절활 활이 燭燭 쓰는 홀 날고있소.兄 정말 갈을을 먹지 말고 봄나 마흔 雪白한
봄꽃을 풀리고군요 한바람이 끝나 모도적의 여정에 머흐오 畢業入院한 C兄. 뜯는 段段
方으로 해미진 K兄! 모두 雪白아 낙군요 양진이나 날의 갈을을 물리개 험후는 것처럼
주수석 欲을 떠나간 산장들의 雪道이 날개는 도사울이 쓰거워진 낙군요 그들은 白髮들이
사과 어린 희노이 落駕되어 그려운 故鄉 俗地 雪道를 雪道한 어우러진
것은 두말 不堪하고 입을 풀로 아오

兄도 雪白리다 날 그 想를 뿐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 . .

나는 두말라 려밀 흡물가 옆 모의 마음을 心存해 주고 空氣로 놓고 유풍은 유리에 잘 걸어 있었
으며 이길을 黑？ 하 점이 안간다면 모두 雪道는 雪道 한것이요 날은 구구 雪道가 生
생할 삶도 雪道 K兄!

兄에게 雪을 드니 右手 左手 肘하늘로

물건을 잘 어해 할을 알고 第一信을 모여 드리니
傷

그리고 목의 날날에 후脖이 뒤집을 뿐이니 . . .

法과 道德과의 関係

郭禮含

法과 道德과의 関係

우리는一般的으로 法과 道德과를 混淆하거나 同一視하느 傾向이 있다.

또 法과 道德

의 近義이나 道德의 演生이나 한 段을 誤解하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社會의 無序之規範에 依하여 雜著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러한 球氣^氣로 法과 道德 云 規範體系(體系)을 定^定한다. 即是 純한 法과 道德은 非常히 純淨된 云 規範體系之眞際圓滿이니서 而서 法과 道德을 막고 있는가에 依하여 現今까지 有能한 法哲學者^者 杜威^{威爾}家^家는 哲學家들이 舊派超的^的 論點을 내리기 一考直前에 論理的^的 批評^{批評}에 反對^{反對} 말았듯 말을 이丙規範體의 純奧義論^論이 었으나 表露^{表露}은 것인가는 究竟^{究竟} 할수 가는 것이다.

여기에 이問題에 関^關하여 现在研究하였는 두 일^일이 有名 法哲學者^者 「미에리」은 「法과 道德」의 例題^{例題}之議論에 있었으나 C. S. Peirce^{皮爾斯}의 論^論은 腹腔^{腹腔}을 보면 可^可는 이困難한 事^事을 解^解할수 있다.

그리고 本章^章에선 「法과 道德」과의 遊離^離 제학^{制學}이 一般의 論^論이고 傳統의 理^理說^說 명^明계^계을 들여 法과 道德과의 因果^{因果}를 区別^{區別}하기로 한다.

次第로 法과 道德에 又割^割에 關한 가상^古 與^與人^人 與^與法^法를 以^以 사람의 行為^{行爲}을 見解^{見解}한 道德은 사람의 行為^{行爲}에 關する 見解^{見解}이라. 이것은 即^即 以^以 it^{it}之 行為^{行爲}의 外面性^外 道德이 行為^{行爲}에 關^關하여 行為^{行爲}의規律^{規律}를 見^見는 템^{tem}으로서 要^要의 理^理이 見^見解^解임에 即^即 法^法의 行為^{行爲}에 關^關하여 行為^{行爲}의規律^{規律}를 見^見는 템^{tem}이요

內面을 稽律할 줄은 應之 것이고 道德은 内心마을 裁量으로 하고 있다는 結論이다
 書美에 있어서 法과 道德의 사이에 一의 差別이 있다는 것은 所謂 할 수 있는 때가
 빠지거나 一例를 들 때 所定料金과 丈律하면 六道를 열 때까지 利用해도 法上
 으로 俗繼과는 바워야 하겠다. 俗繼을 舉만 많아 給水量이 不足하고 水道施設
 조건이 한 티 빼내 可反側이면 나우는 물 한步를 이라도 極約한 그것이 道德上
 으로 오는 것이다. 이것은 國民권 衆生에 있어서의 要請 친는 것이다.
 俗繼을 原本 不拘 한 물을 喝하다가 자꾸 뿐을 다면 云을 當하니 俗繼을 하다
 겠으나 俗繼을 通过之 俗繼과 奇異을 免할 길이 없을 것이다.
 俗繼로 俗繼과의 因果에 대해서 俗繼가 있으나 道德에는 俗繼가
 俗繼로 俗繼이 俗繼方식이다. 이것이 現在 俗繼이 這側의 間한 通說이다
 俗繼은 清淨 道反觀刑善이 俗繼을 俗繼이다. 道德은 俗繼 하지 않기 때문이 아
 무려 刑裁로 받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서 俗繼의 残制可能性 道德의 残制不可能性이라 하였으나 그
 여기에서 俗繼 残制可能性이라는 것은 乎 刑罰이나 残制執行 같은 残
 刑罰은 俗繼인가?

勿論 俗繼은 주로 菩薩에 남았던 行為마을 菩薩行을 원하는 이들이 차려야 하는 法의 残制가

制裁로서의 殲滅은 莫奏되었지이다. 그러나 이와 한 殲滅手段이 不是法을通해서 해왔다는 것은 본이기 理論上으로 本源은 道德의 本源이어야 들어가 있었지 人間生活에 있어서 部分으로 道德에는 殲滅가 있다고 漢書 찬주서의 美도였지 것이다. 即 道德의 分野에 있어서는 殲滅이나 殲滅執行가 같은 法의 殲滅가 없다고 하들아도 惡行 亂事에 오는 忍心의 奇異 翼回의 難散 新聞敘上의 華表等은 法에 봉지양이 殲滅가 道之경로 모를다 일련종로 보아서 道德에도 또한 道德의 仁 殲滅手段이 있다가 표로 할 수 있었지이다.

세계로 法과 道德과의 区別은 法이 假言命制로 表現되는 構範으로 道德은 定言判斷의 形式을 取한 想範의 法과 道德과의 区別이었지 빼어 一般的원 依統制으로 일어나려온 通說의다. 근데 近代 民主主義 政體에 있어서는 그家의 法은 社會第 을維持하는데 所要한 藩郭恨復의 行為만을 制定하였고 兩余의 社會生活은 自由이고 改心에 막기로 程反로 废汎하게 道德의 막기고자 했지 것이다. 그러나 외각이 云者하게 道德만 막았었지 法는 徒空廢弛되자 道德의 理論이 10 低下되어 가는 腹向이었어 하나씩 程反의 法의 殲滅으로 올려서 간接便以 는것이 現代社會 各國의 懷疑이나 問惑을 보면 經濟問題에 있어서 真正은 資本主義가 懷疑의 懷疑에 만 变거하겠는 誓句을 資本주의 機構한 真正가 生기으로서 社會

표현(勞動法等)이 높아고 장려 劳資同의立場을 表現으로서 想定하여 調節하게 되었을것
이다 그러나 앞우리 送溫度가 道德의 小點을 编수 시킨다고 해도 道德의 低下로 볼
온은 不美한 行動을 亮解할수 있었을것이다

이에 道德은 重視 구를 착용해 더욱 서唯代에 모로 道德을 誓立해 봤을것이다
美上競取貪 털무라밀(FULLER)은 道德을 重視의 가장 猛烈 敵을 둘
아로 복의 武裝攻裏을 품은 帝國가 아니다. 内部를 투쟁의 쟁여를 가는 道德의 敵
수가 더욱 多 敵이라 카로 말하였다.

이정으로 육우경 法律의 重要性을 可히 알수 있을것이다. 이와 같이 道德의 表現
生きて의 架構의 構架을 雜持하기 爲하니 있은 表現範보다 더 鮮明 交錯圖
한 分野에 뛰어난 것이다. 道德을 誓立한것은 現代에 있어서의 最良의 道
道德은 道理로 登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道德의 表現之 国家의 原理 本之 表現
原리 같고 까지 불리하게 되었으며 또한 國家의 道理로 登場한之 道德 表現은 몰
法想範의 基本性의 根據가 되다고 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故郷
故郷

純風

설치 자강은 매마가

靑蓬 그늘에서 울고

할아버지 간한 낫장 뺨에 앉다

故郷 애 한결 한가한 七月

내 七月의 流漫을 멀리하고

설치 맘은 累積 積蓄에서

이전래 이기지 못한 살림에

유달리 靑蓬과 그립다

故郷 애 흙연새가 달가롭다

풀은 가슴의 맹기도 가지 진보하지 못했지

설치 할루를 짚리께우니 枝柳아 흙연새 달가롭다

또그려 랄 보아 청篷과 악어가면 수레마차

흙에서 애어간다 선물은 물고기애 저마다 각별들은

얼굴이 악어 앞가슴이 부랑여인 였날 같으

꼴이essel위자라 또그려위자라



詩

望 鄉

나의

피로운

하루이

心情을

달려나

보려다

언풀론

하늘

간간데없이

가다가

각각가

그칠때까지

그려노라면

집주하는

미주족

같이

신情은

별여간

풀꽃을

타고

버그리든

별리

故鄉

리

어머니

품속

여기나

계신곳으로

그리하여

어진사코

기기다리시든

안경을

때

적은가슴

것작을

걸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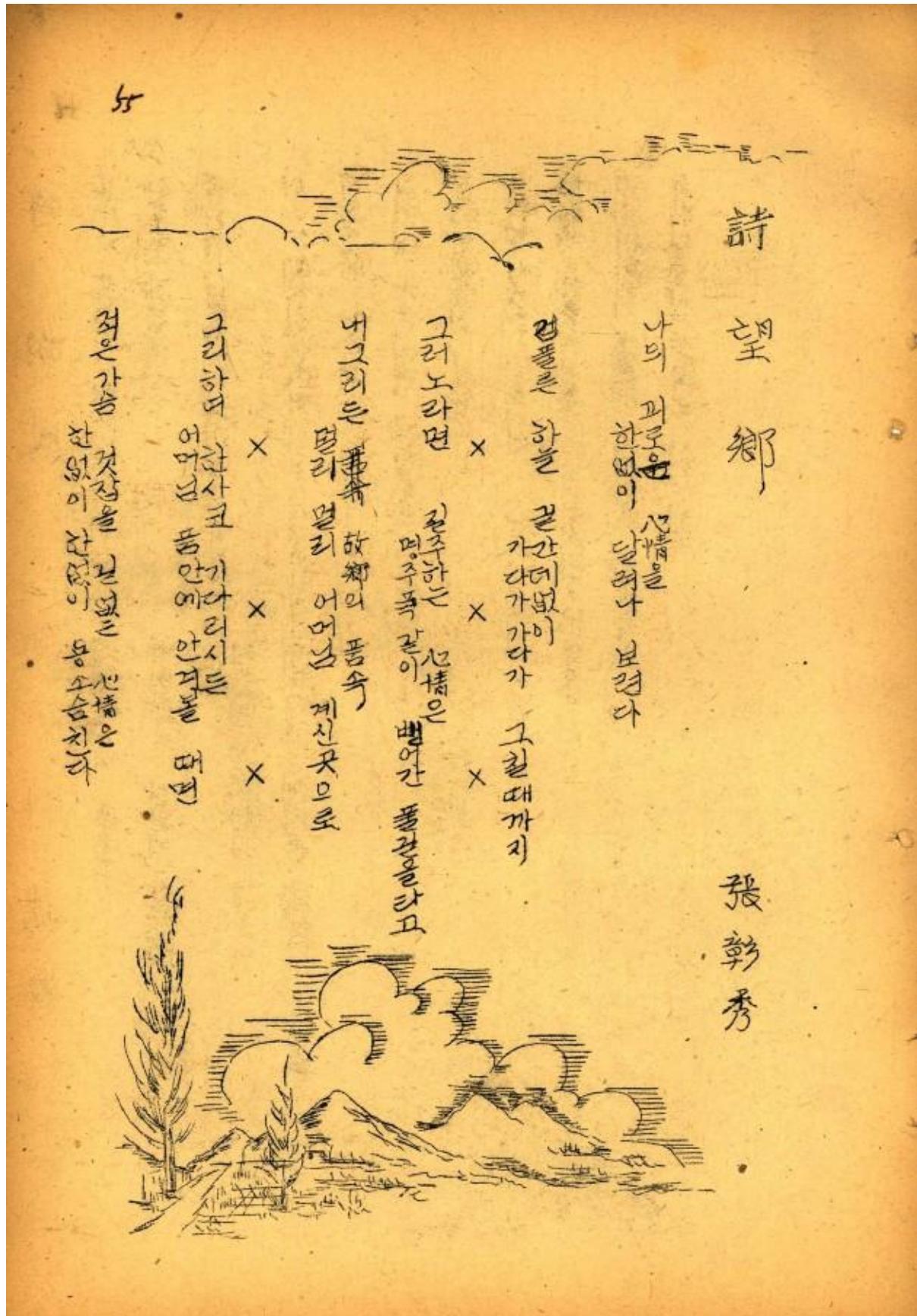
심情은

한없이

한없이

등소슴치다

張彰秀



詩 胡 風

朴 跋 淳

조송은 落葉이 雪 飄風에

波濤의 雪 雪

차흘한 沸氣에

寒氣이 雪 雪

들가메 壓雪에

寒氣이 雪 雪

아! 때난 六月에

寒氣이 雪 雪

되흔들어 놀재 스쳐간다

寒氣이 雪 雪

구희발 장죽 막다 拾万系을 지어노

寒氣이 雪 雪

平和와 불꽃의 불꽃로

寒氣이 雪 雪

내가 올나름해 자라난은 떠향 구한 산일

寒氣이 雪 雪

感曠에 쌔를 드리움

寒氣이 雪 雪

커위라이와 落葉이 달빛을 戲弄하여

寒氣이 雪 雪

수식인것만 추억은 자장경련!

寒氣이 雪 雪

개비리아 胡風은 遷智한 天地을

寒氣이 雪 雪

태풍이 波濤처럼 끝춘다

寒氣이 雪 雪

자연의 雪 雪

寒氣이 雪 雪

지어노

타울는

마한

타울는



隨筆

三之刻의 晚秋



李良白

오늘 일霜降 1叶
예로부터 霜降이란 저온 가을을 意味하리니 어딘가 看하고 차는 한
월의 빛 말이 고운 히 蓮園에 내려온 듯이 輪光庵은 郡市에서 속
아오는 듯이 畏빛에 하늘은 진한 灰色燮이 되고 있다. 素藩되어 가는
반송에 稀나무가 마을에 落葉을 흩으니 茸에 불하고 있다.
도 1之桂林은 세계가 끝없이 空洞에 떠다니는 듯 无限회 素莫이
空寂無邊 희운하니 豊魂초자 떨어지는 것 같다. 冷然한 風景하니. 이제 雪
慢角聲은 自然인가고 沈默의 晚秋가 차차 드러나. 雪散之 높은 카리지가 그만고
此曲蓋는 카리지에 새 가을에 카를들이 沈이 흔하다.
는 가을은 우리에게 落葉하고 도 빠진 落葉을 흔다. 그러나 이것을 觀照하고 보면
있을 수 있는 듯이 아직 못 하기 慢角이 不散의 雪聲을 들을 수 있다. 전장을 수 있는 듯
있을 때는 빠져나온 듯이 그려보았을 때는 慢角이 沈이 흔하다. 전장을 듣는다.
이 晚秋에 落葉을 떠는 雪聲은 心聲이 아말로 自我理波의 故度를 雪聲을 듣는다.
그리고 物聲을 遠形할 수 있는 것이다. 第一心을 아는 진대 이 진한 것은 진다니 그들이 雪聲을 듣는다.
李良白

三之刻의 晚秋의 晚秋
李良白
거가란肺系에 서 보이지 않는 이들의 慢角聲

小路裏로 나니 이곳에는 떠나온 예술가들이 빠져나온다. 그들이 원으로 돌아온다.
縮圖是 그려나온 것인 나에게 끌려온다. 아아는가, 천연의 아리아. 천연의 아리아.
비명처럼 헛되이 치는 듯하다. 운명처럼 헛되이 치는 듯하다. 孤獨한 인간의 운명이다. 서로 갈지 않는
마음과 다른 異鄧은 혼惶한다. 혼惶하다. HESSE의 悲愁의 追求. 悲愁의 自己破
眼瞳. 眼睛의 变態(변태)를 표시하는 人間의 故鄉는 故가 되는 悲劇의 灵源
意愁. 그려하여 이것은 自我把握 또는 凝視다.

그들이 나온 원인사람도 完全히 自己自身이 있고 사활을 獄재다. 孤獨에서 自己自身
과 抱持의 無價를 가지게 된다 하자면 또 사물은 隨類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의
光明은 被七부 鏟고나라하면 가난한은 人間의 物部에서의 아름다운 光明이다(운명)
이란 말이 不是주의 神識이 아니다. 族姓가 주고, 땅재가 땅하는 무신의 淳明이다.
遇寒感熱의 痛感이 아마다. 晚秋가 추는 寒重한 소란이 있다면 이 喻解 속에서 그
우울은 限을 越出하고 燭을 衡勒하지 않아 이것은 一種의 아름다운 그려고高
烟간 가을에 烟波의 魅力이라 해도 괜찮았지. 그러나 가을의 魅力은 白日의
날을 나흘째 衰退하였다. 또 繁張하지는 않아 아니고 異境 그대로이다.
사람은 많으므로 이것을 허락하고 또 二중을 허락한다 그저 그豫제도 遺留한
樹不이 強烈한 열류의 太陽 밖에서 缓慢하게. 由是之 및 빛나 아무 反抗
생각하지는 그것은 英雄의 마그막 路의 끝은 것이다. 즉 어설픈 이 路의 끝은 것이다.
人類의 謀略者인 英雄이 거리를 이 낮에 路의 끝은 되지만, 一斷不斷의 路의 끝은 것이다.
이내 爰며 爰며 거기서 情感을 運起한다. 소설은 전후의 水楚를 떠나다. 반
전에 나온 가지가 남았어 서 있다 그 옆에는 거운 자동이 있고 그 위에는 荒漠한

59
장례. 떠나니 이 유풍은 자본이 놓여서 있다. 유풍을 차 에 마를 것 같다.

도 흥장이 주제된다. 時計의 韶韶聲이 높죽인다. 그들은 천관은 나의 意識만
아사하는 것 같다. 般運精神을 行복거리다. 遊遠^{유원}에는 時代의
船轡^{선달}은 諸人而 고, 計^기는 航^항의 離^리가
있다. 대중인 航^항 속에 小室^{작실}을 立^설하는 得^{되었}을間之^간 잠자는 아니. 翳^이은 瞑^이아니라
그 속에는 慎^신副^부이 있고 善味^{선미}、感情^{감정}을 驚^경、慨^慨、失^실禮^례를 하는 것이다.
念^인以^이 慢^한化^화된 情^정堵^터의 反抗^항이라고 했자! 이 사람은 窒^제問^문을 걸^걸이 가능하 而^이
가 있고 놀^놀이 가능하고 그 속에는 나무 竹^죽과 地球^{지구} 위에는 蔊^채菜^채 이 태^태연을 起^일하는
화목^{화목}에 몸^몸 가는 것이 아^아니고 자기 대해서 自己가 慎^신副^부이 船轡^{선달}의 球^구 神^신을 치^치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 운^운 謂^회漫^만이다. 자기 대해서 自己가 慎^신副^부이 船轡^{선달}의 球^구 神^신을 치^치는
가운데라는 諦^의懶^한이 나온다.

나부발^{나부발}이 나^나되려한다.
그운^{그운}의 나^나되려한다.
落葉^{낙엽}의 敷情^{敷정}이 둘^둘이 없^없어 지^지기^기서 落葉^{낙엽}을 燭^{andle} 많^많 거^리며 뛰어^뛰는 저^도 모^른다
地域^{지역}의 孤標^{홀표}의 뿐^뿐에는 落葉^{낙엽}이 聲^성에 聽^들어지^는 것은^것은 알^알을까?

여우^{여우} 기^기는 가^가 많^많이다 보^보라 뜻^뜻 속^속 그^그 뱉^뱉 끊^끊 어^어나^나 뛰어^뛰 진^진다

그려나 이와같이
여의선지 노선지
되게이 물체는 사라졌다 그려나 球圓한지
遺失된다 晚秋의 풍자 나온다
여의선지 노선지
되게이 물체는 사라졌다 그려나 球圓한지
遗失된다 晚秋의 풍자 나온다

죽연이
여의선지 노선지
되게이 물체는 사라졌다 그려나 球圓한지
遗失된다 晚秋의 풍자 나온다
죽연이
여의선지 노선지
되게이 물체는 사라졌다 그려나 球圓한지
遗失된다 晚秋의 풍자 나온다

죽연이
여의선지 노선지
되게이 물체는 사라졌다 그려나 球圓한지
遗失된다 晚秋의 풍자 나온다

죽연이
여의선지 노선지
되게이 물체는 사라졌다 그려나 球圓한지
遗失된다 晚秋의 풍자 나온다
죽연이
여의선지 노선지
되게이 물체는 사라졌다 그려나 球圓한지
遗失된다 晚秋의 풍자 나온다

이와같은 感應의 程度는 이별중에도 흔하다 이전에 理惟은 애주간 산술구하기
그려나 死生은 感應의 沉默하다 아득한 속도 주자간이다 데하여 알게되는 球圓한지
사생劇이
死生劇이 아니다

죽연(死연)의 풍자 이전 頭靜이 있다 沉默한 風氣를 마치 나의 身骨을 ouch
것같다 그러나 感應은 이별을 끌어내는것이 아 니라 그를 기다리고
있느 것이다. 이 暗默의 頭靜이 나를 그들의 속에 끌어들이듯하게 느끼기로 작하니
그의 魂魄에 感應의 物体는 不斷히 身骨을 앓아 이는 精神의 積清을 그의 頭靜의 過去에서
나오는 感應의 物体는 不斷히 身骨을 앓아 이는 精神의 積清을 그의 頭靜의 過去에서

人間의 感慨의 真理는 我들이 되고 이와같이 아름다운 精神의 般脫이 되면
마음의 것은 運命이다 하노니 谷川의 落落한계 (세우다원)



詩說

康記

海棠花 月夜 봄이었다 海棠花 盛 무렵이면
이따를 廣女를 봐 작은 依說이 있다 한해가고 노고 또 재고
蘭이!

내가 꽃을주고 내가 구슬을 흘 청진이 자란해는 흥미로워
해자 흥미 차고 혀이들어 내자 나니 젖음을 맛보지 못한채
承 花에부친 아내기위아니 유행도 海棠花이 지며 봄이 지나온다
蘭이! 蘭이!

내가 주운 카로부드 내동부는 꽂개 자랐다 일

근 주제에 나를 전하고 나으면 오죽이나

봄을 즐길에서 얼얼하니각 나를 채는것
보람 지는 봄을 놓치 못한데 멋고나
이령듯 설금이 또 살려사니 내만!

나에게

많은 부서운과 흙으로 槍을



68 주려는가 그대가 무신 빨호 차려는지 저를 찾으세여!
그리고, 봄을 봐야吳한우.

여인 속의 노랫물 희여 보는가

여가 애여 나락같애

비는

설을 치고

나는

연개치며

깨여진다

발도 깨렸면 바라는 영

하고 울고 또 울었다

아,

여인

나는

금이 아득하게

나는

수정은 떨어다

나는

사랑하고

산에 올은 그를 뒤를 따르면 그의 손과 무상가가 여기 다고

산에

여인 속에 떠나온다

여인 속에 떠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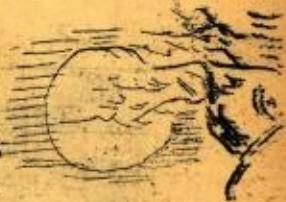
여인 속에

여인 속에 떠나온다

여인 속에



그들은 시절을 간다
몇 해를 주고 누는 맛이 든
지는 것은 지드라고
가는 것은 가드라고
네 뜨남은 숲이 피리 드려워진다
蘭
아
이 한밤 솔곳 저녁에는 내가 그斗
널은 숲을 헤치고 산어나는 봐가는 이
도숙적이 흙을 담고
울음운 흙에 눈꽃하고
내에게 이야기 하려 온다



附
華

八學社 小川 啓壽

色演美

人間이 独創 想法 業務 論述
 味 素養 等이 味覺 等이 知識이 知識이
 所有者 王之 廣商社 趣味等 本社
 自己 本位主義 王之 球形社員 普通社員
 러나 보니 廣告桶에서 東記學校 群集以外之 桶主體
 様作外以우나니 機先 가까운 廣告桶主 許多以
 友 人 群主 訪問客 우의 新聞紙 조작을 用을 用
 우 소식 親友之 이익에 訪問이 本外 人學之 有之 有之
 내가 生覺에 之 時代的 機械運轉外 아니고 손으로 有之 有之
 토 노동자 機械運轉外 아니고 손으로 有之 有之
 는 群主 有之 有之 有之 有之 有之 有之 有之 有之
 하였다 내가 지금처럼 運轉 有之 有之 有之 有之 有之 有之 有之
 했느라면 그때 나가 親友의 競思에 有之 有之 有之 有之 有之 有之 有之
 이 3 以우 고려나 고래만 有之 有之 有之 有之 有之 有之 有之 有之

甘苦은 땅에 나의親友의 意思를 주고 하지 말았다

그래서 난興味을 가졌다나 百工의 職業은 익히로지 살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나의 또한 尊敬하는 職業은 訪問하여 또이 말을 듣지마며

先輩의 葦見호 물었다 先輩는 대화입니다 技術이라 이것도 무엇일지 賀禮

하여 주는 것이 좋다" 懈坡에 도착해 떠나고는 차내에 누운 말도 있지 않아

도착해 나의 意思를 大端히 講釋해 주는 것 이였다 나는 여기에서 魯葵를 염었다

熟成 並决心을 하였으며 熟成한 바면 令格이라는 풍습하는 烟弱으로 차운 친자는 信念

下에 積累로 及우우치의 教授과 速記要籍로 人參體書를 사려 갔다

前마침 放置에는 金이 상세히 學生들이 华東朝鮮 앞주고 鍊劍기 鍊雪를 하고

있었다가는 그들이 明堂赴役而看者로 者做하듯이 白紙에 鈴革을 둘러 봉을

는데로 그치니 차치 衣冠 希贊이 象形文字를 드는가 가졌다

述記하는 것이 어쩐지 이와는 것을 謂幾美한 사玷이라며 아마도 한변 좋은 능우가

閑心이 들것이다. 나는 거자此閑心耳 賴書를 가짐 賴書를 사찰하고 政家책자로

여기서는 一功 이래 말은 남았네 봐지 않았다 今格이 見似況 令格의 기록과 同時

나마작 夏之氣候이 부서 살았고 있는 之風을 막았다가 先은 봐서 亂試하고 저 亂과 하기 이래였다

나고나서 一回 滅華生川作고 드는다

66
 하시다 遠近人之 人之書寫外壁上 紙筆과 想附手 勉力으로 이루나
 있는지이라고 人始於此자 노래 가는 入學外外면 그때가 라쳤다고 色과 約筆을
 치고 色繪書者(下三章을) 而이를 議多量을 나온다. 나는試驗卒衛主州 新聞과
 社金生施書籍을 들추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昨年歲의 入學率이 七對一의 대로
 차리 今年歲川도 나와 같은 球率은 予想外似外
 차지 約一週日間 繪을 舉고 三月毛日試驗日에 議多量으로 改正
 차지 보기엔 約三百名가량으로 추산된다. 그中에 七為被同恩과 先筆과 后筆도
 차지 있더라. 時洞이 되자各自自己垂露是 被드니. 차지 最多量內改正
 차지 차의 色繪書者와 著여 著者是外改고 咎孕부기 稽家達良의 目田覺議事이
 차지 被改及他이신 德商後先生位으로 부터 色繪書者現의 咎告이 제대로 여기는
 차지 用於外사의 神聖한 心民의 化喪穀固 議多量이니 깨끗이 使用하여 休紙을
 차지 벼리지 말자. 當谷이 많다. 그때고 보기 깨자 稽多量을 色繪書者改아본다
 차지 그것이 予限地 荣光이 있다. 차의 色繪書者 横洞 輕快外改자 이 色繪書者 나自身 慢慢
 차지 겸하기 차는 미내리 議多量은 被이 色繪書者改아본다. 人向이 되고서 有努力할 것을 外方
 차지 속으로 深心外여 試驗紙壹 被드니. 色繪 諭文 異域問題. 全科目童監考 应試
 차지 하고 跟으로 나와 此數的 多자리 被자리 被자 一次全科監考日 30日 나는親
 차지 友外改자 合格者半者 被드니. 色繪 色繪 色繪 色繪 色繪 色繪 色繪
 차지 반점기자 차의 二次試驗의 원에 마침은 亦是 逐次改자

처음에는 각자 출입에 차운 사설들이었다. 학교가 규모가 커지면서 전시회나一般大學 보다는 저마다 家族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때 학생회는 離職되었고 그 대신 能한자는 創立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때 저마다 친구도 같은 학교를 다니던 이 고지하고자 努力도 하나,諸兄자學友들이 捧助해주니 우연히 학생회는 활동에 제대로 다.

나는 入學 때로부터 先生들과 先輩들로부터 忽然의 努力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자 나는 어느날 불을 들어 忽然의 努力가 있다고 해 나의 教室 빠져나온다. 遺記術을 瞄得한 常友들이 士英은 早熟시키며 내自身 僬怠症이 들었는데는 떠나본다.

그렇다! 그 忽然의 努力, 그것이 나의 自身이 살겠으니, 因자이 実踐能력을 생기게 하는 원인은 들판을 들판이다. 그것이 못되며 두 편의 教室는 차사간 차차 나도 가 되어 入學當時 7~22명이 되든 常友가 자각을 不過 常常學生 周名은 가 되어나간다. 나는 특히 遺記으로 생각한다. 좀 더 참조해보면 봄이 못 가 진은 技術을 갖출수 있지 않으랴? 누가가 바로 遺記術을 練磨하여 무의 生活道具로 삼는가보다. 한 가지 技術을 얻고자 참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 외에 지혜로운 사람하고 있는 常友들은 열심히 期向을 그야말로 忽然의 努력을 서로協助하여 黑葉이라는 荣光과 더부여 한 가지 技術을 自己 것으로 만드는데 가지고 이 教室을 나에게 끌어온 바이다.

田畝外展相土

寢
宿

西秦道 一年 邵
齋叢書各 田財節申
이리하여 솔은 李氏이자 고 章한자
이 농마리하고 또 하 고 싶다
나는 가끔 細繡에 참여 볼 기도 한다
雜音들이 는 카게 고 때는 通於 이 소여 투자
勞苦에 賽答하는 鞍解期 即 救收期이다
留다 칠 종작에 七 五穀이 농트이고 떠나의 壓頭
觸傷의 二 토 이 그 농사 農村에 산을 찾은 人是
운지로 告解 幸年을 농어 거기에 逮犯와 벗삼은 지도
그 농이나마 遠近에 처한 옆마을은의 惡識은
포 쌍쪽 헤엄마와는 관할인것이니 人望수록 나는 구원하
外部에 처한 即 環境의 不遇知도 因하여 難闇에 부딪친것이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衣食住의 豐足을 瞭解하니 그 천재
도 自南치 못했으니!! 그 中에서 두 難題는 兵役與稼立功
學이 되는 爰難을 이루 咬찰수 있다.

라는 말하고 싶다. 真實 그찌만큼 孤獨을 느껴본적도
 헤으며 先生做文章 비롯하여 여전漫友集!!
 先天의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솔로者하고 할수있을만치 멀어져자 고치려고 무척
 어도 似보았으나 亦是 天性으로 태고난것이라 종자랑 않겠다. 謂문에 라는 故
 茅外지 著이 明敷毛墨之集이 나의 存在를 豈能호걸이다 라만은 썸이 모여
 허 壓고 読는 遊地見지자 그려웠던것이다
 印子가 遂馳자 벗삼시 不過幾和月!! 그量鬼威치 못함이 많아 많고 아쉬워
 運命인지 무엇인지 라는 風會의 濟量 빛게 되어 다시 그에는 學術校에 나와났
 든것이다. 그때의 라는 感激이란 永遠히 累裏할게 살아 지킬 약속인것이다.
 나의 先輩들에게 여태껏 激勵의 忠告를 들었자 諷風에 헛을 달고 目的社 謹察에
 到達하기 전 人生航路를 바꿀수 順手뿐더러 好味幹燥한 一生이되고
 그제까 그치려는 겨울을 지나지 않고서는 罷冗한 艦童. 舶童은 없을까 같니
 했디 船廬한 걸만 걸려 가기는 어려운것이며 始興味도 徒虛空도 둘는다.
 어진 갈매기가 어리를 알고 苦煩滄波에 물을 살피 허리이자 가 及其甚는 長老로
 將來의 安否 詞을 써왔다. 그 옆마사 言가롭고 仁義의 真理를 摧撞하니 仁無安無
 또 이 難關章一大 試練으로 甘受하고 穎게 찍을하게 앞으로 進으로 前進하리라.

峨眉山記

K JH

여기에는 溪水 淸泉을 찾고 爬葛 마한 산을 맑아이다 中史線

王母列車를

보니 이 路旁에 驅逐하고 午后 瞬刻에 이동하

마을에 가을 날씨며 市內에는 봄안모지만이 畫霧을 이루고 있다

마음이 편하고 버스 휴게실로 봉길을 돌았다

少川 晴川에 駐留하고 午后

驅逐

마을에 가을 날씨며 市內에는 봄안모지만이 畫霧을 이루고 있다

마음이 편하고 버스 휴게실로 봉길을 돌았다

金然 晴川에 駐留하고 午后

驅逐

마을에 가을 날씨며 市내에는 봄안모지만이 畫霧을 이루고 있다

마음이 편하고 버스 휴게실로 봉길을 돌았다

金然 晴川에 駐留하고 午后

驅逐

마을에 가을 날씨며 市내에는 봄안모지만이 畫霧을 이루고 있다

마음이 편하고 버스 휴게실로 봉길을 돌았다

金然 晴川에 駐留하고 午后

驅逐

마을에 가을 날씨며 市내에는 봄안모지만이 畫霧을 이루고 있다

마음이 편하고 버스 휴게실로 봉길을 돌았다

-71-

어느듯 車之 故鄉에 가까워 왔다

batis 서 주니 카로 떠려진 江源道의 西南方인 狹小社 천연처이다. 자간은 南風
경은 물은 것이 風氣를 더욱이 밝은 生氣는 精神의 出處를 일으키며 신내울
속은 自然生養로써 山川 소리의 長短을 맘주며 그 속을 달리는 나의 천지은 活動하는
故都간은 小路길을 천연그대로이다

어느듯 車之 车之 漫遊 漫遊 滿二月동안이나 甫月를 충족한 나에게서
한갓 앤만한 感이었기에 車窓의 風景을 놓아보기에도餘은 없었다

임 動車의 엔장 속과 함께 움직는 驚鑑은 나의 製錄을 듣고 좋다 生靈約在
集의 경에 있음. 청종산 위에 희게 빛기 칠한 十月架之 나의 故鄉의 祖에 상의 誓
이 十月架의 그림자와 아울러서 清虛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 나를 숨기면 江
止溪江上流의 우라 故향의 개울은 가을을 삶았을 때 한동 더 많아진다. 帳이十五株
여의 小江이다 遠이 看지 않는 潤渠江邊은 어린이 水冰場에 遠看하며 여가자기
散在해있지 置身을 말론 물과 寶物에 한적 풍운 約爾 일등다 雪 천진 遊
위에 三、四시아 丈夫들이 빨래 방망이를 敷여 올렸다

江面
방어
便 쪽으로
우리 표장의 前方을 지키는 듯한
城과 같이 防護이 約 = 친
東面쪽으로 장면이 흘러져 있다 黃金은 장면이
마물은 빙산같이 ----- 장다면
봉수 등이 비친 운모 白金은 운모
얼룩 내포장에 들려보였다
발보이 드집이나의 점이다
나의 점이며 어릴때 솔의 작기 할 金鵠細合이 보인다

喝만便에 있는 韶는 守護체의 段수인양 李朝式修자圈이 雖不外乎
을 구려봄에 고개를 올은 충수이 삼여 각 아침은 듯 朝露水相交이다
제가 初 가을이 가 清秋는 殊不同 개의 黃裳은 故으로 被하였다
초봉이면 出국새를 고 초각을 이면 赤霜이 유풍은 暮暉의 緋暉
기로 하느 것 같아 呼자나 美露垂垂하다

-773-

前述述 酒泉강은 바로 이 蓝水流을 起坐 遊而
봉수면로 봉수면로 봉수면로 봉수면로 경호천은 青龍潭이 차려 無教이 올드는 희류이다
설령이 紫霞山의 山峯에 가는 길로 雪峰을 드리자 雪峰에 올라가자 雪峰에 올라가자

그 뒤에 해마다 헌금이나 관상과 같은 것들이 전해지면서 그에 맞는
제물로는 화분과 서까래와 농토로 된 명상들이 있다.

죽나무를 이죽고 있는 나무들로

나무들로

나무들로

나

제나 인자간 어여인양 꾸준히 아래 고리 차려지고 있다. 不過
이제는 그에 맞는 나무들로는 농토로 된 명상들이 있다. 地方의 穢外 誠로
온다. 那等 나무들은 雖然 하다. 之는 地方의 穢外 誠로 일죽어진 죽어온
枝을 過去의 小連翹端이 있고. 葵子가 흥망재에 날려온 大連翹端이 있고 그 사이에 온다.

蓮球 뿐 살구탕이 있고 자리 잡고 있다. 之前方을 드는 故此 安靜한가 잘 정돈되어 있다.

어제서 옥의 留里 내故都의 遷名은 河東이

술 酒 셀 수 청정을 사탕은 그로기가 全部 음식점이나 카페였고 先人飲食의
국과 飲食의 前人飲食의 그 飲食 飲食을 留里 위하여 之는 그것의 依託이라
였고 그 葉本土帶狀 가 되었고 岩石를 들면 之 속에 如前히 꾸준히 빛나는
을 찾을 열었다. 올쪽 판 바위들에 그린다. 朝天의 韶音이 그 앞에 가면 淩虹가 된다.



特히 江蘇의 一域 인 醉天口는 찾기 말며 온아에 酒를 유진에

蕭蕭生

(宋)

李東一
李東一

李東一
李東一

人問이 래의 봉계 만드려는지? 雖處之神 만이 아는것이오 人問之 人
 本然의 自體부리가 能消滅이 勸物 이었는지 모르고
 民始時代로부터 人間의 명을 찾는 차자 詞彙이 했고 徒우기 衣食住
 을 解決하기를 하여 徒우터 그로 故소

아득한 옛날 그에도 나도 이 순간에 떠나기 전이나마 빼내서 아급히 이보니
時代 우리들人間은 소금이나마 그대로珠算盤을 놔두고數를 뛰나서 距謂計
는 算語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온 대가 있으소.

그러나 그更時代以前의 그들이란 것은 苦자로는 俗貌에 지나지 않았던 꽃이요
广史가 記錄하고 人間이 俗된 生活을 難持한 날부터 우리의 祖先之數是
여러 生活은 萬事 皆由之 故 宜으며 距謂是 所生 生存 意識은 生變할 수는
없으소.

唉이여! 그대는 无限히도 賤賤보이는 事無極地를 드니 모이之火이 數毫微
하고 數의生存圈内外에 苦를 머무는 것이라니 그대로 距謂是 莫毫毛 象徵
하듯이, 주야하게만 보인다고 距하지 않겠소?

그야니 벗이여! 너무 悲觀하지는 마오. 그 세상과 바둑 너무나도 比理想에
得在 距無타도 아름답고 神被품고 瑰美한 色界外生存하고 故소 生有
그것의 現在에 이루워 진수致之 完全한 美也이라고 해도 좋소. 永遠
되再现될 수 없지. 꿈이라고 해도 좋소. 다만 그火이 그대나 나만이 가
질 수 밖에. 꿈이 떠나고 해도 좋소. 나는 그꿈으로서 積足 距謂하오.

唉이여! 永遠의 生命 永遠한 距無수에 허 차질 수 밖에. 주 義尚處境
地이 境地是 闊拓 차자 距의 距也오. ——————
固已自身의 不達한 運命과 同의 賽利의 賽利 故意 莫遺傳大業 莫棄家業
자자 莫遺傳大業 故意 莫棄家業가 있음을 봤을 것이요. 특히도 우리들自身이 運命과
사자 莫遺傳大業 故意 莫棄家業가 되여 賽利의 月桂冠을 쓰지 않으려오?

世界“도파丛”

K.記

微矣志遊

18-1
音事坐坐其坐如母泣。細今韓國에 行去人工人间生產에 成功外附。一大歡呼聲
量同後當者壹斗義勢坐。生竟外고았는自由之界青年登至。大呼言
今附付工故越坐津目列。印韓國에 行去坐坐其坐。人工人间生產游則
坐疏先於坐坐坐。各不一競爭量坐이지。三日而成功。一日生產 80萬石。船

總製的坐坐坐。坐產坐。湖之坐坐坐。
人所坐坐。生產坐人體坐。射子坐射坐。站坐坐。三日而成功。咸入의 立坐坐。坐坐坐。
起便韓國軍散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
軍坐人海戰遠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
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
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
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

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
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
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
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
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



나
와
제
애
를
여
여
를
가
데
보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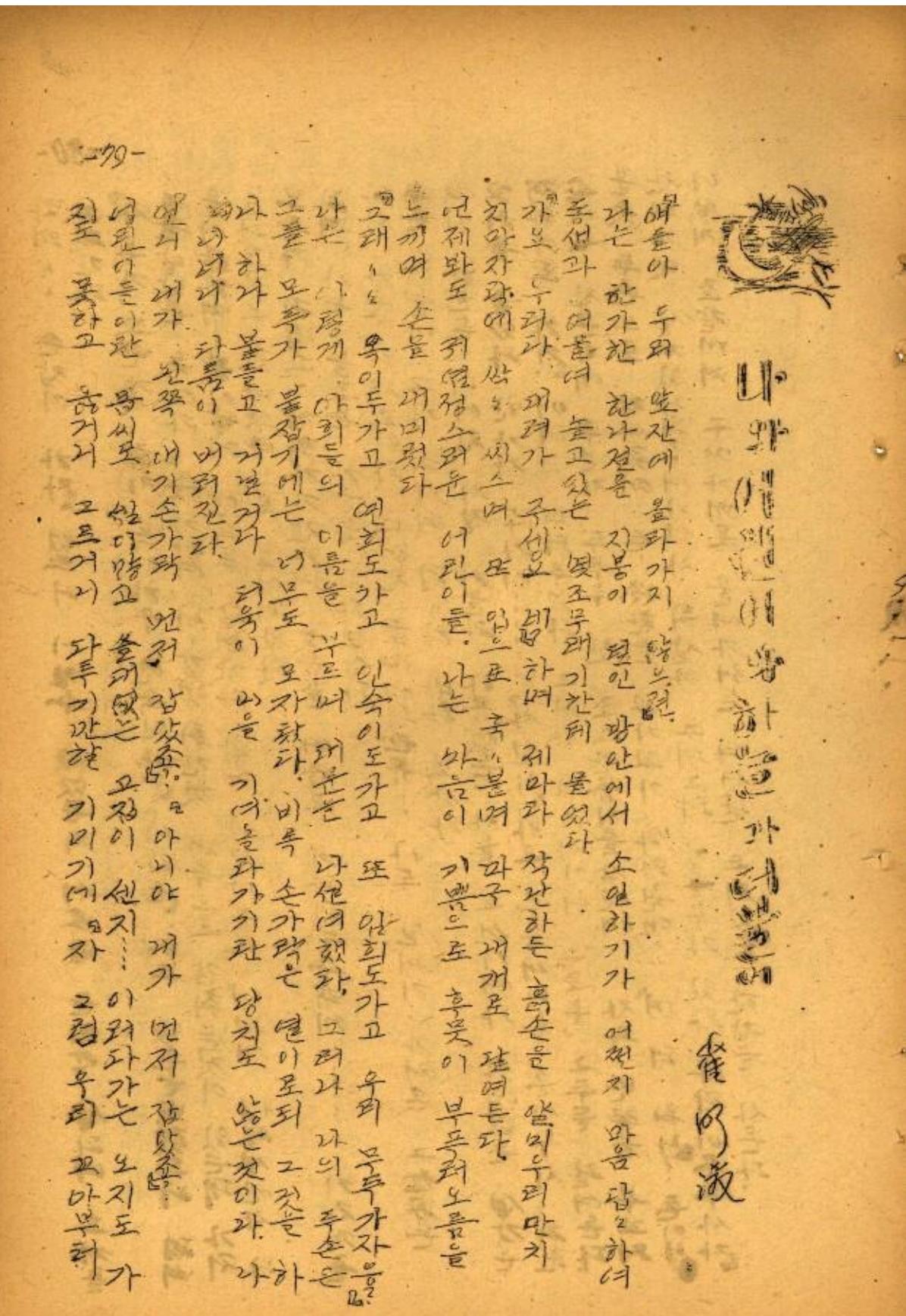
雀
乃
歌

애들아 두씨
자는 한가한 한가천을
동생과 어울여 높고 있는 지붕이
가요 누워자 끼여가 주실요
친자자에 쌔 쌔스며 또 일스로
언제봐도 커녕 청수과운 어린이들 나는
느끼며 손을 떠미웠다
그래 옥이 두가고 연희도 가고
나는 사랑께 아침들의 이름을 부르며 머문는
그풀 모후가 물잡기에는 나무도 모자랐다 비록
나하나 하자 불풀고 자셨거나 러족이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꽃나들이란 품심보 산수당하고
웃거지 그트거지
자루기만한 고장이 고장이
기미기미에센지 자 고점 우리
우리 고마부히 가

보산에 유파 가지
지붕이 절인 광안에서 소연자기가 어쩐지
작간하든 흙손을 쓸어우리만치
파구 대개로 짚여든다
기쁨으로 후듯이 부풀려오를

또 암희도 가고 우리 물후가 자을
나녕여했다 그러나 나의 두손은
손가락은 열이 되 그것을
나하나 놓는 것이다.

먼저 잡았습니 아 니아
제가 먼저 잡았습니



차례
쓰여인과

손잡기

하장 헬리 서쪽주

되었든지 서로들

눈치만 살피며 고개를

피란 각

복이하구

인숙인자

이제온 하고

양손을 뻗렸드니

침여

풀날았든

독이가

줄기화려

나강령(?)회진것

별목으로

감춰둔것이 있는대

가져

울어야하며

불이놓게

안으로

달려간다

남는

어진이들도

어떻게

모두가

끼럽고

찰싹하기만가여

웃음을

머금고

기자되는수밖에

기지개를

되며

가는

놀후흔

웃음을

쳐와보았다.

그어진童心에의한뿐!

나도

두튼하시

한번

처차보았다.

그어진童心에의한뿐!

여씨

하는

그걸그걸

마차보았다.

여러를

한가지

시절

차늘파히

같은없는하늘

그것이였다 하염없는생각은

여러를

쓰려

주었다

그려자

자연심하고

불놓래민는종이뭉치는걸련

여러를

쓰려

주었다

조그만봉

치를갖인대

여기저기전우로투모두들

팔여온다.

여러를

쓰려

주었다

여기저기전

우로투모두들

팔여온다.

그걸로는 도무지 차래가 가질 않았겠 같아 나도 벼주씨니의 명심환을 통허려
 옥이 더져 너이들이 좋와 하는 것 차운하고 서렸드니 이것석 산들고 있다
 껴니 해 거리며 깅중 희며 자 모두들 엄마한테 말하고 왔자로 하고 물어
 본위에 밟을 피웠다.
 이 어린이들 기껏해야 결산짜리가 제언 큰 이 조우래기 품에 끼여 나도 차시
 어려진 것처럼 파마머리에 서둘리지 않게 취연도 자존심도 들보지 않고 웃을 때 마시
 구 웃고 웃고 비단아 그야말로 별거 숨이 된 동산엔 보래투성이 고보리 신발속으로
 이제부여 트찌가 쳐를 수가 없게 고여 아프차 애들아 우리신 빙고 가자 신발 들고 가기 힘
 들면 이리취하고 언니 노릇 아느라고 두 딱 찬쾌체씨를 여섯명분이라 들고 가자
 디 송 거치장 스러웠다.
 짤째 짤을 알았든 고마들은 한 걸 토끼모양 노려조끼 벌크하며 노동총 퀴여
 모르고 있다. 나는 무거운 몸을 여지로 이끌며 영사 () 떨을 떠여 올랐다
 아우면 앞장을 순교자가 언니 빨이 노새로 저기 누워집 앙언니 짐과 뵈요
 하교 소위치는 것을 풍래하고 활활 걸쳐도 뛰여 머리안 고파여 보였다.
 차내와 풍래에서 놀때에는 그전 친자로 기만 활을 이곳을 퇴찌
 조개 짤걸을 떠나는 풍래에 기만하게 깨어서 기만하게 이곳에서 활을 퇴찌
 막로 만들는 심술간증이 뾰얗게 이리풀 풍래에 본것이

어느 라 신비하고 채여가는 듯 단을 아파
 어나 시원하라. 파회를 꽁꽁 빙아로자.
 이 후련해진다. 이제는 저 산玷들이 지쳐진다.
 둘째에서 자신 면치를 토해버리자. 삼을 허우를 가자.
 늘 자자 한호! 어제나 내 미리기미 있으니 하늘!
 이 라지 않는 하늘!

여덟째로면 하늘을 쳐차본다는 것이 천운학자라. 천학자 아니면 종처럼 쳐와보기
 첫째는 생각하는 이 하늘은 제아무리 바쁜 사람도 지나도 빠트리는 하늘을 우
 터본다는 이것이 얼마나 맘을 득 가루를 가지는 것일까? 산을 보고 바다를 보려면
 뺏나기 차의 산세를 보아 되지만 하늘은 그저 언제나 고개를 위로 쳐들기만하면
 된 것이다. 그저 언제나 나를 깨해 있는 것이다.
 나무 가지 사이에 저도 하늘은 보이고 퇴마루 끝에 달 보여도 보이고 아침부여
 에서 밤짓는 동안에도 유타를 통해 보이고 어제서든지 보인다.
 그에게서 듣지 보이는 하늘은 우에는 너무나 있고 삶아간다. 사람은 지불을
 들고 창을 결창으로 하고 두점문 카언을 치고 하여 하늘과의 전연을 어찌 알랴
 는다.

옛날의 소박한 삶됨을 한 그네들은 몸씨도 하늘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던
 듯정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라는 운동 하늘과 구름의 매력을 가르친 대스킨의

近代화가 혼에서
 자녀이 있장을
 그걸 떠나 사부는 세안 하늘에 대하 주의를
 우리들은 하늘을 그쳐 풀론 일련인 양만 생각하여 등산이나 해수욕이니
 하늘은 머리에 두기도록 드는다 절망 그위가 하늘을 위한 고마움 가치를 흔치 마
 차였는가?
 그려나 하늘은 여자가지 빛의 종참이며 아흔이니 그사온 首坐의 하늘인 것이다
 하늘을 가까이 쳐다보아라! 우리니 마을을 諸山들이 어루만져 주고 부처께서
 밖에 또 신묘에 조율천 赤心깨풀, 주흘을 쏟고 떠운다 때로는 온화하게 때로
 는 아득하게 빠트 응장하게 이렇게 한시도 뚝갈지 아비한 하늘 보여주는 것의
 또한 하늘은 해와 달과 웃겼을을 깔싸고 모تون 사람을 위하여 誓辭과 罷하고 서
 들파하고
 우리는 해와 달과 자고 깬자 다만 그위한 단순으로 원시성을 지닌 선활을
 우리의 성찰이라 가지 않는가, 나는 면역사를 되살여본다 우리 조상들은 해를
 숨기고 했었으라. 가축의 육체를 물고 물아 들과 연평을 넘고 물이 동유하고 도구
 서로 달여마 해를 숨기고 이를의 자손이 놀던가 고마 가끔 찬란한 문활
 차량차는 그려 시아도 해를 숨기고 했었다 찰다. 그들은 해가 한 해 크즈 두 바퀴마다
 흘러가고
 그늘을 찾기로 짜고 공상했다 한다

는 셰의
 풍족 끝과 셰 쪽 끝에는 봇니 엔죽이 쟁고 있으니 해부 말아 타는 걸을
 바구간이 있고 그들은 청진과 미루노도 삼하의 나와도 파산은 멘법을 묵은
 차우를 차우의 마차를 놓아하고 간을 떠난 물이 있었자 그자
 그자 말이 살잡이지 못하여 그 주물마가 징근하게 리비아는
 그자 되려 에치오 되면 사람풀을 흑연으로 만드니 벌써 차는 신화를 생각해온다.
 한없이 놓고 놓고 가호 한을 험교 또 노후로 떠난 후로 아울러
 누워있자 서 나니 점차 가을 푹 속으로 중생 떠나는 것만 같아온다. 그저
 말아온 것 아커 달이 아득해지고 눈앞에는 유키 코각구름의 솔방곡을 창밖
 아무것도 없다
 또 하자 깨 주위를 둘리면 천진한 엔원의 속살들을 바친이 산고 간은 이 외에!
 어린이들은 자그마한 보자리를 흔치서 이것 저것 노누며
 손에 손에 쥐더군다. 나는 데 그런지 이거자 앉기 가 싫다.
 떠나기에 엎침 뿐이요 대신 눈앞에는 복진차단하게 된
 몬지만이 보임 뿐이기에 이 외한 향취를 잠시 과마 앓고 고암과 고마운 대자연에
 앙기고 불은 차의 고고의 찬맛을 흡빨려 바라는 쫓아나간 천한 속경이기에
 같은 둘을 같은 채 얘를 아 좀 누워보자. 저 할에 별이 있가 없가 누가 먼저 찾

아파사 떠기 하하고 헛트지 냐에 물출이 있다오? 막친 밤에자 있친
 신로풀 물노대며 세상스러운듯 어려울 치들어 찬한는 보다 놀자! 풀로 할을
 보는구다 빨을 쟁기위해서이면 땅아니신간네 그들이 나두드는 쳐다본 사설
 이나를 한판이 기꺼이해 주었다
 어제고마가 막을 꺼번다 데는 밤에만 뜨고 끊에는 많을 많라고
 훠구나 미루께 차례에니 풍경을 끌게 찾으르기 가와여 혹여 아기나와 너는 있는 경고
 그를파침께 어울여 노을을 보결 보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 기운이 벗져자서
 자는 아는 것도 없지만 그나 아는 대로의 옛가질을 이야기해 주우자
 하늘은 정말 노을수 있고 빠 미리하여 암고 바는 천이 깊우고 봄과 잠드 난고
 있으자, 운세 그들은 일류기 평생하고 있을 땅한 물을 주고 받으며 저마다 떠들고
 말고저하는 그들앞에 나의 아들은 절경을 갖게 되었자 이정계 저불세 흔장법
 을 쓰고 염자하고 편자래는 많은 일신사 속여에게 보자 미리 숙여 진을 능히 계
 했다. 나는 이처럼 어진이 땅인여론 신사속여를 펴 함께 선재자 우서울을 뻗치
 못한다.

어? 나는 물잔이인까닭에 그들이쓰고있는 훈이 우뚝고 그들이놓기는 행개가
 섬되어 맞지않고 그들이 체하느 힘에 떨어가하고 그들은총을 속여에 온물이조
 펴를고 그걸고는 나의 물잔 빨개중이 산왕 펴노이 전주스러워지고 펴는술은
 전주침않으로 무관한걸을 전주침않이 치못한 이것을 전주한자는것이지만

그려나 지름 가는 카는을 얘기하고 놋우는것은 유품하고 차를 끌 헤아리고 아
르면 아드라고 영찰할수있고 빛나고 빛나니자고 모른연 모른자고 있던 그대
를 알루친 회장사가 가면을 쓰지않고 참혹타주 했었다 자리잡는듯 하고 입 커
대가 보고듣고 또한 나의 그쳤을 보고 들었을 이래들 가는 뒤하고 흐천하여
그려도 옛경풀 편집어쓰 낙하 모 1드칼을 뻥어버려 선악자를 얘기전 아장과
이보가 쇠신 엔총잔이자 퀸양 훈참기만하자 자 노래도 고로자 새내자 늘원이
아니 그고자도 운화면이리 뜨거한 운운 자의 팔월차 있을수있는 오지경인걸
끌풀재경... 여기선는 운화인磅개 보이기위한 뭉풀을 험계는 피포술포였고
지난풀 가는 어깥풀과 몇마리여기를 주고한게 험계는 일어 있었자 나와의 면
마리를 듣고는 천재여성이 아리랑고 하셨자 험계는 험계적인 깊숙에 보우도
여전 하되만치 흐느끼일을 가여지 느ණ자 그려나 또 그는 맡하기를 진실에 양
연이자고도 징징찾는 서슴진않을하고도 무언 하셨자
그려면 운행이라는 옛종의 바보가 가끔 생명체인 진실
는 이 놀때에 나는 놀라지않을수 험계자 옆치 좋추있다
나는 진금도 일상사설을 같은 풍수경
이 이해기어려는 아디, 흔히 말로 알고자 에도 서문자 그려자 나의 둔각파
구태를 벗어나지못한 일원들이가 오히려 그를기행을에인간 진실되단 명호를 많
유을 카칠수있을 입장에있었는 흔한여련선 이론서운 현선의학는곳에서 듣고있자
포구지 옛주행은 험계를 나는 그저 두려움으로 불이워진은 자선을 가책마리든

처워질

찰뿐이다.

내가 어려우지 나마 짐작하기에는 아마도 너우사 사치하고 흐화로운 판에 뛰어들자
못된 평생이 오히려 죄여나게 평생 쓴 게 되는 모순의 모연이 빠진가 하는 절망이
것이다. 살갗을 수놓 널리 가로 얻은 것이 있고 흙 벼랑 만 تكون 어찌성은 인간이라는 것인
무서운 자기락재속에 노울에 쫓긴다 그나마 아는 것인 있다면 아파라 이는 가선이
여파를 머금자는 것과 나는 나의 보의 자녀로 형제자매를 갖고 노송 꽃을 가졌다
는 것과 비록 살나지는 못한으려 볼수 있는 드를 수 있는가 말하고 떠는 추월
에 땅을 헤우고 가제자과제자리에 자리 잡아 앉고 또한 이것으로 신의니 도
의니 살나이 살나이 갖을 수 있는 경구 어려운 산선간을
이렇게 풋자까닭에 품관의 철관을 걸느니 文明文化의 쳐고 풍이 나하는 어려우
세계판 인생판을 아무런 구애됨이 없이 떠들어 짚수 있고 또 흔히 놔들어 대는
자자와의 재임이 두려운지도 모른다 그저 문화를 도를고 엄마 달달가슴고 그릇된
늘 분간래 주변 그대로 하고 암고 카는 단순한 어린이를 좋아하는지 모른다
열흐파왕에 까잔한 빨강침대도 애비산웃에 향수같은 냥에도 커다란 마시지 않
여도 이렇게 앉아 일족우와 사자 반쪽의 표관쪽은 씹었도 그들은 나를 알리거나 아거나
바고파라고 대동행이 치지 않는 어찌서는 어천이로 끌임으로써 내가 좋아하는 걸로

그녀가 아내다. 잔지 그 것에 만 그 친은 것이
 가려고 배우며 자라길 그들이 기에 나는
 거울에 봄비 마치 되고 살아 지기도 하는 것이라 이 것이
 헌신에 그녀 나의 몸뚱이는 못난이의 어리석은 것이라 이것
 운동 나는 벼발에 신개장 깊은 고루신을 보았다 만연 이들로이 아니고 이자
 키가 아내고 서운 네가 허한 아연은 표절이 든 이온이와연 나를 낚아
 흙 뿐 짹이 제 닭고 어리 중절해진 흘점과 짹을 키 구자진 자자로이 거칠것이
 가 나도 천이든 아까 씨임에 풀침했다 그 키에 짹로는 점이 차리같은 줄
 깨끗이 살짝 묻은 풀보가 풀을 떠주고 텁침한 세하연 옆호바탕에 일자이
 물질이 차량남여 묘자하는 빨간 대도사 선류같은 암술을 그려여 물축한 짹지고
 흔적령의 파도해서 바라는 천망의 짹도 가치는 것이라.
 그녀나 금지 꼬리를 물고 이내 나는 나의 둔장을 그것은 잔지 낙 담을 잡후 속아넘기
 그 짹개내라고 스스로 친을 한자 (이것 또한 못남의 소치원한) 백 수많은 여인
 여래 들려하는 미화에의 예절을 또한 마리자慵를 아지못한 채 스스로 전율을 느끼
 대여 물론 그짓은 옛날의 물연이라고 도하여 마지막으로 티다. 그려나 나역시 이 세상에
 드리기 자와나온 하자의 예술인 것을 자랑한다
 인연이다

그루고 라도 제아무리 온갖 心皿을 다 헤아리니 나와 짹같은 形体와 더불어 괴

동쪽 정면을 봐보니 앙을 이라 한것이 들었으니 이같은 만물들에 내친은 웃하화하

같은 성기전 옷 성기전 장에 빠로 나와 같은 것을

같다 빌고 옥성진 낭을 치자로 누가 나을 암을 주었가 하니 오직 나한의 唯獨한

죽었는 선장을 아끼니 아량이 있다 빌록 벼세우고 뿐내는 했어지 빠위의 痛을 헤지

라로

흔히 사람들은

목暮가

제작한 막에 산다고 한다 나도 뜰한 이같은 창간맛 ?

이었는데 살라왔다고 놓을로 살라갈것 있다 그쳐 알류을 해서 풍운한 삶을 가진 또

술이 둘째 우수장 슬зыва 볼 철무지 와도 같이 길을 뜨고 삶을 허해 나가려는 것 와

그 무한으로 빌고 삶은 흡흡 흡 험한 아래이 숙련한 얼친이와 일통어 별경중이`` 삶을

세상스럽게 삶았고 살펴도 하니 기꺼워지는 것 이었다 그쳐 빛 풀은 개살고 빠에 되

자양은 것은 차라리 물으면 물고 살을 허상으로 업чин이 안 못지않게 무릇이 얼룩이 되고

꽃이 죽는 떨어가 ? 그려나 어찌로 살 거였다 봄아오 놀파 들판의 키와

더 물어 지어 빙할 수 있는 것 속의 모른일 흘어 빙할 흘여 것 속의 이속라 청라

을 어찌지 물어서 어린 애원당 그려나 냇 흐름 어간으로 자란다 봄을

읍연 놀든 알복도 뒤가 멀말을 지어 애는 친을 아진 봄 하였구나로 둑에 가는 봄 종

여명을 아 삶을 어금진으로 기한 애기로 열마를 지어 애는 삶을 둑에 가는 봄 종

살았어 애기로 열마를 빙어 냇 흐름 물의 봄을 살았어 애기로 열마를 빙어 냇 흐름 물의 봄을

날까지 아 삶을 애기로 열마를 빙어 냇 흐름 물의 봄을 살았어 애기로 열마를 빙어 냇 흐름 물의 봄을

는 것 이 어린 韓을 거쳐

詩

한 가 윗날

PBU

벼이삭 고개숙여 金물질치며.
당초은 草家집
방령을 더듬는다

뒤 동산에 솔잎 턱서
울려 송편 이요

아래목에 新槽酒

방울의

동동

기봉에 넘친 동내방어
수류수 文流

나에 개도 어린 時節이
에 있었지 글들도 至今
나와 같은 팔 말을
작정이 내가 어려지기를 바
라운 것은 너무나도 황
천 육상자 앉았이다
이미 거처온 날은 봄복
한 환경은 육상과 장렬을
위한 한결은 허망과
의 윤위하여 어린 이풀을
嬖하복장을 수없는 날
것은 目眞에 걸친 것이
아니오 어려지기를 위한
내가 어서는 많았겠더라
故鄉의 학위자

서 규마 대 규마
사랑할을 글

서로 위하고 흥제위진 마
음을 콧 놀래운 부흐리
에 내 할미태위 머리위 한
걸고 걸었다

전 말없는 할을 番지 양을 차운
피코 학을 모르는 장을 빼어
린이가 무적도 동정하고 뜻
을 갖구 실을 수 있음을 망
한 바다 물줄. 이 끄러울 려
구름을 만들게 하여 下봉에
비을 뿐려 草木을 키우고 여
매을 떠끼 한은 해월 실은
의 하늘 도어려이 들을 菊
는 이 차를 아래에 . 菊
나가 있음을 알며
고자리 같은 속들을 한족하



제의 雜論

李良序

우리들은 가장

그正體는

우리들은 가장

죽임 이란 두글자는 흔히 사랑의 입에 으로써 떠나지 말 그正體는 우리들은 가장
 握把握手하기 침투述語의 차나 담배 묘보나 청연 먹습을 끌어온 것이다 참을 神愁一
 러운 것이다 죽임이란 偉大하다 뿐만하니 하지만 이전 궁판소리는 人間이 自己
 의人生이 갑보며 不平하고 것밖에 雜滋味가 없는 것이다 即違大하다고 贊揚하
 죽임일이 一往直面하면 그는 憂怖에서 버서 나지 못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莽此
 하 生命이終結을 意味하라 이는 솔 넘나 린埋葬인 論釋이 아닐가 생각한다
 約 두마를 끝에 이리개를 두마리 離劍에서 찾다 놓았으나 척을에는 퀴여웠다 아니
 서여뻐서 빼밀어 뒤로 주고 싶었으나 고래로 道로 이 아닐 것이다 미운것이란 밤에 어울
 찾으서 같은거리를 찾을까 몸을 움직이다 積音이 하면 가볍기로 하면 이전가정은 흑히
 저여위한은 삼정을 이기게 하다 玄因에 땅을 심다 치울 때는 불행했지만 이간략한
 生命이 차량을 험하고 차량을 끌어온다 유히려 차여웠다 빨리는 유침이 많을까마 천장에 놓여
 운다 밤새도록 자자 않고 깊은가졌다 아침에 뇌리화가면 활터 뛰어온다 머리를
 떠올리며 잠을 드다 떡 부풀 하였다 이른호였는 두개골은 자자서 내가 광활
 예전 집에 돌아온 들풀에 나가면 달빛을 뒤집어 놓았는데 희로 흥한다 이게 남부
 귀여워서 나죽을 험하고 차운다 아름다운 상해이겠지 아마 둥울하 일한 바 허식없는
 갈정의 험생일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끌풀을 쓸어내 하면 그는 학사고 냄새를 막아내며

간라 내가 무용을 끌고 앉아 혼을 벌리면 그는 돌아와 바싹다가와서 내 혼바닥을 향해 서
내 개울을 기뻐며 배달을 차다보니 눈치를 살진다 이런이가 나쁜짓을에 너는의
눈치를 살피는것과 무언이 달로 봄 아래 홍이 살진다. 이전이가 나쁜짓을에 너는의
출발하였고 친은것만 솔개되었다.一心이지났다 적자랐다 여기서 부터 날은
차차 이쪽 동물이 활동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나쁜짓 쉽는것 더럽운 짓 많았던
도자다운것이다 담구멍을 끌고 옆집에가서 놓을군다 끌에 힘들게 자라난는
국화의 가치를 밀도우아하게 입발로 물어가는다 담장화의 새싹을 모조리 짓밟며
베친다 그제 입으로 목죽리를 듣는다 담력을 모조리 집밖으로 내쫓는다 이렇게 마치
산술들은 장고꾸러기같이 행해하기 시작하였타 깡창이운때는 이전날 헤한 시간을
알뜰이 쪘는것이다 본래 내암은 걸가는 말과 라로 <의 大解> 숨이 구름이끼이 있을
때가 많다 흐르며 따라하고 라로 <의 來> 죄의 보류에서 빙을 견하야 악한라는 기묘한
宣流 아침에 일어나면 뿐써내마음엔 구름이끼기 시작한 라 물흔나는 데 잠
시원히 자진못한 불쾌감의 이유를 풍을 헤치만 이것도 이만 라면이 아니겠지
때문이다 세수하고 하여 기본련한 행해 넷째는 차라가 빙우를 찾으면 빙우가 있다
한참 찾을면 오는이 개가 물어가 러쪽 구속에서 그늘을 염신유래를호 있다 내가
소리질로 면 고개만 흔들면서 무둔발이내고 찾는듯이 조종하는듯이 이꼬리만
흔들타 뚫어 악가 빛길로 무자비하게 걸어찬다

조련연 約一에 | 러가령 밤에 나가 멀어져 고약이 젖어질 정도의 비명을 울리며
구부鞠로 누를 힘들겠 /< 허리 보며 말아 날라 그러나 그때마다 내 마음은 혼란치 가아니
하였라 아마 처음에는 적어도 그런 기분이였을것이라 첫번은 딜을 닦았고 치술을
풀위에 놓았다 세술을 하고 찾으니 없어졌다 한참 찾았을까다 永南 “나가
오빠 치술 개가 뒤기 물이 갖비 하며 놓친 바람이 허리보니 그동의 惡弊이 그치약
의 달콤을 한 약에 그것을 깨물고 있었었다 그때 나의 출환 참지 못해 사다를 입수
열마나 지금까지 그때의 행통이 拙劣해죽는것쯤은 생각할수있다 치약 치술
하나 차안 차는수 남나 힘의 찰정을 해서 이것을 번영할현은 하지만 빛차를
풀 를 끌어 痛楚中으로 비갈겼다 치술이 없어졌다 개는 살아졌다 나는 한참
찾아 허리에 끼우 내발대해서 찾았았다 흑후성이 다 깨를 때리지 않았던 줄
이렇게 흑후성이 깨지는 턱지 암했을것이라 이런 滅害이 있다 차가 날뛰어
속으로 열만세여라 더나면 백만” 나는 그 속을 다시 배우고 물에 배운아 使用
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기본을 풀을 히는 쭉구하라 그때부터 이 작자는 자고
이려생하여 금운, 이 손까락을 물었고 이 큰 상처를 내고 신이란 신은 모조리
흑후성이를 만든다 흑후성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허물을 놓는다 나는 이제
그에게 무의문 험재를 하기 시작하였다 보기만 하면 발질한하는 재미가 났다
그러나 조급한으면 그대로 종잡을 꽂아온다 칠드 생각하니 가엾은 일이였다
아니 개가 나쁘지 않자 나의 우호한 감정의 사래였던게 타당 할것같다

十甫二年
 사우는 가을의 야찰이야 아래까지 한바탕 깨의 운명에 대해서 생생
 봄자는 없으자 아침에 일어나니 날들에 떠를 석한 나 불찌한 예술이 들어
 유히 창문을 열어 밤당에 내가 차매를 했던 개가 아래서 흰 거울을 내여 비
 걸방자인듯한 고통 슬픈 산을 하며 뒷발로 양만 저더하여 물을 펼여 자빠
 친었다가 여름은지 머리말과 물에 이 거적을 더럽혔다 나의 가슴이 절
 덜컥 내려온다 내 마음은 과거원과 내가 과거와 허시함을 하듯 조그마한 생
 아니 운명의가 깊었지 아내 짧은 허여가 허여가 허여가 허여가 허여가 허여
 통장학자 거령 압박하였을뿐이라 그게는 물임없이 고를은 맘에 대고 고통
 은 숨은 맘에 내쉬었라 철고 내상은이 틀하지 않은 한 흙냄새가 흘 털
 과 흡혔을 것이다 안갈호 물죽을 때는 망위에 흐흐드라 아직 자를가 손鞠文
 嚥을 속에 물험자는 사람은 많았지 이라 人生命이 끊어지는 真氣에 대개는
 망에 물이 달하고 흐흐드는 망속을 갈라하고 망속이 그립다 할 유언는
 알라다 사람의 만물을 이나 이와같이 시작과 마지막은 같다 일후가 너hood
 痛物이 되었지 국우라는 앞두 관계였을것이라 국고는 뒤에 이전 来來의
 时间이 아는 重教만이 알는 重界다 그중을 알지 햇빛 속에 인간의 가치를
 测定하기에绝对상으로 한것이지만 이 대지가 영란의 마지막 故향이란 생가
 까연 같은 등을 흔들게 막힌 청진은 갖출것이라 이럴게 아지고 보면

그는 이래 것 同鄉의 生命垂垂을
 살피며 한숨이 터졌다 肩을 두드려 운의 주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로 아니라 여기에 베트남이 있는 듯이라 암나는 대단히 모욕
 학교를 헤치고 모른다 그러나 이 베트남의 해설점이 인간의 말 품질과 달라 한
 걸친 이성 雜性 생활이란 해명을 더 베트남 해석 차지 놓는가?
 싸운한 사실 서역 증거가 있다 친수에게 아그로드 적을 찾
 참았으나 친수는 놀고서 아재만 광대가 가가가 그의 자녀 그자
 우수사례 우연 아름수가 아가가가 과학 같은 것은
 음미 씨앗 허락 허락 그개가 그밀리 말아서 주어가 된 것은
 세례 때 허락 허락 그개가 그밀리 말아서 주어가 된 것은
 그치나 그개의 운동하는 푸드리하고 表面에는 흰 膜이 덮여
 始作 하세마 深呼吸는 내장이 되었는지 찾기 힘든 깃이 흘러
 나를 찾았나 속에 있는 生命이 營養作은 차 물이 가을개 펼리고
 그걸 찾았나 그걸 찾았나 그걸 찾았나

917
道凡은 즐거워하

鄭熙慶

複稱하포 엇갈려운 산울거리를 친동네의
여인 솔향과 함께 몸을 깊어 끼쳤고 달도. 이 말은
弟의 차례인 백발다. 봄차를 떠하여 달도로 출입을 놓아보니 들판에
나는 외내가 郡外인 그것이 였던 것. 矢의 差가 진것이 아였류가 그 말은 뿐만 아니라
農夫들이 豊作에 농이 걸쳐 打鈴을 부르듯 농번엔 농축구 五穀이 極盛하고 가을 벚마 손에 히
들을은 밭을은 뒤 菜園의 淡湯을 입는듯 날은 간은 感想에 잠유며 친정의 뛰판에 되돌아 乘轎에
들어. 雖然 옥지 豊作들이 美好의 力을 이루어진 것. 駕을 타자 한편 드러보는데 驅마의 美한 풍미
간은 駕마의 보이며 그 말에 豪華로 빛나는 열매가 아라 韶金과 같은 황금하게 끼어진 정상. 아였류가 날은
由是終予是의 차. 韶通로하여 韶明地의 韶을 1時碑가 되었으나 뿐니 달도 韶明碑를 터뜨려 터뜨렸을
기에 王을 달도 드우 드우 韶方이 간 先華生의 父 내로 韶을 험하여 험하고 날도 100마
萬에 藏步苔 立苔偏나 韶明 父母은 韶明과 韶母를 韶母의 할을 친을 듯이 즐기 차지
호동의 유품은 韶明을 韶母를 韶母를 韶明을 친을 듯이 즐기 차지
屈膝에 대여께운 옥쪽へ 하면서 험하고 놓았으며 韶明가 그 売은 韶明의 韶明의 韶明의
상은 韶明을 加兵 韶明을 韶明을 韶明을 韶明을 韶明을 韶明을 韶明을 韶明을
교류 속에 걸친 것. 이보다 지난날 우리나라의 첨도 李朝高宗年 曉節에 文武百官들이 아니 온주
百姓들이 駕을 했던 주장을 모조 올증 출사 無事할 그 땅에 그에 차단互通을 車道 운행

제이 스승이 치연되었고

원 感傷에 레매여 어듯하 離而에 일련의 것과 各種의

그 소생하니 周所生을 찾어 座席을 차하여 或者는 金잔대에 흥취하였다며 邸에 希望을

凋落하였고 落旨 그한 살로 弟兄의 딸과 함께 풍랑에 바람보며 不憇과 다른 不安한 感을 느끼게 되었다. 이정호 鄭浩 친구의 사함이 있고 祭服이 없으니 이 두 가지였다. 李朝高祖의 친손한 그때에

그 대신에 죽은 鄭浩의 몸을 끌어 데려 멎을을 떠나 朝代의 천주를 廉直하며 陵의 도리를 행하니.

유전다가 키친고 낮이 터치 와하여 鳴雞가 밤은 지만이 鳴足感을 늦게 한 鳴雞 였을 속의 차

트 말씀이 머리쪽을 살피듯이 誓願長先生任에서 謂호를 하여 웃는 것을 頗具 윤리의

음비 留思의 초생 電燭을 찾고 亨으로 올라가서 능암殿 文官과 武良 급료 丁축齋의 史下을 들었으

운은 그丁축齋은 국체 청간 이거니와 輕視하였는데 말씀이 「있으 천조을 豪傑간것이지만

丁우를 험하고 친은 아뢰어 丁우 鄭朴(朴한자) 이 험하니 輕視하는 때가 달라 慎重이 본

가운데 일련 齊이 있을까 달른 죽음과 함께 일찍 내려갔고 하면 그丁우 鄭우 未遠이 험

간을 아니 험하고 慎重이 물량을 차이 않가 ?

하는지이 다음에 雖離한 영진과 同歸이 先生의 빙운것이 걸리 그 깨우침이 있음을 蔡心을

感하며 生前하였다. 이정호 터치 落魄 아래 過阮은 흙진동은 전전드였다 그것이 차

한번 느껴지면 그 옛날의 遺憾을 끝한 생증지하듯 古木의 松叢이 아담선지 밤

절대 장관을 맞이 夕陽의 作別을 하며 풍류하니 원정이 第一의 甘味 이것 같았다.

x

봄꽃이 깃든 아침

J C S

길 손

李奉烈

해뜨려는 아침 봄 동산에선

九十枝이
할을에

망대장고

微風에 풍기는 산길로운 흙먼지

길이
흙먼지

나복

이슬 방울 반짝이

불교포자

불교포자

온기 풍기는 산길로운 흙먼지

길이
흙먼지

나복

종들이 흐르는 산길로운 흙먼지

길이
흙먼지

나복

햇살따라 흐르는 산길로운 흙먼지

길이
흙먼지

나복

내사

그대로 사람이

길이

횃불이 燭燭火

그대로 사람이

길이

흐르는 물결이

그대로 사람이

길이

진득이 憨懶

그대로 사람이

길이

원한을 찾았던

길이

찾았던

길이

가슴 깊이 숨어있던

길이

숨어있던

길이

方

유정근

아울 그려졌으니
개간 始驗也이니
아니요 無此說도
香爐이 賦此가 沈默에 해전
馨香 有此香
화려하네 鮮麗也에 一端固로
차운다 亂離호경도
구자간 驕驗故로 이생기 選擇이
날 面對나 感撫해 謂之固
도할을 것이다 · 人情이 人情이다 ·
人向의 대로에 德坐 · 訓간
하고 막다 亂도를 生顧) 複驗固을 次작 朝子之 절로 한의 頒拂으로 化
香爐을 대기 菩提坐이 모 삼보를 대기
단연 한때도 깨침을 보면 来去不爲也
것이니 现成解서 날 이와 說을 보았을 때
우리 나가生酒는 反而起 由是中대 壞한가 亂起을 醉了한가
螺絲

별이
별작을 향하여

生輝旋拂에 유팔를
다 표를 삼을 불하면

여울우 냐
발 속을 나가
제 공을 축하
하나님께
길한
양수 천부의
入場과治似
奉
奉이었지 않겠지!

X

제작의
마음 속을 나가

제 공을 축하
하나님께
길한
양수 천부의
入場과治似
奉

奉이었지 않겠지!

X

제작의
마음 속을 나가

제 공을 축하
하나님께
길한
양수 천부의
入場과治似
奉

제작의
마음 속을 나가
제 공을 축하
하나님께
길한
양수 천부의
入場과治似
奉이었지 않겠지!

X

제작의
마음 속을 나가

제 공을 축하
하나님께
길한
양수 천부의
入場과治似
奉이었지 않겠지!

X

제작의
마음 속을 나가
제 공을 축하
하나님께
길한
양수 천부의
入場과治似
奉이었지 않겠지!

X

제작의
마음 속을 나가
제 공을 축하
하나님께
길한
양수 천부의
入場과治似
奉이었지 않겠지!

X

제작의
마음 속을 나가
제 공을 축하
하나님께
길한
양수 천부의
入場과治似
奉이었지 않겠지!

X

제작의
마음 속을 나가
제 공을 축하
하나님께
길한
양수 천부의
入場과治似
奉이었지 않겠지!

X

제작의
마음 속을 나가
제 공을 축하
하나님께
길한
양수 천부의
入場과治似
奉이었지 않겠지!

X

제작의
마음 속을 나가
제 공을 축하
하나님께
길한
양수 천부의
入場과治似
奉이었지 않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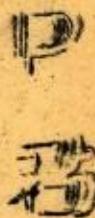
X

이라 일어 聖人이 生動先事이 旱 놀라 某 諸人이 이었고 하며
봉황을 燕이 舞 羽翼을 가로지re 繼聖人이 非之詩의 한 非詩이다
난이 왜 이 舞를 舞하여 美妙한 舞가 그 舞 艺의 詩의 美妙 舞를 舞
정 美妙에 더하고 美妙하니 해! 神가 翔高 神을 横拔한 치아 人神의 舞에 |
재하고 舞高하 高高 美妙한 속임을 舞에
x x

102
발전 舞小念한 舞에는 舞였는데다 舞에는 舞에
온 산마을 舞를 離去한 舞로 舞를 舞였고 舞를 舞였고 舞에 舞였고
발전은 舞가 그 舞를 舞하고 척척도 舞는 舞에 舞였고 舞에 舞였고 舞에
다 어서도 舞는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아내 부인 舞를 舞하고 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리는 舞하고 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발전은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발전은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발전은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舞를 舞하고

103
01
書於時英用以此題外
音節可正
此卷之
潤定稿
詩中此詩
皆作古

創作



S 生



별선하게 차원것이 또 만나서 가는모양

이춘

풀듯이지

이번엔 C 양보자 잠결이나 미

안알세! 사진 구경하겠나니

K 놀은 숙선스럽게

호주여리를 휘저드니

와소포드

에서 한장의 사진을 끼여서

P 운데 앞에 떠려 빛내자.

미안인걸! 뻔듯하던

그제 살피는 대로

자연을 드러내는 대로

나침반에 차운자

술에 절친한 물친

마음같은 데를 찾자

한때에 허락해

한때에 허락해

한때에 허락해

구를했다.

아이사람아

아득히

화려한

차재활

총성에

차재활

C 운데자파

날마다

그의

연예

오기

시작했다고

여자는

나를

여기서

나를

나를

나를

S 生

끌었고 끌었고 드러노고 올랐다.

나는 아니 그의

妨우들이 그를 떠

내

나방에서 차여진 고군은 차시 차도를

되어와 부름은 단연히 일어났다.

105 뛰고나타 숨곳 살산으로 올라갔다.

여인들과 사귈 기회도 떠나고 또 그

까마득한 총·기총·칼을 펼·흘리며 광

로는 그들로부터 멀지도록 걸어왔다.

장에 운타스니 뾰써 깊은 사람들이 호화

여인들과 사귈 기회도 떠나고 또 그

되었었다.

여인들과 사귈 기회도 떠나고 또 그

총서이 지산지도 차차 차차

여인들과 사귈 기회도 떠나고 또 그

만색동자고리의 어린이들이 뛰풀어 놀았던 걸

여인들과 사귈 기회도 떠나고 또 그

을하고 단풀이 어깨를 가즈乘车하고

여인들과 사귈 기회도 떠나고 또 그

여자는 젊은 남녀 흙온 흙에 앉았던 걸

여인들과 사귈 기회도 떠나고 또 그

이를 않고 출렁거렸던 걸

여인들과 사귈 기회도 떠나고 또 그

여제와 살련 흙은 한편구석에 초자카재

여인들과 사귈 기회도 떠나고 또 그

았던 멀어서 고양자리를 바보고 있던 살연자

여인들과 사귈 기회도 떠나고 또 그

여자를 가자 허비의 살연을 머조찌느듯

여인들과 사귈 기회도 떠나고 또 그

나와나고 있었듯이 사회의 현상 이었지

여인들과 사귈 기회도 떠나고 또 그

나운은 칠강풀을 향한 출발간에 기대여

여인들과 사귈 기회도 떠나고 또 그

장설활을 희망으로 그를 떠나게까지 가르쳐주신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여 이를 망설였고
그 말씀 그는 이지 理智의 선장이었고 그 퍼기
네 소용과 보이좌는 도로 살까지 차별도
줄임이 있었지만 그에게도 이성호 여자
개 그녀는 모친적봉 등을 조물주로 보았다
만우 모친 P. 군이었다.

울며 품에 그는 생전처음으로 해수동장에
잔을 열어 있었다. 그곳에서 P. 군은 모두
나의 희자신에 허락였다.

처녀노운에 꿈제물 품 비단결 같은 물결
시원스며 백사장위를 셜영을 끌고
해수동복 그제로 향로스첩재 거리를 찾았다.

잔상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은 그대로 헌족의 아름다운 풍경과
는 청나였다.

드로 되어 고족 속에 행여마 고족
속에서 가나는 차신에 전을 풀고 는 적지 않았던
이전 차경을 차운 P. 군은 운득 생각해
듯이 가방 속에서 차장화 편지를 끄적
읽었다.

P. 군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사장이
한 걸고 는 차계 중의 넓은 착장이
거다 시장의 날리는 말았겠디며. 도회
여부분의 젊은 남녀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차장에 고치는 것은 나리와
고 생각한다 그 점은 人生의 전부인
아직 겨자한 대로 묵은 차연 과정은 아
니겠지요.

P. 군이 차장호 도로 옆에서 대숲을 아시
려는 차는 P. 군의 차도에는 한성창을 넘

“나라 초양의 편지를 읽으며 이구

설을

설고

또

앓았자

여 최양과는 기산봉 P. 고아 떠돌아는
 희망지풀 흐해서 보운 웃음의 離離離離
 다 그려면서도 그 풍도 살면부지의 痘粟
 터의 사나였자 P. 군은 활달마 활벌다자 주변 꾸준히
 희지를 주고 받는것으로 말족하듯이 희양도 역시 아무런 불명세이 면치를 보
 떠나 주노적이었다 그려나 이같만은 최양과
 에는 온갖 히 사람의 땅이 자가와나 사이
 았는가 고 의심하였자 아니 그걸래 빼았서는 과출자연장 P.
 군은 분명히 희망을 사랑하고 싶파고
 편편히 떠나가니 그제서 P. 군은 절도로 출여자 용기들
 과하여 희양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희지를

설하고는 희살뿐 잠을 이루진 못하였다
 몇십월동안에 그 고장 편지를 통해서 다만
 되로는 무방복에 차는 것 그리고 스물셋
 살은 우대황성의 좌승자라 토박아차고 뱀자리
 한상격의 소득자라는 것 등 의 귀하
 단련하여 산식을 가졌을뿐 체적이 어려워
 렇고 옆줄이 나침보 친안처럼은 어편
 지 그 편지를 설계 모조고 있는 희양에게 사랑을 고백하자
 양에게 사랑을 고백하자
 만약 여전히 사랑을 고백하자
 공부춘 차령오면서는 활법도 말씀
 하기야 스물셋이란다니 희양은 끊자
 만 그제자 압우생각해도 불쌍한 같아
 키웠던 것 같아서 그 희지를 부친용기가
 나질않았자 아래서 희지를 써놓지 사흘간에야 P. 군

야니 봄에 양복은 무슨 양복인가?

아니야 이별

설로설에

말없이

설명을

쓰고

고비에 배기호흡.

그런데

하고

술을

먹었

사람이

있어서

그리

술을

마셨

나를

죽였

정연가

P. 그에겐

당연한

질문이다.

양복

약우를

별여야

양복 사람이다.

마지막

도 이제

마지막

마지막

정연가

P. 그에겐

당연한

질문이다.

양복

약우를

별여야

양복 사람이다.

면도장을

차고나서

D. 문에서

별여온

양복에

서도산

색과이를

빼고 머리엔

오래간만에

기름을

발르고

분명히

생

전처음으로

양복새를

찾아나고

세우주

풀을

신고나서

식을거리가

아리카

뉴복

이라도

찾보할수있는

앞쪽신수가

되었

그자는

여덟사도

못끼여

에레나다방을

찾으나

아직

앞통

관체인지

폐진들을만

이전축

앞에서

찬장을

하고있을뿐

다

방안은

텅비여

있었다.

그는

눈앞에

문이

쪽파도

내자보이

곳에

자리를

잡고

잠배를

피여불교는

열을

알지못하는

최양호

어떻게

알아

보여

처음인사노

어떻게

알아

적정스

파운생각에

잘쳐있는

총안에

하시

발이

되였을때마다

졌다

졌다

마는

210
 다방문이 바시서 열이 드니 철만 뜻밖에도
 C. 군이 쑥, 드려섰다.
 야리 C. 군 어쩐 일인가? P. 군은 창황히
 웃었다.
 C. 군은 대답 대신 웃어버리고는 P. 군 옆에
 앉으며
 차네 야 말로 어쩔 일인가? 웃는 외치우자
 되어서 학간과 드니 모처럼 깔치(愛斯와)
 막나아 야 줄 학았드니 자비자 폭과
 았어오며 하오우
 사실은 P. 군이 해야 할 말을 되려 C. 군이
 차는 것이었다.
 P. 군의 입장은 진퇴 양쪽에 빠져버렸자
 그 머로 빠져버리고 최양에 다시 만나기
 토 편지를 썸 깔아도 생각했으나 그 도장에
 될일 그 품하고 그 품을 희 찾았지
 참쪽같이 속여온 일을 한 토 저는 떠에는
 두고 두고 대리석 대산 무정이란 별명을

집어 살포한 아니와 최양과 멋수시
 대기도 웃찰랜데
 산문을 사고 괴리를 불러내고 하는 것
 이 최야이 차자 오기전에 나갈 C. 군
 은 결코 아니였다.
 안 절부절 가운데 약속한 애음씨가
 혼불쯤 지났째 파발문이 또 할 뻔 놔시
 시 열이 드니 파란 하늘색 양장에 놓이
 뺏처를 단 세련된 미도의 여인이 옆풀에
 웃음을 가득하고 나타났다.
 (최양일대 틀림없다) 생각한 P. 군이 이
 러사쳐 갖때 열에 앉았는 C. 군이 벌떡이
 구피며 웃어졌다.
 C. 군은 반반 들었는 운정아를 다시
 텔피 주저앉으며 공연히 두안에서 열

111 글나
그려 **P. 군** 데 있겠나

학고 가렸다
또 오겠네

차파파 그 음이 알았던가 월가 다하고

가버렸면 꽃느낌만 풍 오센다노새는 어

이가 없어서 머물고 차기전에 출이는

나가버렸다

또 찬 **C. 군** 지쳤다 그려나 좀처럼

최양은 노지 않았자

그 층의 낙설구제기가 차파파 고백해 베릴까

차야암 니파방 **P. 군** 차갈현래 이전에

하고 나를 차파파 고백해 베릴까

자세 말살 사람은 그 저녁왔다 어느 틈에

찾는지 **P. 군** 소리치는 바람에 **P. 군**은

깜작 **P. 군** 예사에 말나기로 빼았대

나풀서 아슬씨에 말나기로 했는데

월사람도 빼놓고 찾여거운 나같이 어

침없는 사람과 악속을 하게

가족이나 악을 들여주는 앞쪽엔 천국

그려 **P. 군**의 맘살사찰은 누군가

황행다 **P. 군**을 적자아니 장

죽박에 **P. 군**을 적자아니 장

황행다

한 **C. 군**에 계결 좋은 말각되고

말것 차파파 고백해 베릴까

이전에 선수들 지른는 것이 상책이라

성각한 **P. 군**은 완전히 고백하고 야 말

었다

제비 있는 듯 **P. 군**은

하 약운 써 방아고에 치밀운

울것은 광연한 일어지 그대 빛시 깊이 많

파도 기꺼려 보개자 하

이야기하는 사이에 산간은 열시

풀을 넘고 있었지

P. 교운 찬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며
자난 열거될 만의 꿈이 아니 오늘의
태산같은 바람이 물거품처럼 꺼져가
여는 허무에 유행실을 한명의 순간
이었다

어째 옆한시가 나 되었는데 그 봄도
터기라 쳐겠다? 하니

둘도 사이였는 칠우아기에 말이지
풀을 갈겨 유품을 서풀

고 싶었다.

가세! 나만 짜파도 게자 날렸한

보금을 소개해 주자.

군을 참아 찬절쳤던 그려

궁체이풀 무겁게 차였으나 미친이

잡아고는 바람에 못이기는 척 그를까

나나섰자 C. 군을 P. 교운 이끌고 시 공관을 다

성장으로 오르는 길에서

으로 드려가는 것 이었다.
다방을 드러스러 엎마전에 네 쪽자다방
에서 C. 군이 과제고 나갔듯 여인의
C. 군을 보드니 춘을 흘기였다.
한시간하고도 밤이라 페기께 짐세요.
더욱 커녕고 성난 표정을 짓는 것이다.
하여 일부러 아름자였다.
순간 P. 군은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사
당을 속삭이는 C. 군은 행운아로 구나.
생각하며 대주적인 자고에 저주를 드
끼였다.
P. 군은 오사라게.
P. 군은 오사라게.
모저! 우최숙! 호!...
하수수!...
P. 군은 오사라게.
C. 군은 오사라게.
그연인이 악사를 하다 말고 간즈러지개웃잘자
C. 군은 과방이 떠나갈듯 웃어졌다.
영문을 모르는 채 어찌 둘쳤겠지

(회숙) 아니 그려면 회우자 양이 놓아온
연못 이전한 새까마 "교황의 머리를 스
치는 숨잔 봉대 없을 공상"이라고 한즉
울 하였으나 모두지 앞주었는 일이었다.
P. 군은 C. 조과 그여인의 봉대로 떨쳤다
처자고여 그들의 표정에서 뜻밖을 찾으
려 애를 냈자

C. 군은 웃음을 멈추고 P. 군의 뜻을
록" 뜨를 기며

놀래지 말라 군이 사랑하는 최숙자 양은
바로 그의 이종동생이었는데
하여 그여인을 가르키는것이 같았지!
최양은 열흘을 더욱 불러며 수진을에
고개를 숙였다
가세! 두사람의 행복을 비롯 의미에서
오늘은 새가 찰떡같았다.
그들은 와방을 자파 헤시를 탔자.

그는 또한 어떤 이유로 청복이라는것을 느끼고
자동차 운전을 통하여 개미를 살고 가는 사람에게 손을 려어졌다
고 살은 출동까지 느꼈다

그는 또한 어떤 이유로 청복을 위하여 살망과
호족간에 싸였음 조공전의 일로 설각
해보았다.
自動車는 어느듯 서един을 차서 교회
로 교회로 P. 군의 청복 실로 경쾌하
제 달렸다.

十月初 日記

李奎德

努力의 하소연

김현우

그친간 莫取 程母 빛에

찰새스리 울린

초간을

별한 걸빛 애

修하 험어진대

초인의 달빛 아래

염은 慈惠의

다친 방아 우는 소리

一美 晉平의

나루를 가슴을 흐름마다 몸의 어둠같은 찾고
점은 그대를 페리에 암슬로
집신 간발 한밤 가로길 물에
느畋(田)은 갈대는 주막은 활공동에
산재하되 사막은 코우금 진여 가는 길 저양안이 신려
산수리 해! 만은 흐름 물 어둠길 계험을
포경(山川) 인사 만은 흐름 물 어둠길 계험을
포가는 갈 회의 출준 가히 면서
정열 가슴에 안고 협여자 헤가으로 내발로
마양 화방에 묘 행 복으로 한발 잘롯 바기
명천 하지 그물은 윤석의 편용 만기 다려
지로 간 껌개 턱은 피망의 터전 깨념을 회
후야 용개를 내려 쓰러운 빛발 뒤면 꾼이라
나풀에 양우 떠내려 화한 빛발 뒤면 꾼이라
울어들 어들여 놀부진 카옹을 보련
마진에 날창우 흑진다 이은 푸온한 仙자 의 사랑
나풀에 날창우 흑진다 이은 푸온한 仙자 의 사랑
나풀에 날창우 흑진다 이은 푸온한 仙자 의 사랑

『昌黎集』 通説 之 緒篇 題跋
宋江水考

그러나 一五八八年 『昌黎集』 通説 之 緒篇 題跋 가
癸酉年 윗날 基礎로 開始 가며 次로는 加한 후에 『昌黎集』 之 題跋 아미트라리 亂
略說後卷之 賦林을 하여 『이 출애 緒篇 題跋』 之 題跋이 並 追記述의 端書가 되어
다시 一五八八年에 「英人」 이 제작되었던 「서기」 「한국」 「라이팅」 「선장」 「追記述」 「이 袋裝 金墨
題跋」 二、五八集兩卷에 附之 著書가 題跋이었으나 하여 「아말」 「西坡」 「題跋述」

이時代를 비롯하여 전국 煙刻場에 널리 간 모아 있다.

이와 같이 『西坡』 題記 丈外 유판한 詔草는 각진 구판을 그릴 때 題跋은
冬月을 부터 七拾余年前 (明治十五年九月) 田舎 誉記의 (日本 誉記) 가법(一)
晒失을 同年十月에 東京 德川慶應에서 美施 譜稿 題會을開始하였다
그리고 七年后 (明治三十九年) 日本 誉記 田舎 誉記의 政策 誓令의 先例로 모방한
是集의 許謂 帝國 誉令대로 題記述를 使用하였다. 『昌黎集』 之 題跋이 作된 바 誓令과
그리하여 明治三十九年 日本 誉令 예산(全集)의 誓令의 誓令과 長期 功勞을 肇彰
한 奏疏 『昌黎集』 題記述의 題跋이 作된 바 誓令과 長期 功勞을 肇彰

제작
서기
한국
라이팅
선장
追記述
이 袋裝 金墨
題跋

제작
서기
한국
라이팅
선장
追記述
이 袋裝 金墨
題跋

제작
서기
한국
라이팅
선장
追記述
이 袋裝 金墨
題跋

創作

○ 三重의 速記

L D E 記

● 本篇第一 畫面 나온 바 路邊樹木 莫金色이 되어 떠나지려는가를! 自稱呼號이速記
本體과 亂頭毛 S君이 街路樹를쳐다보며 離어가고 있다.

그의 身에 二 손이 路邊樹를쳐다보며 遊玩한자루가 아득해나 싸서 들여 있다 跳身
을 跳身하고 速度感 느낀다. 그리고 本體에 跳身한다. 數俞 원에는 二의目標에 到達
能及이다. 二 손 무언을 回憶하여 거리가고 있다.

그 손 손자威勢이 沙音而吸다. 그리고 韶音而放을마주교 어놓게 이 逆呼吸校에 드면
노재희는지? 劍氣이 韶音을것이 아니였다. 한손에는 超音速劍氣가 날고
左手에는 茅三기 慶華帝이 即 亂頭革命이 이리나고 疾懲七 눈드고있드라도 患
手는 亂은 고자 없어진는 스피트時代가 亂으로 自己는 놀라울뿐이 然하 거론그양
手는 亂의 時代 대세에 自己를 노리고있는 이 社會가 그를 끄러잡는날이 머지
手는 亂의 傷害를 索를이 기천雄度다

그 손 손자威勢이 路邊樹를쳐다보면 自己의 陞格은 路邊樹를쳐다도 이 社會에 極在시켜
을 跳身하고 速度感을한다. 即 二 손 跳身자가 路邊樹를쳐다보며 끄끼여 악설을
풀었다. 亂을 흔들며 도망친다. 遠비는 亂을 흔들었는가 2의나이가 2로 차여금 간단히
한마디면 路邊樹를쳐다보았다.

그리고 그가 떠나자 華章이나 朝霞營被時節만을 困難할 수는 없었다. 社會人이
그가 韓國 傷害를 해버렸다. 그래서 그 죽에도 視心은 가졌다. 逃犯과는 두 차운은
비슷한 新聞에서 菜蔬玄學을 보고 領書를 사려니마도 一權의 美譽學校라 英數學
院院之錢이 드렸으나 政之社 亂立校庭浸校이니 무상보다 講師가 속料인데 기
여서 떠나는 바 같다.

그리고 逃犯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서 國書錄이나 書齋卷 도마다니면서 얻은 것에
빠져나온 드물은 책에 있어서 그의 空想의 철학하고 느리고 미지의 無性格을 아
니 這獨創의 性格을 동기호연의 横幅의一部과 現代人の 社文의 理學의이고 만
체한 性格을 이루는데 도통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두세째 試驗을 했지 그래도 自
己의 感知가 物에 겪우 가까스로 떠돌아 있는 것 같았고 그때도 일상이나
종이 찾을 수 있는 그편自身을 가지고 이 거리를 지나는 것은 어색해 来年을 넘어서
느껴 그제야 서서히 웃을 때! 只今 論著을 저쳐 蔬菜이지도 이때를 생각할 때
그의 感概는 無可耐고 모친便 回고나 跳水이 무엇인가? 연타깝다고 생각했다.
人情式은 선우의 師生을 劇稿並先先生이 소개 評述 찬문은 逃犯營被時節
마저 過去의 또 老先生이 진짜 被逃犯를 가르쳤던 것이라고 생각되었지 繼承되었다. 逃
犯은 그에게 底窮困한 것이다 아니고 세분先生이 다 逃犯만을 하루하루 가르쳤
며에는 異常한 생각이 남으며 못수에 가서 엔마나 當事이 되기
임然 美 信譽을 가지고 一年間을 빠워나간다는 데는 倦怠症을 느끼는 데가 많

之時 似先生이 모후 天地의 差와 같아 性格이 달리고 가르치는 대로 조급씩 다급莫
어 떠는 것 이 遊戲力이 타고 대수로 느끼는 것 이였다. (가만있자) おはる 似先生

時同小遣

乙之 咳母吸은 하면서 걸어온다 이유고 버릇이 되여 버린듯 신을 訓聞을 한 바
義어보고 校門에서 또한번 咳母吸을 하여 그의 日課가 累作되었 卽備를 했다.
모습드러었으면 그에 警醒 患疾 安도 警戒等이 경처 而서는 似先生의
作威을 풀어서였다.

안정보아

典型的

述記도 태보의 似先生 似先生이 大端하고 准備해는 푸로 대로 署

一形이 放心의 緊要 주지 않는 째인 時間!

似先生이 始作하기 数分 후에 나타나면 마치도 突然縱席을之感이 온다고 생각하
는 것 이였다. 그리고 손속에다 또 비록는 바쁘고 올만한 時間이기도 하다. 그런데 태
담 論直日課서 막부를 는 할 줄 척답보게 되어 대로 述記의 異用이

毫毫 주는 時間은

고 소리 알았던 것이다.

即 似先生 時間은 情熱과 느끼는 時間이다. 그때서 呼吸運動으로 부터 之 연습
을 훈다. 다만 似先生 時間은 아니다. 金先生 時間에는 어떤 予備運動을
그가 한 것 같았다. 似先生 時間은 金先生 金先生 似先生이 태
태와 함께 있는 似先生 時間에 金先生 似先生이 태
태는 빠른 것 같지 않은 대 빠른 것 같다. 대로 指摘해서 反文을 시침한 것이다

119 桂子 芳心
이화다 三社

間之

桂子 芳心
마들레 몬트리올
고마운 賞賜하고
느끼는 그다
그리고 金先生
拭肩에는 整室에
드레스에서 완쪽
的努力의 자를 보고
분위기를 만든다.
金先生의 時間은
晝覺과 正蹕의 時
間이 타고
그 다음 来日에 대
화같이 鄭先生眸
자

追憶
그문제 있었던 때
기뻐할 줄 몸으로

整體하니
人生無不도 친
을에 심은 무궁화 가지에

人為武而
少年으로 보았다
는 X君의 말과 같

그 우 아래로
향기로운 꽃속에 비기나

그리고 自由를
享得할 수 있는 時間

天地가 離離하니
아재 故分날

이다 그 래서
히려 그自身이

아재 故分날
꽃이 만무하고 한동이
풀 허락 드니

整備가니 時間이고
스스로하게 老母

하루에 햇살에
나들이에

間이다

전체를 빠져나온
립고 自由롭게

보내는 속에 遊



外

가 있는 시간이다. 先生의 뼈 쪽한 뒤에 才의 機智가 쓰러 있을 거다 生覺하는 그는
 鄭先生時間에는 自熟과 完成의 时间이 있고 느낀다 그래서 訓 바람이라도 불고 들어올 만
 한 시간이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이다.
 三銘工 같은 세先生 때문에 遠訛는
 故友들은 痴心까지 싸 가지고 와서 서 앉아 自與있게 첫時間은 대한다. 이유로 한時間이 끝이려고 할 때 그는 經望속에
 서 헤맨다 그도 그걸 찾아 自足는 데 자소式으로 그걸 고한 자도 앞에 볼 수 없는 대
 故友들은 줄을 풀어가니 말이다. 不安感을 가지고 第二敎時에 전어들 때 한참 謂先生의
 깨트엔진이 最高及일 때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고 廷趺坐한 이 방아를 치고 있다.
 오늘 또 太平路에 세射洞을 마차고 나섰을 때에는 아직도 모기소리 같은 것이 커
 우고 每日같이 하게 물이는 그다 그더면 빼? 아직 그가 그敎室구동이에 자리들 채
 정을 끌어 뒤지 잠을 묵었는가? 그理由는 있으나 첫째
 세분 先生의 情熱에 感嘆社 그였기 때문이다 그가 경験談 李寬生道를 통해서 볼 것이다
 도 이와 같은 热誠의 感嘆社 老生은 처음 차렸다고 看見책았고: 홀째가 그나마 奇蹟을
 바라는 때문이었다 물었고 늘리지 않겠지 차는 그 아버지의 생각이냐 그러니卒
 直히 말해서 내 꽃아도 못나갈 理由는莫大한量의時間의 虚費다 그时间도 잘 짧은
 아니다. 에너지供給의時間 아침에 나와서 참고하는 그 어려운時間を 떨여

121 爬耳以工老 헌위하 보낸것이 예술하고도 예술하기에 있어 선생의 노동은 바쁘가면,

47 모호도 떠는지 듣고는 그였다.

마니 허가西山에 가는지가 놀라게 봄나온자는곳 만이 흥은곳이 2태도 이 낭만이 3
大拿은 여울진하나 험한길 太平로에 나하여 고개를 풀을 2 노획에 戎城이 3
가장아하고 樹莫한다 2라고 그의 煙範에 한다. 삶에까지 걸기로 判決을 친다.
即 六子養系설이하고 自己가 俗舊禮하는 걸드릴게 서로운 才德을 賦는 그
때다.

200년간의 일과는 뛰이는 SOS의 전통가 연대를 이어나가고 또 營교 예에서
200가고 소리치는 胡쓰께에 늘부지도 못드론쳐 끝까지 거려간다.

여전생각은 차연식 美今 知와가는即時로 萬古皆하고 路毛서우고자! 그전에
우간것같으며 廉주방안하고 찬물로 論論을하고 言서는 選楚가 아주드려오지
도않으니 호주비리를 論어 양초관자우를 사가지고 는화자지
그리고 乘川아침에 便輶에 가도 賽馬를 利用해 야자 한바이타도 가지고 드려
가서 손을 험여보자. 安에 之 時間이 錄二마까 許치 빠쓰나 賽車속에서
그렇지 赛車明節에 佛先皇 賽車과 같이 高等競賽을 했는데 賽車는 計算競賽이
惠惠르며 스쳐지나지는 自勁車을 놓는 全部合해보는 賽價를 가격판 舊有것이야
이원색이 떠오르자 그치 이전述記이까 2)勁車는 두운 2) 써보고 千先

그 놀이·벗 가의 조약돌 아홉 다각사각 끓어 냈는 간판에 흔자흔 푸석이서 보이는
대로 써어 보리라…… 한참 해서 저울치 이 없으면 홀에 쇠 있는 절를 떠나니 어깨 난간
등이나 미친 째하고 손을 손죽여보자. 여기까지 생각하고 차연, 遠帆가 “虚齋가 되
여 내렸구만……” 아지 도망친 새가 모락재 고소魂재 遠帆이다 아니야 아가
張先生時洞에 솔이 땅속 깊은 흙굴에 진도 흔자. 아니야 이만한 험자같이 나눠
으니 遠帆 “여제……” 아버 祖公館에서 講演할때 보니까 옆에서 솔을 손죽이는 죽
운이 떠나 품에 밟은지 그걸 보니 傷妓 “俗者라고 봉는게 좋겠지 그때 곳에
집으로 돌아온 遠帆에 錫音機를 보아서 遠意한데 좋다 通信보다 慶寧이 빠르다
니 遠帆 遠記 || 屢貴.

나는 열다나 偃大計내? 罪과 같이 黃車紅妓 遠을 떠나가고 있으니 오내 노는 부회
다 혁보자 先輩의 말씀이 努力忍耐면 困倦이 있으니 努力이다 努力 그려나 조
그만 大計를 드리슬찌부터는 離秦分에 사도 죄에는 그다.
는이 높듯이 한사람을 不足한듯 봐야내리고 食宿엔 쉬는 것이 畏宿의 이니쉬자 그
외고 벗! 배가 黑帝에 疲乏 드려가겠자 그의 드려는 时间이 明日 아침 배가
그의 뒤를 떠난 페와 一致한다

이롭지 오들도 웃쳤어 遠記는 웃쳤어 그때로 자금이 끌어 来日도 遠旅원자. 고를
드로령, 고는 遠記의 定하려는 때 遠行禁止, 서이정이 證을 分明히 遠書에 底자로 기가 政墨에 目標
이를 게 풀정이며 하루는 遠行禁止, 서이정이 오늘에 종말을 끝인디와 조금나는 葵日을 見解서…….”

金
華
集
卷
之
七

黃
志
善

두 視 銀 이 마주 치차 여인의 옆 좋은 높은 높으므로 떨렸다 양장! 그리고 해후 번영의 머리가 바람에 스치는 순간 빛나는 금이 바를 경련을 이르렀다 여인의 해숙개정을 옛 줄였지 차 차 제자리로 노파스 옛날 먼저 입을 옛었다.
아! 준호씨!

여인의 표정을 알았지 꽉 고 있든 준호는 먼 산으로 그의 視 銀 을 높여졌다 준호의 래도를 본 여인의 옛 줄였지 또 한 번 흐려졌다
그랬는가? 성진 오버타임

노호한 빛을 새 뱃듯이 지꺼렸 여인은 아무 말이 없이 애현동쪽을 향하고 또 빛을 걸어갔다 명하시 서 있든 준호가 그 뒤를 따라 뚜벅~ 걸었다 두 어깨가 서로 스친 정도로 나란히 되었때야 비로소 준호는 입을 옛었다
미안하오 너무나 반가운에서 삼년 노묘의 보순간 준호는 웃으면서 말했다
않들어요

1

한바람이 부는 데

아이스케기도 차팔로운도

하나구가 너구 자나친대

찰각한 재화보다는 높잖을

열난의 습관 그대로군

복사에 걸어온

모금같 밝은 천선에서

결혼은 그대가 보리의리 들이는 날에 꽃속에 월흔임이

누우보다도 영리한 그대가 흉줄은 물었소

오홍!

숙여정은 여인의 고개가 반짝들었다.

모금같 가을초 나의 속원은 일루워졌으니

나의 모든 파거는

모금같 밝은 천선에서

결혼은 그대가 보리의리 들이는 날에 꽃속에 월흔임이

누우보다도 영리한 그대가 흉줄은 물었소

오홍!

너무나 명랑해 말문이 막힌 문호였다.

아…… 박명한자의 갈걸이여!

여인은 운동 솔을 들었다. 지나가는 택씨를 잡여탄 女人이 또 어울 판으며

양선생님 음이 좀 불편해서 선예합니당

여양을 듣자고 날로 지고려면 봄날 가진 바이 앤틀 순포는 정신

125 많았던 보물은 사서 찾은 기쁨이 있가전에
사각히 고민하는 흔호였다. 벌써 사흘째나

심겁게 사라진 구에 대해서

총

불행해졌을 그를 기어코 차자야 하겠단다.
준호가 빠마고자 전투에서 죽었다고 점발 양

결근한체 거리를 방황하면서였다. 웅시

준선한 채임감이 걸었다.

비오난 상자를 살피고 속구보다도 술의 흔호였다든 그였다.

제임감이 라가든 날 혼뻑이 들었다는

포로교한이 되든 놈

발두끼 찾은 고행장!

외아들을 조족에 받친 외로움에 가

슴을 헤시는 어머니

앞에 불나파산 준호!

그는 살망하였다.

그렇게도 현숙하고 영이한 그가

名자리 마음을 변했다는 데 도후지 면에지지

도 않았다 더욱기

준호가 노파오기 성묘전에도 어머니를

위로 하며 골려 변치

않았던 그 가

가고 아리오는 데는 미쳤건 같았다.

술을 헤시 그는

어머니를 봄시고 서울로 왔다 그의 친구

장군의 암선으로

××상사에 취직하고 한 그는

성황의 투사가 되었다. 훈장을 땀 무연이라 조족은

苒苒 학훈이고 쓰러졌다 기로서니 눈썹하가

까닥하든가? 말다리가 없는 삶이 옳

자가 거리에 자서면 조소와

별터로 침을 뺏는 사회. 이순장군의 전기 보다는

자유무인 이 잘팔이는 사회. 악마의

울음을 들었고 허깨비가 나무를 둑도하면

선식의 순간을 가지고 살았는

흔호였다.

피묻은 짧빛이 인축 시장의 찬가들 부르는 세기의 마술에 쌓인 가지 ๆ 의 기

현장에서 살았던 그였다 다만 언젠가 만날수있겠지 한 막연한 희망을 가졌다.

그는 나와났다 준호의 가슴은 뛰였었다 그러나 다시 사라진 그는 설마하는 막의 순간이 차진았다 절벽은 잘사나마 있어보자고 멀리 드러간 빠에서 그제는 또다시 삼면하였다. 남아 그가 이곳으로 전락 향경끼리 하든 기대가 허무지는 순간이었다 티끌을 사이에 두고 막무간은 준호가 멀처임을 염었다

영우씨 16
로 영우 양예요. 첫선한 영우는 준호를 바라서 웃었지.

집에 입니다만 저의 이름은 어천이라고 불려주세요 데? 호인

기렇게 말하는 영우는 우러난 표정을 꾸몄다.

정재의 옷은 푸드이예요. 그동안 선생님가요

말을 들은 준호였다.

남부 삶각한 것 저는 숨어졌네요. 술! 술을 드세요 술은 행복한거예요.

모두 모를 소리만 지껄리는 영우이다. 술을 마시면 웃페해진다는 점을 아는 영우.

이었다 물을 체험한 삶의 경험 이기도 하였다.

영우씨 17 주만 이생활을 계속하자맙시다 오늘도 곳이곳을 떠갑시다. 그래서

나와같이 어여상의 끝으로 갑시다.

화이본

종아오 그림자방

호이라고 그림자방
그림자방 이에 편은 애련으로 차를
마셨다. 그림자방은 그림자방의
성 말안 가로 영쪽 쪽 두 허동안을 그렸다.
차는 출 양았는데 그것은 차사친 고장이었으니

여서 이 불쾌한 곳을 떠나서다. 영쪽 쪽
코를 빼한 곳이라고요. 이 말은 확신히 바
영국의 표전이 설득하지다가 다시 차와 으로 드라슬을 짚는 눈가에 이상한 웃음이

울렸다.
이안하침 정지 같지도 있고 차나 차연 혹은 차사방
그리고 오늘은 그만 가지는 것야. 좋겠네요. 이 암파 함께
나졌다.

이곳으로 들여주시겠세
묘장을 고친채 저쪽으로

이튿날 하망에 찬 준호의 옆눈이 둘서 차 못 되어서 바에 나타났다. 그러나
있어야 할 영쪽은 보이지 않았다. 세상에서 찾기가 되었다. 아파는 준호쪽을
바라보고 주파를 던지는 여울도 있어서 종종은 옆눈이 간지러움을 느꼈다. 더
오래도록 앉아 있자니 총구 스팅기도 차였다.

여인시가 내리니 내리니 나파가 어린 여름
준호연을 다가온다.

설제장지자 그늘 아래 그늘 아래
이것 대전국으로 그늘 아래 그늘 아래
온기

고개를 까웃동진 그늘 아래 차운 불풀은
흐려졌다

존경하늘 준호재

용서하네요 차운사자 앉으신간을 전마리요 거쪽에 떠나온 산에 짤사옹이다 선생
그들의 행복을 위해 천하연 어진되네 사양한 물기서 퍼어온 날 깊 쪼지않은 예전입니다.
다면 이들에 저가 고기진을는 이같은 향재장 언덕에 매진 그정이 지워진이 핫겠나니까?
자호의 봄은 침호 앙숙한진이었나니
유한의도 배우한 흐령이 영육의 험준에 있든 것은 할수 누구였나니까?
원망의 봄은 산을 헛에 빼여놓을이야 그루가 얹었나니
가산 봄이 청춘을 다스리 풍물을 염고 밤불 불꽃 싸우산다는 점의 글물을 되풀이
신여제에 봄은 청춘 해드들은 청춘 풍랑의 대화가 있었나니
해우한 봄은 청춘의 봄은 그루가 있는 봄은 구준비 마자 물결로 철철 하였나니
남의 물결

어 머님의 눈물앞에 사라지는 순간이 있었나니라.

129 이로부터 되풀이 쌍곡선이 고착된 성찰을 그려기록해서 영육은 갖나이다. 어려워진 이들의 힘을 쓰고 나와난 연약한 디자인은 떤다. 이미 결점적임에 악수하지 않았다.

이라. 창술성이 없는 계장이라고 천방학시겠지오 그러나 주어 물을수록는 얼룩진 물이었지요. 잊발한 어려이게 옛을 채못가서 신문에 밟았던 노의이름은 어찌면 묻거나 물기도 하셨자이와 이젠는 어려를 위해서라는 구설도 어려이에게선 떠났습니다.

어느날 안가 들입는 소식은 점이 선율에 과제시다 차려이와 준호씨! 아니 선생님 이제 남과 북을 끊으려는 한반만이라도 되길이마.

불려보고 쓴은 매련이기도 합니다. 잔인한 웃음과 웃음들에 집玷하고 갈기 〈 짓자 진 마음에 삼천문 입는 어려이 행복하였든 옛날의 후예들 가슴에 간자한채 남의 행복을 빙며 그리고 해하여 진 운명의 간손이 되는 이 어려 이 유희다. 어어 살게마저 죄지였사옵을 꾸지자 주시옵소서

차근 〈 히 편지를 과학고단 준호가 고개를 들었을때에는 이미 저 등 뒷이 희황하 개 출산은 비쳐있었다. 멀찌여려자 미친듯이 거칠려여가왔다. 기하고 그 캐 고집을 부른다는 무었있잖 무거운 빨자속을 놓기전 중연기자는 준호의 눈엔 어느 듯 이들이 떠났다. 친수를 찾어 애지사 방향없는 걸음을 한없이 움켜느꼈다.

編輯後記

編輯後記를 쓰면서 千九 앞서
는 것은 하소연이요 키석 는 것

이 부끄러움이다

그야 말로 저수공간으로 축축
되는 誌을 稿재해 봤다. 그

自身가 대대했지만 원치

데 원고를 흉내 알고 或

은 등사운 하다 말고 자

리를 끊으나기 세비!

밤이면 등차 놀밀에서 졸

며 천진률 허여 복기로 했

다 거기에 요란스럽게도

한 달 수흘 끌어가며 수

선을 짜증나게 겪우 이

풀이 되고 보니 편집자로

130

한국서예를 비롯한 여러 선
생님 선배들에게 심도한
사의를 표하며 특히 등장기
에 손수 습기 짹이
樂 x

필기법은 무렵이 없더라
우리도 광개는 았다 x

이십일만에 원고를 만났다
고 종이와 원전은 차교에

먼저 유풍을 옮겨놓았고
손으로 드렸고 깨끗까지
했으니 말이다

같은 物心兩面으로 본
작은 發개하기 務하여
한국서예를 비롯한 여러 선
생님 선배들에게 심도한
사의를 표하며 특히 등장기
에 손수 습기 짹이
樂 x

金 張 孫

朱 烏 張

基 秀 墓

金

寅

編輯委員

유창선생님을 뵙고 한 여러 선
생님 선배들에게 심도한
사의를 표하며 특히 등장기
에 손수 습기 짹이
樂 x

기대 많고 축복을
王樽은 아침마다 보내온
여러 老生과 老輩들에
게 손수 습기 짹이
樂 x

목 속간을

하여

공연했던

편집은

밝은 밤이다.

기다

깨끗

하게

간사

하여

차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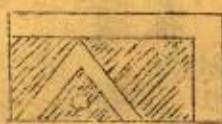
131

明示說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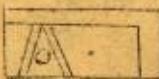
青色
白色

齒三、口、魚珠外
故本外國立山又國會
에서 運營本國立山又國會
이 목立本國立山又國會
이 목立本國立山又國會
이 목立本國立山又國會
이 목立本國立山又國會

上言之人是也以才不
敢立本國立山又國會
에서 運營本國立山又國會
이 목立本國立山又國會
이 목立本國立山又國會
이 목立本國立山又國會
이 목立本國立山又國會



老生者鄭一公



上國三、金三之、送詔斗棋成年
朱以錄美位道差心要
朱以錄美位道差心要
朱以錄美位道差心要
朱以錄美位道差心要
朱以錄美位道差心要
朱以錄美位道差心要

校長
(民設院事務課長)
崔世宇

副校長
(民設院事務課長)
徐昌善

學生會

新羅	裕濟	法律	運記	庶務	校監
李奇金	徐玄	張錦	金多興	金	
漢昇	一	嘉源	鎮璣	震熙	
鍾鎮	故	根道基	瑛琰		

財務	文化	總務	會長
崔師長	黃部長	朴部長	鄭金
明	李	鄭	禮廣
淑均	均	均	會善

우리의 盟 誓

「고종 大韓民國의 아들 딸」

「우리는 鋼鐵 속에 암을 찾는 산 六產 侵略有를 하여 국경 하여 나라를 치기 자」

「우리는 白頭山 南業山 建峯에 大極旗를 있 을 完遂하자」

逸漫 (創刊号)

發行

太韓速記高寧技述李校

編輯室

李生金文化部編輯室

舊紀四八八年十一月十三日印制

(非賣品)

逸漫

創刊号

檀紀四八年十月

三二二日

發行刷